

로마 일장

스 빅 류 십 칠

말미 암아 살나라 헤셨느니라 ○ 하느님의 전노호심이 하늘노축차 나라나서
곳 불의로 전리를 막는자의 모든 경건자 아니 흠파 불의 흠거슬 별호시느니
대개 하느님을 알 거시 더희 속에 보이 늘 임의 하느님께서 더희께
보이 셨느니라 대개 세상을 창조호심으로 브리고 보이지 아니 흠는 거순 곳
그의 영영호신 능력파 선생인더 그 거슬 그 문드신 만물노 보아 알지니
그런고로 사름이 팽계호지못 흠지니라 더희가 하느님을 알되 하느님으로
알아서 영화롭게도 아니 흠며 감사치도 아니 흠고 오히려 그 성각이
허망 흠여지며 미련흔 모임이 어두어졌느니 스스로 지혜 있는데 흠나
우준 흠을 일우어 씩이자지 아니 흠는 하느님의 영광을 변호야 씩이질
사름파 금슈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티신호였느니라 ○ 그런고로
하느님께서 그 사를들을 그 정육대로 더러운 일에 내여 브려 두샤 더희
몸을 서로 욕되네 흠매 더희가 하느님의 전리를 거죽 거스로 밟고아
창조 흠을 밟은 만물을 만물 창조호신 쥬보다 더 경비하고 섬기는고나
쥬는 곳 영원히 천미 흠이 시로다 아멘 ○ 이를 인호야 하느님께서 그
붓그러운 욕심에 배여 브려 두시매 그녀인들도 원리치대로 쓸거슬 변호야
리치를 거스리고 남조도 또 흠 그려호야 원리치대로 너인을 쓸거슬 봐리고
서로 향호야 음유의 모음이 불넓듯 흠매 남조가 남조로 더 브리붓그러운
일을 향호야 그 불의 흠으로 몸에 합당호 보응을 밟느니라 ○ 또 흠 더희가
하느님 알기를 슬혀호 매하느님께서 더희가 악호 모임을 밟은대로 내여 브려
합당치 못 흠 일을 향호에 두셨느니 모든 불의와 악독파 탐심파 포학이
그득호고 죄과 괴와 살인 흠파 다툼파 속임파 각박 흠이 그득호야 숙은죽은
흐는자와 음해호는자와 하느님의 뒤워호시는 바 된자와 릉욕호는자와
교만호는자와 조랑호는자와 악호 거슬 짓는자와 부모를 거역호는자와
미련호는자와 비약호는자와 무정호는자와 불상호는자와 끝이지 아니호는자와
저만 힝호는자는 죽는 거시 맛당호도다 하느님이 뎅호심을 더희가 알고도
일을 힝호는자는 죽는 거시 맛당호도다 하느님이 뎅호심을 더희가 알고도
그런고로 흠을 판단호는 사름아 무론 누구던지 네가 펑계치못 흠 거순
њ을 판단 흠으로 네가 네가 네 죄를 냉함이니 판단호는 네가 끝흔 일을

힝 흠이니라 이련 일을 힝 흠는 자의 채 하느님 써서 진리대로 판단 흠시는 줄을
 우리 가 아는지라 이련 일을 힝 흠는 자를 판단 흠고도 이 뜻 흠을 힝 흠는
 사 름 아 네가 능히 하느님의 판단 흠심을 면 할 줄 노성 각 흠 누나 흠 네가
 하느님의 인조 흠심이 너를 인도 흠야 회기 캐 흠심을 알지 못 흠야 그의
 인조 흠심과 용남 흠심과 같아 촘으심의 풍성 흠을 멀시 흠느뇨 다 많 네가
 굿어 회기 캐 아니 흠 모임으로 조괴를 위 흠야 하느님의 노 흠심을 짜하
 그의 노 흠시는 날을 기드 리느니 곳 그의로 오신 심판을 나타내는 날이 나라
 하느님 써서 각 사 름의 채 흠 대로 보 응 흠시되 촘고 선을 힝 흠야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 흠을 구 흠는 자의 채는 영성으로 갑 흠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순종 치 아니 흠교 불의를 쫓는 자의 채는 전 노 흠심과 분 흠심과 활란과
 곤고 흠으로 갑 흠실 터인 터 악 흠 일을 힝 흠는 모든 사 름의 채 흠시리니
 몬 죄 유대 사 름의 채오 또 흠 헬나 사 름의 채며 오직 선을 힝 흠는 모든
 사 름의 채는 영광과 존귀와 평양으로 갑 흠시리니 몬 죄 유대 사 름의 채오
무릇 둘법에 애습시
또 흠 헬나 사 름의 채 라 대 채 하느님은 외모로 사 름을 취 흠자 아니 흠시는 도다
 범죄 흠자는 둘법으로 심판을 밋을 거 시니 하느님 암 흠해 써는 둘법을 듯는 자가
무릇 둘법에 애습시
 의로온 사 름이 아니 오직 둘법을 힝 흠는 자라 애의롭다 흠심을 엇는 나라
 대 채 둘법 업는 이방 사 름이 본성으로 둘법이 되느니라 이에 둘법의 일을 더 희
 률법이 업 써도 조괴가 조괴의 채 둘법이 되느니라 이에 둘법의 일을 힝 흠즉 이 사 름은
 무암에 샤인 거슬나 타냄으로 그 량심이 증거가 되여 조괴 성 각에 올 코
 그 를을 그 날에 분별 흠리니 그 날은 내 복음을 의지 흠야 하느님이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아 사 름의 온밀한 거슬 심판 흠시는 날이 나라 ○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둘법을 의지 흠야 하느님을 조량 흠며 암의 둘법에
 네어 하느님의 뜻을 알고 능히 션흔 거슬 분변 흠며 또 네가 스스로 빛가를
 죄경의 길을 인도 흠는 샤요 어두운 곳에 잇는 자의 빛치 오 둘법의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미련 흠자를 그르치지 못 흠며 네가 도적 질 말나
 반포 흠고 너는 도적 질 흠며 네가 음란 치 말나 말 흠고 너는 음란 흠며 네가

로마 삼장

소박 철심

우상을 뛰워하고 너는 당집 물건을 도적질하고 를법을 범함으로 하느님을 유퇴해 흐느니 대개 고록호 말슴파 굽치 하느님의 일홈이 너희로 말미암아 이방 사Rom 종에서 비방을 뱉는도다 네가 를법을 힝흐즉 할례가 유익하고 만일 를법을 범흐즉 네 할례가 할례를 뱟지 아니함이 되느니 그런고로 할례를 뱟지 아니혼자가 를법에 의를 직히면 그 할례를 뱟지 아니흔 거슬 할례를 뱟은 것과 웃처녀일 거사 아니나 또 혼 본리 할례를 뱟지 아니혼자가 를법을 온전히 직히면 경문을 알고 할례를 뱟고도 를법을 벌흐는 너를 환단처 아니흐겟느니 대개 의모로 유대인 되는 거시 유대인이 아니오 의모로 육신에 할례를 뱟는 거시 할례가 아니라 오직 속으로 유대인 되는 거시 유대인이며 또 혼 할례는 드임으로 흘지니 신에 잊고 경문에 잊지 아니흔 거시 오그 칭찬 밟음이 사Rom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다만 하느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어시며 할례의 유익함이 무어시뇨 범스에 유익함이 만흐니 첫째는 하느님의 말슴을 더희세 부탁함이니라 만일 엇던 하느님이 죄의 말씀 가온티 의라 칭송을 엇으시고 심판을 째에 이 죄심을 엇으시리라

호옛스니 만일 우리 불의 흐거시 하느님의 의를 드러나게 흐면 무숨 말
흐리오 내가 사Rom의 말흐는대로 말흐노니 전노흐심을 베포시는 하느님이 불의 흐시냐 결단코 아니라 그러흐면 하느님께서 엇지 세상을 심판궁シリ오 만일 하느님의 진리가 나의 거짓말노 영광을 더 만히 엇엇스면 엇지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뱟으리오 우리가 착훈 일을 일우게 흐랴 흐야 악호 일을 흐자 흐지 아니흐겟느니 엇던 사Rom이 우리를 이곳저 훼방흐야 이런 말을 혼다 흐니 너희가 죄를 뱟는 거시 올흐니라○ 그러흐면 엇더케 되오 우리는 너희보다 나은자뇨 아니라 대개 우리가 일족 말흐기를 유대사Rom이나 헬나 사Rom이나 다 죄 아래 있다 흐엿느니라 괴록 흐엿스티

로마 삼장

의인은 업느니 곳 호나도 업스며 셰듯는 사름도 업고 하느님을
우는 찾는 사름도 업고 다 것 길노 나가 훈가자로 무익흔쟈가 되고 선을
힐 흥호는쟈는 업느니 곳 호나도 업느니라 목구멍은 열닌 무덤 끼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설은 독샤의 독이 잊고 그 입에는
져 주와 악담이 그득하고 그 받은 사름의 피를 흘리는 데 쟈룬자라
멸망함파 고성이 그 길에 잊어 평안한 길을 아지못하고 더희 눈
알해 하느님을 두려워함이 업느니라
호시니라 ○ 룰법에 말호 거슨 룰법 아래 잇는쟈의 게 말호는 거신줄을
우리가 아느니 이 말이 모든 임을 막고 원제상으로 흐여곰 하느님 알해 족
명죄호 옛느니라 그런교로 룰법을 흥함으로 써 하느님 알해 모든 육례가
의롭다 호심을 엇지못호느니 대개 룰법으로 써 죄를 세드람이니라 이제는
룰법 외에 하느님의 의를 나타내시니 이는 룰법과 선지쟈가 증거흔
거지니라 곳 예수 그리스도를 멋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의를 모든
밋눈자의게 주시되 분별이 업느니라 모든 사름이 임의 죄를 범할때 하느님의

그런즉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어슬 엊었다 하리오
만일 아브라함이 힝흔 바로 써 의롭다 호심을 엇엇순즉 조랑할 거시
잇스려니와 오직 하느님 압해셔는 업느니라 성경이 무어슬 말호느뇨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엿으매 그 엿음을 의로 명호셨느니 사롬이 일호면
그 삽은 은혜로녀일 거시 아니라 오직 더의께 빛지은 거스로녀일 거시니라
일을 아니호는자라도 경건치아니호 사를을 의롭다 호시는이를 엿으면 그
엿음을 의로 명호실 거시니 일호는 거시 업시 하느님께 의로 명호심을
밧는자는 복이 잇다호 거시 다윗의 말호 것파 곳호니 글으니

^부 불법흔 거시 샥함을 밧고 그 죄를 그리우심을 엿운자는 복 잇는자요
^부 주색셔 그 죄를 명호지아니호신 사룸은 복 잇는자로다
호였스니 ^부 그련즉 이 복이 할례 밧은자의네나 후 할례 밧자아니호는자의
메나 잇느뇨 대개 우리가 말호 기를 아브라함의 죄는 엿음을 의로 명호셨다
호노라 그런즉 엉더케 명호셨느뇨 할례 후냐 할례 전이나 할례 후가 아니라
오직 할례 전이니라 표를 밧은 거순 곳 할례니 할례를 밧자아니호
째에

엿음으로 된 의를 인천 거시니 더는 할례를 밧자아니호고 모든 엿는자의
조상이 되여 너희께도 의로 명호심을 엇게호심이오 ^부 또호 할례 밧은자의
조상이 되엿스나 할례 밧은 사룸의 죄뿐 아니라 오직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 밧기 전에 엿은 힝적을 쫓는자의 죄도 되는니라 대개 아브라함파 그
조손이 세상을 니을 후스가 되리라고 엔약호신 거시 법으로 된 거시 아니오
오직 엿음의 의로 된 거시니라 만일 를법에 불천자가 후스가 되면 엿음이
헛거시되고 또호 언약이 폐함이 되느니라 대개 를법이 노hom을 일우 채
흐느니 법이 업스면 범함도 업스리라 그런고로 엿음으로 된 거순은 혜에
붓흔 거신덕 그 언약을 아브라함의 모든 조손의 죄 굽게 호랴호심이니
률법에 불흔자의 채뿐 아니라 또호 아브라함의 엿음이 잇는자의 죄도
하느니 아브라함은 하느님 압해셔 우리 모든 사룸의 조상이라 이는 경에
쓰기를 내가 너를 만국의 조상으로 세웠다 호심과 곳호니 그 엿은 바
하느님 꽃죽은자를 살나시고 업는 거슬잇는 것 곳처 부르시는자시니라
아브라함이 소망이 업는 중에 만국의 조상이 될 거슬 블라고 엿었느니 그

말숨에 너의 조손이 장총이 끽흐리라 호심을 인홍이라 아브라함의 멋음이
 약호여지지아니호야 빅제가 갖가오매 그몸이 죽은 것 끽흔 줄도 알고
 사라의 단산흔줄도 알되 의심이 나서 요동치아니호고 하느님의 연약을
 브라보며 멋음에 더욱 견실호야 하느님께 영화를 돌넷스며 하느님이
 연약호신거슬 능히 일우제 낭실줄을 확실히 알았스니 그려고로 이 멋음을
 데의계의로 냉호셨는나라 경에의로 냉호셨다 호심은 아브라함만위호야
 쓴거시아니라 오직우리도 위홍이니 우리쥬 예수를 죽은 가온티셔
 살니신이를 멋으면 의로 냉호하시리니 예수는 우리 범죄홍을 인홍야 내여 줌이
 되고 또 훈우리를 의롭다 호심을 위호야 살이나셨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멋음으로 의롭다 호심을 엇엇습즉 우리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더브러 화평홍이 잇고 또 훈 그를 인호야 우리가
 멋음으로 나아감을 엇어 이은혜중에 섯스며도 훈하는님의 영광을 브라고
 즐거워하는니 다만 이뿐아니라 우리들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거순
 환난은 인내를 낫고 인내는 련달을 낫고 련달은 소망을 낫는줄 알미니
 소망이 봇그립게아니함은 우리의개 주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스랑이 우리 믿음에 물붓듯호심이니라 대개우리가 약호 때에 그리스도가
 괴약호신대로 경건치안논자를 위호야 죽으셨는니 의로운 사를을 위호야
 죽는자가 약간잇고 어진사람을 위호야 말히 죽는자가 혹잇스나 오직
 하느님씨셔 그 스랑을 우리의개 나타내셨는니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엿을
 때에 그리스도씨셔 우리를 위호야 죽으심이니라 이제우리가 그피를
 인호야의롭다 호심을 엇엇거든 홍을며 그로 말미암아 노호심에서 구원을
 엇지못호겟느뇨 대개우리가 원수 되엿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더브러 화목호엿거든 홍을며 임의 화목호엿스매
 그살으심을 인호야 구원을 엇지못호겟느뇨 다만 이뿐아니라 이제우리가
 우리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홍을 엇고 또 훈 더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즐거워하는니라○ 이런고로 죄는 홀사름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드려오고 소망은 죄로 말미암아 왓느니 이와 끽처 소망이 모든사람의개
 나르렀슴은 모든사람이 죄를 범호엿슴이니라 대개 죄가 범잇기 전에

古

제상에 잇섯스나 다만 법이 업을 때에는 죄로 명함이 업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그치 죄를 범하고 아니 혼자도 소망 아래 다스림을 받으니 아담은 후에 오실자의 표적이 아니라 죄 범한 거시 은혜를 주신 것과 그지 아니하니 대개 혼사람의 죄를 인호야 못사람이 죽었거든 흡족하지 못한느뇨 ^{十五} 또 혼 혼사람을 인호야 범한 죄는 주신 바 은혜로 더 브려 ^{十六} 그지 아니하니 대개 심판은 혼사람의 죄를 인호야 ^{十七} 판단함에 ^{十七} 니르렀고 주신 은혜는 만흔 죄에서 의롭다 ^{十八} 혼심을 엊었느니라 혼사람이 죄를 범하고 사함으로 인호야 스망 아래 ^{十九} 다스림을 받았거든 혼물을 떠 풍성호 은혜와 의를 주신 거슬었은자가 혼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 잇서 다스리지 못한느뇨 ^{十九} 그런즉 혼죄로 못사람이 판단함에 ^{十九} 니른 것 ^{二十} 치 혼의로 못사람이 의롭다 ^{二十} 혼심을 엊어 살았느니라 이로써 혼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못사람이 죄인 된 것 ^{二十} 치 혼사람의 순종혼심으로 ^{二十} 못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 ^{二十} 법을 세운 거손 죄를 만케 ^{二十} 치 혼함이라 죄 만흔

곳에 은혜도 더욱 풍성함에 죄가 소망하게 다스림과 그치 은혜도 ^{二十一} 의를 인호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성에 ^{二十二} 니르게 혼다스리는 바 되었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숨 말호리오 은혜를 만케 혼라고 죄에 거호한느뇨 결단코 아니라 우리가 죄에 죽었스니 엇지 죄중에 더 살나오 무릇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호야 ^{二十三} 세례를 받은자는 그 죽음을 합호야 세례 받은줄을 아지못호느뇨 ^{二十四} 그런고로 우리가 그 손망을 합호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와 흠띠 장스호였느니이는 아바자의 영광을 인호야 그리스도를 죽은 가온더셔 살나심파 ^{二十五} 그치 우리도 또 혼 새로 살물 엊어 힝함이니라 ^{二十六} 만일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아 런합혼자가 되면 우리도 또 혼 그 다시 살아남파 ^{二十七} 흠호리니 ^{二十八} 우리 넷몸이 예수와 흠띠 십자가에 못박혀 죄의 몸은 멀호매 이제부터 우리가 죄의 게종이 되지 아니함을 알지니 대개 죽은 자는 죄를 벼서나의롭다 ^{二十九} 혼심을 엉었느니라 ^{三十}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흠띠 죽었스면 또 혼 그와 흠띠 살줄을 멋노니 ^{三十} 그리스도가 죽은 가온더셔 사르셋스매

풍속을 쓰라 말하노니 이 왕에는 너희가 그 지례를 드려 더러 움파 불의의 종이 되여 물의에 나른 것 못치 이제는 너희 지례를 드려 의의 종이 되여 거룩함에 니를 지어 대개 너희가 이 왕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서 벼셔 낫는 니라 너희가 이제 무 음에 봇그러운 일을 전에 헹울 때에 무숨 열미를 엿었는 데 그런 일의 마지막은 스망이라 그러나 이제 너희가 죄에서 벼셔나 하느님 암해 종이 되여 거룩함에 나르는 열미를 엿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성이나 대개 죄의 갑순 스망이오 오직 하느님의 주시는 은혜는 영성이니 곳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거시니라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의 법 말하노니 너희가 엊지 를법이 사물의 살 동안 만주 관총 눈줄 아지 못하는 냐 대개 지아비 잇는 녀인이 지아비 살았을 동안은 법으로 그의 배 미인 바 되나 오직 지아비가 죽을즉 지아비 법에서 벼셔 낫는니 그려고 만일 지아비가 살았을 동안에 다른 사물을 죽천즉 음부라 닐고 오직 지아비가 죽을즉 그 법에서 벼셔 낫스니 다른 사물을

다시 죽지 아니 희고 소망이 다시 그를 쥬장 헛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 죽으심은 죄에 터 헛 야 단번에 죽으심이 오 그 살으심은 하느님 씨 터 헛 야 살으심이니 이와 끝치 너희가 스스로 죄에 터 헛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느님을 터 헛여는 산자로 녀 일지이다 ○ 그런 고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다 쓰려 그 수욕을 순종치 못 헛게 헛고 또한 너희 지례를 죄에 드려 불의의 병과가 되지 말고 오직 죽은 가온 터서 다시 산자로 치 몸을 하느님 씨 드리며 또한 너희 지례는 의의 병과가 되여 하느님 씨 드릴지 나라 대개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함은 너희가 법 아래 못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못침이라 ○ 그런즉 엇지 헛리오 우리가 법 아래 못치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못쳤느니 죄를 범 헛리오 결단코 아니라 너희 몸을 드려 종이 되여 누구를 섬기던지 그 섬기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아지 못하는 냐 혹 죄의 종이 되면 소망에 나르고 혹 순종하는 종이 되면 의에 나르느니라 내가 하느님 씨 감사 헛노니 너희가 본리 죄의 종이 되었다가 이제는 너희께 준 바 그 런 천 범을 모임으로 순종 헛 야 죄에 서

로마 칠장

스 빅 팔십이

좆칠자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는니라 그림으로 내 형데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을 안호야 를법의 죄 죽엇스매 이는 다른쟈를 쪽케 흠이니
 곳 죽은 가온더셔 살아나신쟈를 쪽차 하느님을 위호야 열막를 빛치게
 흠이니라 대개우리가 육례에 있을 때에는 를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육이
 우리 지례중에 힝호야 손망에 니르는 열막를 빛쳤더니 이제는 이왕에
 미인 바 되었던 를법에 터호야 죽고 거괴서 버셔 낫스니 이럼으로 우리가
 새 모홍몽로 섬기고 넷의 문으로 아니할지니라 ○ 그런즉 우리가 무습 말호리오
 를법이 죄냐 결달코 아니라 다못법이 아니면 내가 죄를 아지못홍리니 대개
 죄가 계명을 의지호야 괴회를 드셔내며 각양 탐심을 힝동호비호니 대개
 를법에 탐내지말나 호지아니호셨더면 내가 탐심을 세듯지못홍였스리라
 범이 업스면 죄는 죽은 거시니라 전에 법 업슬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나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엇도다 계명은 살비호는 거시로되
 도로혀 죽비호는 거신줄을 내가 세드랏도다 대개 죄가 계명을 의자호야
 괴회를 드셔나를 속이고 또호 그 거스로 나를 죽엿는지라 이로 보건대

로마 팔장

스빅 팔십

잇도 다 대개 내 속에 있는 사람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즐거워 헌되 다못
지례 중에 다른 법 있는 거슬 보매 내 몸의 법과 흠색 싸화 나를 사로잡아
나의 지례에 있는 죄의 법에 북종케 헌니 오호라 나는 괴로운 사람이로다
누가 이 스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호야
내가 하느님의 감사 헌노라 그런즉 내가 몸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섬기고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그런고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개는 죄를 냉함이 업느니라
대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명의 성신의 법이나를 노하 죄와 스망의
법에 버셔 나게 헛였느니 를법이 육신을 인호야 연약하고 능히 못하는
거슬 하느님은 호시느니 이는 꼬리 아들을 죄잇는 육신의 형상으로 보내샤
죄를 위호야 육신에 죄를 냉호샤 이에 그 육신을 쓰라 힘치 아니하고 오직
성신을 쓰라 힘흔은 우리에게 를법의 의가 충만케 허심이니라 대개 육신을
좇는자는 육신의 일을 성각하고 성신을 좇는자는 성신의 일을 성각하느니
육신의 성각은 죽는 거시오 성신의 성각은 사는 것과 평안함이 나라 육신의
성각은 하느님으로 더보러 원슈가 되여 하느님의 법을 굳복지 아니할뿐
아니라 또한 능히 굳복할수도 업느니라 육신에 있는자는 능히 하느님을
깃보시게 못하느니 만일 너희 속에 하느님의 신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잇자 아니하고 오직 성신에 있는니 무릇 그리스도의 신이 업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림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호야
죽고 신은 의를 인호야 살느라 예수를 죽은 가온더서 살느신 하느님의
신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가온더서 살느신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성신으로 너희 죽을 몸을 살느시리라 ○ 그런고로
형데들아 우리들이 벗진자로 되 육신의 개 벗을 져서 육신대로 살녀 하는
거시 아니라 대개 너희가 육신을 쪘자 살면 반드시 죽을 거시오 오직
성신으로 써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살느니 무릇 하느님의 성신으로 인도함을
받는자는 그는 곧 하느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마음을
벗지 아니하였고 오직 너희가 양조의 몸으로 빛아 아바라호는 아바지를
부르느니라 성신이 천히 우리 신으로 더부러 우리가 하느님의 조녀 된

로마 팔장

수백 팔십육

거슬종거호시는니 ¹⁷조녀가 되즉 후스가 되여 곳하는님의 후스라 그리스도로
 더 브러 후스가 되느니 만일 그와 흠뻑 고난을 밟으면 또호 그와 흠뻑
 영광을 밟을지니라 ○ 내 성각에 이제 고난 밟는 것과 장호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을 비교호면 족히 비교할수 업느니라 대개 창조함을 밟은
 만물이 고절히 브라는 거슨 하는님의 뭇 아들이 나타나기를 기드리느니
 창조함을 밟은 만물이 헛된 것의게 굴복하는거시 조괴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케 호시는이로 말미암음이니 그 브라는 거슨 이 만물이 썩어짐의
 종 됨을 장호 버셔나 하느님의 뭇 조녀의 영광을 엊어 조류장함에
 나를 거시니라 대개 창조함을 밟은 만물이 다 이제서지 흠뻑 탄식하고
 괴로움 밟는거슬 우리가 아느니 다만 이뿐 아니라 오직 성신의 처음
 낙은 열민를 밟은우리도 또한 조괴 ¹⁸모임에 탄식호야 양조됨을 기드리느니
 곳우리 몸을 속량놓는거시라 대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엊엇스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거슬 누가 브라리오 만일 우리가
 보지못하는 거슬 브라면 촘아서 기드릴지니라 ○ 이와got치 성신도 또한

우리연약함을 도으시는니 우리가 맛당히 빌바를 아지못하니 ¹⁹성신이
 말할수 업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호야 천히 괴도호시는니라 뭇 모임을
 감찰호시는이가 성신의 뜻을 아시는니 그가 하는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호야 괴도호시는도다 ²⁰우리가 알거니와 곳하는님을 스랑호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님은 사룸의게는 모든일이 할통호야 유익호게 되는니 이는
 하는님이 미리아신사룸을 미리명호샤 그 아들의 모양을 본방제호시고
 여러형데 중에서 그가 맞아들이되게 호심이니라 그 미리명호신이를
 뜨흔부르시고 부르신이를 뜨흔의롭다호시고의롭다호심을 밟은이를
 하느님이 꼬괴아들을 앗기지아니호시고 오직우리 뭇 사룸을 위호야
 만일 하느님이 우리를 위호야 힝호시면 누가 능히 우리를 터덕호리오
 또호영화롭게호션느니라 ○ 그런즉 이 일에 터호야 우리 가무숨말호리오
 브리셋스니 ²¹엇지 그 아들과 흠뻑 만물을 온해로 우리에게 주시지아니
 흐시겟느뇨 ²²누가 능히 하느님의 희호신 빅성을 송수호리오 하느님이
 의롭다호시는니 누가 능히 죄를 명호리오 그리스도 예수씨셔 임의 죽으시고

로마 구장

스 빅 팔십팔

도 혼 살 아나 샤 하느님 우편에 계시샤 우리를 위호야 과도호시는 자시니라
 누가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소랑에서 혼호리오 환란이나 곤고나
 필박이나 곤근이나 져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는 성경에 쓴 바와
 굿호니 날넷스티

^{三五} 우리가 종일 죄를 위호야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잡혀 죽을 양파로 치
 해아림을 ^{三七} 밟았다.

^{三六} 흉였느니라 그려호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소랑 ^{三八} 호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꿈을 엊고도 더욱 놈음이 있느니라 ^{三九} 대개 내가 김히 아니나
 소망이나 ^{三九} 성명이나 턴스나 권세 잡은이나 이제 일이나 장리 일이나
 능력이나 놀홀음이나 길홀음이나 창조음을 밟은 다른 아모 물건이라도 우리
 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느님의 소랑에서 우리를 능히 손치못할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잇서 진리를 말할며 거죽 말을 흠지아니하고 내
 량심이 성신을 힘남여 나로 더브러 증거호 노니 내가 큰 근심이 잇서
 몇음에 흥상의 통호노라 ^{三九} 대개 나의 형데 곳 꿀육의 천체를 위호야 내가

그리스도 죄 죄하지는 더 셔지니를 지라도 원호는 바로라 ^{四十} 너희는 이스라엘
 사롭이니 양조 됨과 영광과 언약과 룰법을 세우신 것과 레법과 혀락호심을
 엊엇스매 ^{四一} 렬조는 더의 조상이오 육신으로 말호면 ^{四二} 너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나셨스니 ^{四三} 더는 곳 만물 우에 계서 세세에 찬양을 밟으실
 하는님이시니라 아멘 ^{四四} 그려호나하는님의 말숨이 임의 폐호지아니 흉였도다
 대개 이스라엘 노브터 난자가 다 이스라엘 사롭이 아니오 ^{四五} 혼호 아브라함의
 써가 다 그 존손이 ^{四六}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브터 난씨라야 너의 존녀라
 칭호리라 ^{四七} 혼셋스니 이는 육신의 존녀가 하는님의 존녀가 아니라 오직
 혀락호 존녀를 존으로 녁이시니라 ^{四八} 대개 혀락호신 말숨이 이거시니
 글으사더 명년 이 때에 내가 나르리니 사라의 제아들이 이스라라 ^{四九} 호시고
 이뿐 아니라 ^{五十} 혼호 리브 가가 우리 조상 이삭으로 말미암아 영тик 흉였는 티
 그 조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선악을 무어시던지 흉호지도 아니한
 때에 하는님의 흉호신 뜻은 그 힝실도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그 부르시는 티
 이의 개로 말미암음이니 ^{五十一} 리브 가의 개 널네 글으사더 형이 아오를 섬기리라

로마 구장

스 빅 구십일

흐셨느니라 괴록 훈바와 그호니 날넷스티 야곱은 내가 스랑하고 에서는
 뭐워 흐였다 흐셨느니라 ○ 그런즉 우리가 무숨 말호리오 하느님께 불의 힘이
 잇느뇨 결단코 아니라 하느님이 모세의 제 님니 굽으 샤티 누구던지 내가
 궁홀 히녀이라면 궁홀 히녀이고 불상 히녀이라면 불상 히녀이라라 흐셨느니
 그런즉 원홀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다른 박질홀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오직 궁홀 히녀이시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음이라 대개 성경이 바로의 제
 널너 굽으 샤티 곳이 일을 인호야 내가 너를 세월스니 이는 너로 말미암아
 내 권능을 보이고 또 홀내 일홀을 원싸에 퍼지게 흐랴함이로라 흐셨느니
 그런즉 하느님께 누구를 궁홀 히녀이 고져 흐신즉 궁홀 히녀이시고 누구를
 강파케 흐고져 흐신즉 강파케 흐시느니라 ○ 후 네가 내께 말호기를
 하는 님이 엇지 흐야 쑤지지시며 누가 그 뜻을 막겟느뇨 흐니 이 사룸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느님을 헬문호느뇨 지음을 밟은 물건이 지운자를
 터 흐야 말호기를 엇지 나를 이 그치 문드렛느냐 흐겟느뇨 토괴장이가
 진흙 흔령이로 흐나는 귀호 그릇을 만들고 흐나는 천호 그릇을 만드는

권이 업느나 만일 하느님이 그 노호심을 발호시고 그 능호심을 나타내고
 져 흐실지라도 그 노호심을 밟아 맞당히 멸홀 그릇을 촘음으로 만히
 관용호사고 또 흐 영광 뜻기를 위호야 예비 흐신바 궁홀이녀이시는 그릇의 제
 그 풍성호 영광을 알게 흐고져 흐셨느니 우라가 무숨 말호리오 이 그릇은
 곳 하느님이 부르신 우리니 다만 유대 사룸 중에서 뿐아니라 이방 사룸
 중에서도 부르셨느니라 호세아 글에 있는 말씀과 그호니 굽으 샤티

나의 빅성아닌 자를 나의 빅성이니라 부르며 나의 스랑치아니 흐는 자를
 스랑 흐는 자라 칭호리라 이전에 너희는 내 빅성이 아니라 흐 곳에도
 흐셨느니라 이사야도 이스라엘 사룸을 그르쳐 웨쳐 굽으 티 이스라엘 뭇
 거리서 너희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라 칭호를 엇으리라
 조손이 그 수가 비록 바다 모래 그호니 오직 놔아 있는 자가 장호 구월을
 엇으리니 대개 쥬가 세상에서 그 말씀을 일우사 필호케 흐시고 속히
 흐신다 흐셨느니라 또 흐 이사야 가 전에 말한 것과 그호니 날넷스티
 만유 쥬께서 우리를 위호야 씨를 두시지 아니 흐셨더면 곳 세돌파

로마 십장

스베픽구십삼

곳치 되고 또 흠 교 모라와 곳치 되엿스리라

흐엿느니라 ○ 그련즉 우리가 무숨 말흐리오의를 쪘지 아니호 이방 사물은

의를 엿엿스니 곳밋음의 의요 오직 이스라엘 사물은 의의 법을 쪓치되

그 법에 나르지 못흐엿스니 엿지 그러호뇨 이는 멋음으로 궁지아니호고

오직 흥함으로 흐야 부티칠 돌에 부티쳤느니라 이는 괴록흔 바와 곳흐니

닐넷스티

볼지어다 내가 부티칠 돌파 멋그러움을 밟지아니호리라

밋는자는 봇그러움을 밟지아니호리라

흐엿느니라

형데들아 내 무음에 원흐는 바와 하느님씨 구호는 바는 곳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대회가 구원을 엿배함이라 대개 대회가 하느님씨 열심 잇는 거슬
내가 종거 흐노니 그려흘지라도 그 열심이 지식을 쫓차 잇는 거시아니라
하느님의 의를 모르고 드리의를 세우고 저호야 하는 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호엿느니라 그리스도는 률법의 못 총 이 시 니 모든 멋는자의 배 의가

사람은 그의로 살나라 흐엿거니와 오직 멋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곳치
말흐티네 무음에 뉘가 하늘에 올나가겠느냐 흐지말나 이는 그리스도를
강림호시게 흐려흐는 성각이오 후 누가 음부에 누려가겠느냐 흐지말나
이는 그리스도를 죽은 가온티셔 올나오시게 흐려흐는 성각이라 오직
무숨말을 흐뇨 닐넷스티 말숨이 네개갓감고 네임에 잇스며 네 무음에
잇다 흐엿스니 이는 곳우리가 전파흐는 멋음의 말숨이라 네가 만일 네
임으로 예수를 쥬로 안다호고 또 하느님색서 예수를 죽은 가온티셔
살니심을 네 무음에 멋으면 구원을 엿으리라 대개사람이 무음으로 멋은즉
의에 너르고 임으로 종거흔즉 구원함에 너르느니라 성경에 닐넷스티 무릇
사람이나 분별이 업느니호 쥬색서 뭇사람의 쥬가 되시매 대를 부르는
더를 멋는자는 봇그러움을 보지아니호리라 흐시니 유대 사람이나 헬나
모든 사람의게 풍성호시도다 무릇 누구던지 주의 일흔을 부르는자는
구원을 엿으리라 그 여 호 면 신종호지아니호는 쥬를 엿자 부르며 듯지도 못한

로마 십일장

스 빙 구 십 소

十五

쥬를 엊지 멋으리오 전파 호는 자가 업스 면 엊지 드르며 보내심을 밟지 아니
호였스 면 엊지 전파 호리오 괴록호 바와 끽호니 날넷스티 션호 복음을
전호는 자의 말이 엊더케 아름다운고 호였느니라 ○ 그러호나 너희가 다
복음을 듯고 쪼지아니 호였도다 이사야가 굽으티 쥬여 우리 전호는 바를
누가 멋었느잇가 호였스니 그런고로 멋는거순듯는 터셔나며 듯는거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호노니 너희들이 듯자 아니
호였느뇨 파언드렷느니

그 소리가 원싸에 펴지고 그 말씀이 짜뜻느지 날넷스티
호였느니라 내가 또 말호노니 이스라엘 사룸이 아지못호였느뇨 몬저는
모세가 날넷스티

빅성 되지아니호는 자를 가지고 너희로 흉여곰식고나게 호며 미련호
빅성으로써 너희를 분내께 호리라

호고 또호 이사야가 담대히 날넷스티

나를 찾지아니호는 자가 나를 맛나고 나를 구호지아니호는 자가 나의

나타남을 보리라
하고 또 이스라엘을 그르쳐 말호야 굽으사티 슐종처아니호고 터역호는
빅성의께 내가 종일 내 팔을 버렸노라 호셨느니라

그런고로 내가 말호노니 하느님이 그 빅성을 브리셨느뇨 결단코 아니라
나도 이스라엘 사룸이 오아브라 할의 조손이오 벤야민의 지파라 하느님이
그 미리 아신 빅성을 브리지아니호셨스니 너희가 성경이 엘이야를 그르쳐
말호거슬아지못호느니 더가 이스라엘 빅성을 하느님씨 송수호야 굽으티
죽여 너희가 죄의 선지자를 죽이며 제단을 헐고 홀노나 만 늘았는터
내 목숨을 찾느이다 하느님이 너희에게 엊더케 탑호셨느뇨 굽으사티
내가 바알의께 무들을 뿔지아니호자 철천을 늠개 나를 위호야 두었다
호셨스니 이와 끄치 이체도 또호은해로 퇴호심을 의지호야 늠은 사룸이
잇느니라 말일은해로 말미암은즉 힝苟으로 말미암자아님이니 그려치아니면
은혜가 은혜되지못호느니라 그런즉 엇짐이뇨 이스라엘이 구호는 바를
엇지못하고 오직 퇴호심을 님은 자가 엇엇고 늠은 자는 완악 흉여졌느니라

괴록 환 바와 그호니 달넷스티 하느님이 그의 계 혼미호 모임을 주샤 눈으로
보지 못 헤 헤며 귀로 듯지 못 헤 헤 시고 오른날서지 나르렀느니라 ^보
다윗이 글으 터

데희 밥상이 변궁야 그물파 덧파 걸나는 것파 보옹홍함이 되고 그
눈은 흐려서 보지 못 헤고 등은 홍상 굽게 될지어다
흐엣스니 그련교로 내가 말호 노니 데희가 실족 헤야 너머지라고 헤노뇨
결단코 아니라 오직 데희의 너머짐으로 구원함이 이방 사룸의 계 너르렛스니
이스라엘 사룸으로 쇠고케 헴이니라 데희의 너머짐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며 데희의 부족함이 이방 사룸의 부요함이 되거든 헤물며 그 풍성함
이리오 ○ 그러나 내가 너희 이방 사룸의 계 말호 노니 나는 이방 사룸의
손도가 되여 내 직분을 영화롭게 험은 ^혹내 골목 중에서 아모토록 쇠고케
호야 데희 중에 후간 구원을 엊제 헤 랴함이라 ^{대개} 데희를 보리는 거시
제상의 화목 험이 되거든 그 도로 헤 빛는 거시 죽은 가온더서 사는 것파
엇지 다르리오 ^{만일} 천신 헹는 떱 반죽이 거루흔즉 뎅이도 그려 헤고 또 헤

썩리가 거루흔즉 가지도 그려 헤니라 엊던 가지가 쟈거졌는터 돌 ^{갈탐}
나무 될 네가 그 중에 접붓치임이 되여 촘 ^{갈탐} 나무 썩리를 힘남여 그
진액을 엉엇손주 그 썩거진 가지를 향 헤야 조공 헤자마라 조공 헤 라거든
알거시 잇스니 네가 썩리를 보전 헤는 거시 아니오 오직 썩리를 너를
보전하는 거시니라 ^거 그련교로 네 말이 가지를 썩근 거손나를 접붓치랴고
흔 거시라 헤니 올로다 데희는 멋지 아니함으로 썩 색금을 보고 너는
멋음으로 썩 서는니 모임을 놀히지 말고 오히려 두려워 헤라 하느님이 근본
가지도 앗기지 아니 헤섯거든 너희를 앗기시겠느뇨 그런교로 하느님의
인조 헤심과 엄위 헤심을 보라 떠려지는 자의 배는 엄위 헤시고 오직 하느님의
인조 헤심에 거하는 네배는 인조 헤시는나 그리치 아니면 너도 떠하는 봄
되리라 데희가 멋지 아니 헤는 터 거하자 아니 헤면 또 헤 접붓침을 엉을지니
대개 하느님이 데희를 능히 다시 접붓치시리라 네가 근본 돌 ^{갈탐} 나무에서
썩함을 뺏고 또 본성을 거스려 빛 헤감람 나무에 접붓침을 엉엇거든 헤물며
데희는 근본 가지니 다시 데희 감람 나무에 접붓치심을 엉지 못 헤리오 ○

형데를아 내가 이 오묘한 뜻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아니호니 스스로
지혜잇다 흠을 면케 흐라 대개 이스라엘 사람이 더러는 왼악하게 되여
이방사람이 드러오기서지 나르리니 그^는려케되면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구원을 엊으라 괴롭흔 바와 같호니 님닛스터

구원^{二七}할자가 장^장초^초시온에서 오샤야 꼬보의 경건치아닌 거슬업제^제하시고
또^또호내가 그죄를 업시^할때에 내가 더로 흠^흔썩^썩언약을 세울^거시라

희심이로다 ○ 김도다 하느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 판단하시느
거슬가히 측량치못하며 종결도 가히 찾지못하겠도다 쥬의 무옴을 안자가 누구며 흠색
누구며 흠색 의론혼자가 누구며 쥬색 몬져 드려서 갑희심을 엊을자가 누구뇨 대개 많물이다 쥬의께서 나오고 쥬로 말미암고 쥬의께서 도라가는 나라 아멘

그런고로 형데들아 내가 하느님의 조비 호심으로 너희를 권호노니 몸으로
산제스를 드리라 이는 거룩하고 하느님을 깃브시게 하는 거시니 너희의
당연호례법이라 너희가 이 제단을 본받지 말고 오직 변호야 새 모음을
받아 하느님의 선호시고 깃벼 호시고 온전호신 뜻을 분별호라 ○ 내게 주신
은혜를 힘없이 너희 각사람의 게 말놓 노니 스스로 높흔성각을 지나치게
흐지말고 오직 하느님께서 각사람의 게 멋을 눈화 주신대로 지혜롭게
성각호라 우리 혼몸에 여러 지혜가 잇스나 모든 지혜가 다 그흔일 혼
거시아니니 이와 그치우리무리가 그리스도안에 잇서 혼몸이 되여 서로
지혜가 되였느니라 하느님이 주신대로 우리의 잇은 은혜가 각각 다르니

흑 선지자 되는자는 멋음의 분수대로 예언을 흐고 흑 집스가 되는자는
 집스의 일을 흐고 흑 교훈하는자는 교훈의 일을 흐고 흑 권위하는자는
 권위의 일을 흐고 구제하는자는 성실한 모임으로 흐고 다스리는자는
 부지런히 흐고 궁휼히녀이는자는 즐거운 모임으로 흘러가시니라 ⁹스랑하는
 거슬거듯한이 업시 흐야 악한 거슬 뛰워하고 ⁺선흔디 속호라 형데를
 스랑하는 서로 우익하고 존경하는기를 서로 몬져하고 ⁺부지런히 애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쥬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란에 촘으며 과도를
 흥상하고 ⁺성도의 쓰는 거슬 공급하며 손 터접하는기를 힘쓰라 너희를
 팔박하는자를 위하고 암울한 복을 빌고 저앙을 빌지마라 ⁺즐거워하는자로
 흠뻑 즐거워하고 우는자로 흠뻑 울나 ⁺서로 뜻을 ⁺나누고 ⁺지혜 있는데마라 악으로 써 악을
 브라지 말고 오직 진덕처하는스스로 지혜 있는데마라 악으로 써 악을
 갑지 말고 모든사람 암해선힘을 예비호라 ⁺만일 훌수잇거든 너희 힘있는대로
 뭇사람으로 더브러 화목호라 ⁺내 스스로는 벗들아 너희 원통한 거슬
 갑지 말고 오직 노호심을 기드라라 괴롭힐 옛스티 쥬가 말씀호시기를 배

원슈 ^{갑는} 거시 ^{거시} 내께 ^{내께} 잇스니 ^{내가} ^{갑호리라} 흑션느니라 그련고로 네
 원슈가 만일 ^{만일} 주리거든 먹이고 목 ^모르거든 마시우라 그리 흐면 슛불노
 그 머리에 놋는 것 ^흐니라 악의게지지 말고 오직 선으로 써 악을
 아파라

모든사람은 권세잇는 웃사람의게 굽복호라 권세는 하는님색로 나지아님이
 업는니 권세잇는 거손다 하느님의 명호신바라 그련교로 권세를 거스리면
 하느님의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자들은 그괴의게죄명호를 밟으리라
 대개 권세잇는자는 선힘하는자를 두렵게 흠이 아니라 오직 악행하는자를
 두렵게 흐느니 내가 권세잇는자를 두려워호지 아니호랴는냐 선을 힝호라
 그리 흠즉 그의게 청찬을 엊으리라 그는 하느님의부리는자니니를 유익호게
 흘저라 그러나 내가 악행을 흐는자어든 두려워흘지여다 대개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느님의부리는자가 되여 악을 힝하는자의게 놓호이로
 형벌호느니라 그린고로 맞당히 굽복호되 노호만 면호랴고 호지 말고 오직
 양심을 위호야 흐라 너희가 이를인호야 세를 밟치는니 그 권세가잇는자는

로마 십사장

오 빅 삼

하는 님의 일군이 되여 흥상 이 일을 다스리니라 맛당히 모든 사물의 제
줄거슬 주더 면제를 밟칠 자의 제 면제를 밟치고 잡제 밟칠 자의 제 잡제를
밟치고 두려워 할 자를 두려워 하며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 ○ 너희가 아모
사물의 제 면제를 밟지 말고 오직 서로 사랑으로 밧을 지라 님을 사랑하는 자는
룰법을 다 일우었느니라 ^九 간을 헤치 말며 사물을 죽이지 말며 도적 징통지 말며
탐내지 말나 혼외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곳 리웃 사물 사랑하기를
玷과 몸파 고치 호라 흑신 계명 중에 다 드러갓느니라 사랑은 라웃을
해롭게 헤지 아니호느니 그런고로 사랑은 룰법을 온전히 일우느니라 ○
또 혼 너희가 이 때를 아느니 곳 자다가 맛당히 셀 때라 이제는 우리를
구원함이 처음 맷을 빼보다 갖가오니라 ^十 밤이 갑고 낫이 갖가왓느니 그런고로
우리가 어두운 일을 벗고 광명한 밤을 지니라 맛당히 단정호기를
낫에 헝겊 ^{十一} 헤고 탐식과 술 취호지 말며 음란파 방탕호지 말며 정투와
식괴호지 말고 오직 쥬 예수 그리스도를 옷 닦듯하고 육신의 일을 예비함으로
정욕을 헝치 말자니라

맛음이 ^{十二} 연약한 자를 너희가 맛당히 밟으되 다만 의혹한 바 일 노 변론
할지 마라 엇던 사물은 맷음으로 빅물을 다 먹으되 엇던 사물은 맷음이
연약 ^{十三} 헤야 척소를 먹느니 먹는자는 먹지못하는자를 경허녀이지 말고 또 혼
먹지못하는자는 먹는자를 펌론 ^{十四} 헤지마라 대개하는 님이 일의 더를 밟으셨
느니라 너는 누구 완대 감히 님의 종을 펌론 ^{十五} 헤니 그 섯는 거시나 너 머지는
거시제 쥬인의 제 엇스매 더가 반드시 서게 ^{十六} 헤리니 대개 쥬는 서게 ^{十七} 헤사는
권등이 엇느니라 혹은 이 날이 더 날보다 낫다 ^{十八} 헤고 혹은 모든 날이
모다 ^{十九} 헤니 각각 그괴 모임에 의심 업시 작명 ^{二十} 헤여라 날을 작하는 자도
이에 쥬를 위호야 적히고 먹는 자도 쥬를 위호야 먹으며 하는 님에 감사하는
거시오 먹지안는 자도 또 혼 쥬를 위호야 아니호며 하는 님에 감사하는
거시라 ^{二十一} 우리 가 호나이라도 그괴를 위호야 사는 자가 업고 또 혼 그괴를
위호야 죽는 자도 업는지라 ^{二十二} 우리가 살아도 쥬를 위호야 살고 죽어도 쥬를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으신 거순 곳 죽은 자와 산자의 쥬가 되려호야

로마 십스장

오백스

그리호심이니라 베가 엇지 너의 형데를 판단호며 엇지 너희 형데를
업수히 녀이 는뇨 우리가 다 하 는님의 심판되 압해서리라 괴록호였스되
쥬니 글으 샤티 나의 산 거슬 그르쳐 증거호노니 모든 무름이 반드시
내제물 거시오 모든 임이 반드시 하는님께 찬미호리라

호영속니 이와 조치 우리 각인이 다 조괴 힝흔 일을 하는님께 적고호리라 ○

그런고로 우리 가다시는 서로 판단호지 말고 오히려 뜻을 명호야 부드칠
돌이나 거치는 거스로 써형데 암해 두지아니호지니라 우리가 쥬 예수
안에 잊서알고 길히 맛는 거시이 거시니 무릇 무숨 물건이던지 스스로

정결치아님이 업스되 만일 사름이 정결치못호제년이면 그의 죄는 정결치못호
거시되느니라 네가 만일 음식을 인호야 네 형데를 근심호제 흔즉 네가
스랑함으로 흥처아니함이라 그리스도가도 혼그 형데를 위호야 죽으셨스니

네가 음식으로 써 그를 망케호지 말지어다 그런고로 너희의 선호 거슬
가자고 사름의 죄비방호는 바되지마라 대개하는님의 나라은 먹는 것파
마시는 거시 아니오 오직 성신을 힘남여 의로움파 평강등파 깃불이니

창찬호느니라 이련고로 우리 가사름으로 더브려 화평호는 것파 서로 덕을

세우는 거슬 힘쓸지니 먹는 거슬 위호야 하는님의 혼신일을 문하지게
마라만물이 다정호되 다만사름이 죄되게 먹을즉 악함이 되는니 고기도

먹지아니호고 술토 마시지아니호고 무론 무숨 일이던지 형데로 맛그리지게
아니호는 거시아름다오니라 네제 있는 맛음이 조괴를 위호야 하는님 압해

잇제 호라사름이 스스로 분변호는 바로 써조괴의 죄되게 아니호는 자는
복잇는자로다 모음에 의심호고 먹는자는 냉죄함을 밟을 거순 맛음으로

말미암아 먹지아니함이니 범수에 맛음으로 아니호는 거순 죄나라
우리 굿센쟈가 맛당히 연약훈자의 굿세지못함을 돋고 조괴를 깃브케

호지아니호거시오 우리 가각각 맛당히 라웃을 깃브케호야 선을 흥호고
덕을 세울지니라 대개 그리스도가 조괴를 깃브케호지아니호시고 오직
괴록호바와 조호니 너를 비방호는 자의 비방호는 거시 다내제니르렀다
호셨는니라 무릇 전에 괴록호바는다 우리를 교훈호라고 괴록호 거시니

본인내호는 것과 성경의 안위 흠으로 써 소망을 엿게 흠이라
 주시는 하느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달하노니 [○]흔 모임과 훈 입으로 하느님 곳 우리 쥐 예수
 아바지께 영광을 돌녀보내게 훌지라 이로 써 서로 밟기를
 도여서 너희를 밟아 하느님을 영화롭게 흠과 웃쳐 훌라 대개 내가
 노니 그리스도가 하느님의 진리를 위호야 조상의 채 주신 허락을
 응호시라고 할례 밟은자의 채 슈종드는 이가 되시고 또 훈 아방 사룸으로
 흠여 곰 그 궁홀 흥심을 인호야 하느님을 영화롭게 훌니 괴록 흥엿스티
 이런 고로 내가 이방 사룸 중에서 쥐를 안다 훌고 쥐의 일흔을 찬미
 흠리로다

흥엿스며 ^도 글으 샤티

이방 사룸들아 쥐의 빅성파 흠씨 즐거워 훌라

흥엿스며 ^도 글으 샤티

모든 이방 사룸들아 쥐를 찬송하고 만국 빅성아 쥐를 찬송 훌라

흥엿스니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이 멋음으로 모든 깃불파 평강을 너희께
 충만케 흠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흠시기를 원하노라 ○
 내 형데들아 내가 갑히 알게나와 너희가 인조홍이 그득하고 모든 지식이
 추고 또한 서로 능히 훤호는자로다 ^다못 내가 더욱 담대히 대강 글노써
 너희께 붓쳐서 너희로 괴념 흠은 하느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이나
 내가 이방 사룸에 터호야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가 되고 하느님 복음의
 제스장이 되여 이방 사룸을 밟드려 드림을 성신으로 힘남아 거룩하게
 해야 가히 빛님적 흠께 훈지라 그린고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남아
 하느님의 일을 드랑궁지니와 그리스도여서 나로 말미암아 흠을 것외에는
 내가 감히 말호지 못하고 성신을 힘남아 이적파 죄수의 권능으로 써 말을
 흠여 일을 흠호야 이방 사룸을 슬종케 흠이니 이로 써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

흥엿스며 ^도 글으 샤티
 이방 사룸들아 쥐의 빅성파 흠씨 즐거워 훌라
 흠엿스며 ^도 글으 샤티
 모든 이방 사룸들아 쥐를 찬송하고 만국 빅성아 쥐를 찬송 훌라

흥엿스니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이 멋음으로 모든 깃불파 평강을 너희께
 충만케 흠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흠시기를 원하노라 ○
 내 형데들아 내가 갑히 알게나와 너희가 인조홍이 그득하고 모든 지식이
 추고 또한 서로 능히 훤호는자로다 ^다못 내가 더욱 담대히 대강 글노써
 너희께 붓쳐서 너희로 괴념 흠은 하느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이나
 내가 이방 사룸에 터호야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가 되고 하느님 복음의
 제스장이 되여 이방 사룸을 밟드려 드림을 성신으로 힘남아 거룩하게
 해야 가히 빛님적 흠께 훈지라 그린고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남아
 하느님의 일을 드랑궁지니와 그리스도여서 나로 말미암아 흠을 것외에는
 내가 감히 말호지 못하고 성신을 힘남아 이적파 죄수의 권능으로 써 말을
 흠여 일을 흠호야 이방 사룸을 슬종케 흠이니 이로 써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

흥엿스니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이 멋음으로 모든 깃불파 평강을 너희께
 충만케 흠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흠시기를 원하노라 ○
 내 형데들아 내가 갑히 알게나와 너희가 인조홍이 그득하고 모든 지식이
 추고 또한 서로 능히 훤호는자로다 ^다못 내가 더욱 담대히 대강 글노써
 너희께 붓쳐서 너희로 괴념 흠은 하느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이나
 내가 이방 사룸에 터호야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가 되고 하느님 복음의
 제스장이 되여 이방 사룸을 밟드려 드림을 성신으로 힘남아 거룩하게
 해야 가히 빛님적 흠께 훈지라 그린고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남아
 하느님의 일을 드랑궁지니와 그리스도여서 나로 말미암아 흠을 것외에는
 내가 감히 말호지 못하고 성신을 힘남아 이적파 죄수의 권능으로 써 말을
 흠여 일을 흠호야 이방 사룸을 슬종케 흠이니 이로 써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

흥엿스니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이 멋음으로 모든 깃불파 평강을 너희께
 충만케 흠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흠시기를 원하노라 ○
 내 형데들아 내가 갑히 알게나와 너희가 인조홍이 그득하고 모든 지식이
 추고 또한 서로 능히 훤호는자로다 ^다못 내가 더욱 담대히 대강 글노써
 너희께 붓쳐서 너희로 괴념 흠은 하느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이나
 내가 이방 사룸에 터호야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가 되고 하느님 복음의
 제스장이 되여 이방 사룸을 밟드려 드림을 성신으로 힘남아 거룩하게
 해야 가히 빛님적 흠께 훈지라 그린고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남아
 하느님의 일을 드랑궁지니와 그리스도여서 나로 말미암아 흠을 것외에는
 내가 감히 말호지 못하고 성신을 힘남아 이적파 죄수의 권능으로 써 말을
 흠여 일을 흠호야 이방 사룸을 슬종케 흠이니 이로 써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

흥엿스니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이 멋음으로 모든 깃불파 평강을 너희께
 충만케 흠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흠시기를 원하노라 ○
 내 형데들아 내가 갑히 알게나와 너희가 인조홍이 그득하고 모든 지식이
 추고 또한 서로 능히 훤호는자로다 ^다못 내가 더욱 담대히 대강 글노써
 너희께 붓쳐서 너희로 괴념 흠은 하느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이나
 내가 이방 사룸에 터호야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가 되고 하느님 복음의
 제스장이 되여 이방 사룸을 밟드려 드림을 성신으로 힘남아 거룩하게
 해야 가히 빛님적 흠께 훈지라 그린고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남아
 하느님의 일을 드랑궁지니와 그리스도여서 나로 말미암아 흠을 것외에는
 내가 감히 말호지 못하고 성신을 힘남아 이적파 죄수의 권능으로 써 말을
 흠여 일을 흠호야 이방 사룸을 슬종케 흠이니 이로 써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

흥엿스니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이 멋음으로 모든 깃불파 평강을 너희께
 충만케 흠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흠시기를 원하노라 ○
 내 형데들아 내가 갑히 알게나와 너희가 인조홍이 그득하고 모든 지식이
 추고 또한 서로 능히 훤호는자로다 ^다못 내가 더욱 담대히 대강 글노써
 너희께 붓쳐서 너희로 괴념 흠은 하느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이나
 내가 이방 사룸에 터호야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가 되고 하느님 복음의
 제스장이 되여 이방 사룸을 밟드려 드림을 성신으로 힘남아 거룩하게
 해야 가히 빛님적 흠께 훈지라 그린고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남아
 하느님의 일을 드랑궁지니와 그리스도여서 나로 말미암아 흠을 것외에는
 내가 감히 말호지 못하고 성신을 힘남아 이적파 죄수의 권능으로 써 말을
 흠여 일을 흠호야 이방 사룸을 슬종케 흠이니 이로 써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

흥엿스니 소망을 주시는 하느님이 멋음으로 모든 깃불파 평강을 너희께
 충만케 흠시고 성신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흠시기를 원하노라 ○
 내 형데들아 내가 갑히 알게나와 너희가 인조홍이 그득하고 모든 지식이
 추고 또한 서로 능히 훤호는자로다 ^다못 내가 더욱 담대히 대강 글노써
 너희께 붓쳐서 너희로 괴념 흠은 하느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심이나
 내가 이방 사룸에 터호야 그리스도 예수의 집사가 되고 하느님 복음의
 제스장이 되여 이방 사룸을 밟드려 드림을 성신으로 힘남아 거룩하게
 해야 가히 빛님적 흠께 훈지라 그린고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힘남아
 하느님의 일을 드랑궁지니와 그리스도여서 나로 말미암아 흠을 것외에는
 내가 감히 말호지 못하고 성신을 힘남아 이적파 죄수의 권능으로 써 말을
 흠여 일을 흠호야 이방 사룸을 슬종케 흠이니 이로 써 내가 예루살렘으로 떠나

로마 십오장

오백팔

三

두루 힝^하야 일누리 곤^신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한게 전^하고 또 내가 힘써 복음을 전^하더니 그리스도의 일^한복을 있는 곳에 전^하라 하지 아니^한은 놈의 터우에 세우자 아니^한라 힘^이로라 다^한못^한괴록^한 바와^고 흐^나 날^년스^티 쥬를^한 전파^한 힘^을 보지 못^한자도^한 장^한 불^을 거^시오 또^한 혼^한 듯^한 치 못^한자도^한

장^한 써^드르리라

三

흐^한 엇^느니^라 ○ 그런^고로 내가 여러 번 너희^께 가^라 흐^나 길^이 막^혔더니 이제는 이^는 디^방에 전^도할^곳이 업^고 또^한 여^러 히^를 너희^께 가^고 십^흔 모^임이 만^한 슨^즉 서^바나^로 갈^때에 반드시 너희^께로 가^리니 브^라건대 그리로 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또^한 혼^한 힘^써 잊^서 내^뜻이 만^족 힘^을 밟^은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냄을 밟^으리^니 이제^는 내가 예^루 살^렘에 가는 거^슨 성^도를 섬^기라^는 거^시라 마^세도^니 아^와 아^가이^아 사^람이^가 깃^버 돈^을 대^여 예^루 살^렘 성^도의 간^난 혼^자를 구^제 흐^엇도^다 너희^가 깃^버 흐^거니^와 너희^는 그^의게 빛^진 것^으 흔^자니^만 일^이 방^사 름^이 너희^의 신령^한 거^슬 힘^써 밟^았스^면 육^신 셈^김에^가 슈^으ing 힘^이 가^하리^라 ○ 그런^고로 내가 이^는 일^을 못^치고 이^는 열^미를

三

붓^처 후^에 너희^께 를^지 나^서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는 너희^께 나^갈 때^에 받^는 시 그리스도^의 둑^터 온^복을^가지^고 갈^출을^아 노^라 ○ 형^데들^아 내가^는 우리^쥬 예수^는 그리스도^와 또^한 성^신의^한 사랑^한 흐^심으로^가 말^미 암^아 너희^를 편^한 노^니 나^로 더^보러 힘^써 나^를 위^하야 하^느 님^써 빌^거 시^이 거^시 니^나로 유^대에^가 죠^니 숀^종 치^아니^는 자^의 배^버 셔^나게^고 흐^시 고^고 내가^는 예^루 살^렘을^위 흐^야 섬^기는 거^슬 모든^성 도^가 밟^음적^한 흐^게 흐^시 고^고 내가^는 님^의 뜻^을 조^차 즐^거 하^느 님^써 서^너희^와 힘^써 쉼^을 업^게 흐^옵 죠^니 흐^라 평^안 힘^을 주^시 는 내가^는 겐^그 래^아 교^회 중^에 집^스 된^우 리^조 미^뢰 를^너희^께 천^거 흐^노니 너희^가 죄^안에^서 영^접 흐^기 를^성 도^의 합^당 흐^바 와^고 치^흐 고^고 또^한 그^가 쓸^일 이^잇 거^든 도^아 줄^지 니^대 개^더 가^일 죽^이 여^러 사^람 을^돕 고^고 또^한 나^를 도^아 주^었 는^니 라 ○ 너희^가 브^리 스^가 와^고 아^고 나^의 계^문 안^한 라^고 그^리 스^도 예수^를 위^하 야^나 와^고 흠^써 쥬^고 흐^고 또^한 내^목 숨^을 위^하 야^나 괴^가 목^버 힐^디 경^을 당^하 었^니 그런^고로^다 만^나 만^샤 례^흘 쌔^아 니^라 이^방 모든^교 회^도

또 혼 그 려흘 거시오 또 그 집에 모친 교회의 개도 문안하고 나의 천Hon 벗
 에 배네도의 개 문안하고 끽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씨 처음 낙은 열린가
 된자나라 마리아의 개 문안하고 너희를 위호야 쥬고를 만하 혼자요 내 천체
 안드로니고 외 유니아의 개 문안하고 또 혼 나로 더 브러 흠씨 갖쳤던자와
 문안하고 이는 죄도의 개 문안하고 너희를 위호야 쥬고를 만하 혼자요 나보다 몬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자라 또 쥐 안에 내 스랑 혼는 암불니아의 개 문안하고 그리스도를
 위호야 우리와 흠씨 쥬고 혼자 우르바노와 나의 스랑 혼는 스다구의 개
 문안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서 단련을 밟은자 아벨네의 개 문안하고
 아리스도불노의 권속의 개 문안하고 내 천체 해로티온의 개 문안하고
 나깃수 친속 중에 주 안에 있는자와 개 문안하고 쥬를 위호야 쥬고 혼자
 드루배나와 드루보사의 개 문안하고 쥬를 위호야 만히 쥬고 혼스랑 혼는
 베시의 개 문안하고 턱호심을 밟아 쥬 안에 있는 루포의 개 문안하고 또 혼
 그 어머니의 개 문안하고 그 어머니는 곳 내 어머니나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파 헤메와 배드로바와 헤마와 더희와 흠씨 있는 형태의 개 문안하고

흠씨 있는 모든 성도의 개 문안하고 너희가 거룩한 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고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다 너희 개 문안하고 나라 ○ 형데들아
 내가 너희를 퀸호노니 너희 비혼 도를 거슬려 서로 틈나개 혼고 것치게
 혼는 사람을 스플피고 또 혼 더희께서 떠나라 대개 이 혼 사람은 우리 쥬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조괴의 비만 섬기니 공교공교 아름다운
 말노 성실흔자의 믿음을 미혹케 흠이라 너희 숲종 혼는 소문이 여러
 무리의 개 들니는지라 그런고로 내가 너희를 인호야 깃버호노니 너희가
 선훌터지 혼롭고 악훈터 미련호기를 원호노라 평강함을 주시는 하느님씨
 속히 사단을 너희 말 아래서 끌어하께 호시리라 ○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개 잇술지이다 ○ 나와 흠씨 쥬고 혼는 터모데와 나의 천체
 누기오와 야손파 소시바더가 너희 개 문안하고 이 편지를 터신 쓰는
 더티오도 쥬를 위호야 너희 개 문안하고 나와 원교회 식쥬인 가이오도
 너희 개 문안하고 성종에 고간 맛흔에 라스도와 형데 구아도도 너희 개

로마 십륙장

오 빅십이

문안하는 나라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든 이의 계
잇슬지여다 아멘 ○ 오적 하느님이 나의 복음과 멋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거슬의지 하야 능히 너희를 견고케 하시는니 넷저 브터 오묘
하신 무시가 쯤 쯤 하셨느니 이제는 나타나샤 선지자의 쓴 바로 말미암아
영성공시는 하느님의 명하신대로 모든 이방사람의 계 멋음을 알게 하야
순복케 하셨느니 홀노 ^{홀노} 지혜계신 하느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영원토록 돌닐지여다 아멘

교회에 바울이 전 편지

고린도 전

하느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손도된 바울이 형데
소스데네로 더보러 고린도에 잇는 하느님의 교회에 편지 하노니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함을 일우고 부르심을 엊어셔 성도가 된자와 멋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함을 부르는자라 그리스도는 너희와 우리
쥬시니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잇슬지여다 ○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느님의 은혜를
인호야 내가 흥상 너희를 위호야 내 하느님께 감사하노니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에 풍족하야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을 얻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호야 종개호 거시 너희 중에 굿개 섯느니 그린즉 너희가 모든 은혜
벗기 를 부족함이 업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득립이라
쥬셔 너희를 나종 ^{나종} 굿개 세우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척망이 업개 하시리라 하느님은 멋브샤 너희를 불너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고린도 전 일장

오백십
冬

그리스도로 더 브러 련속케 호셨느니라
그리스도의 일홈으로 너희를 권호느니다
말며 혼모임파 혼뜻으로 온전히 합호라
나드려 날으되 너희 가온더 분정이 있다
각각 날으되 나는 바울의 채속 혼자요
제바의 채속 혼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채손
여러시 되며 바울이 엊지 너희를 위옹
일홈으로 너희가 세례를 밟았느뇨 하느니
외에는 너희 중에 혼사름도 내가 세례를
너희가 나의 일홈으로 세례를 밟았다
스데바나 집사 봄의 채세례를 주었고
주었는지 아지못호노라 대개 그리스도가
아니오 복음을 전하라 흉심이니지 혼로
십자가가 헛거시 될가 남려 흉금이라 ○
마련호 거시 되고 구원을 엊는 우리 채는
괴롭호 엿스더
내가 지혜 있는 사름의 지혜를 멀호고 총명
흐엿스니 지혜 있는 사름이 어듸 엿스며 선비가
변수가 어듸 있는뇨 하느님 썩셔 어 세상의 지혜를
하는 님의 지혜에 합당호 거순이 세상이
아지못호는 고로 하는 님 썩셔 세상이 미련호다
구원호 시기를 깃벼 호심이로다 유대 사름은 이 져을 구호고
지혜를 차지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를 전호니 유대 사름의 채는
거리세는 거시 되고 이방 사름의 채는 미련호
밧은 사름의 채는 유대 사름이나 헬나 사름이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권능이오 하느님의 지혜니라 대개 하느님의 미련호다 호는 거시 사름보다
지혜있고 하느님의 약호다 호는 거시 사름보다 강호니라 ○ 형데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불지어다 유톤을 의지호야 지혜 있는자가 만치 아니호며

그리스도로 더 브러 련속케 호셨는니라
그리스도의 일홈으로 너희를 권호노니다 형례
말며 혼모임파 혼뜻으로 온전히 합호라 가
나드려 닐으니 너희 가온더 분정이 있다
각각 날으니 나는 바울의 계속호자요 니
케바의 계속호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계속은 아
여려시 되며 바울이 엿지 너희를 위하고자
일홈으로 너희가 세례를 밟았는뇨 하는 십자가에
외에는 너희 중에 혼사람도 내가 세례를 못박혔스며 바울의
너희가 나의 일홈으로 세례를 밟았다 흡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테바나 집사람의 계세례를 주었고 그가 지니 흡은 그리스보와
주었는지 아지못호노라 대개 그리스도가 위에 나함이니 사람이 날으니
아니오 복음을 전호라 호심이니 지혜로우며 혼례를 주었는지 아니
십자가가 헛되사 될가 남려 흡은이라 ○ 삽지를을 내여 세례를 주라 호심이
쓰지 아니 흡은 그리스도의 가 멀망하는 사람의 배는

그리스도로 더 브러 련속케 호셨는니라
그리스도의 일홈으로 너희를 권호노니다 형례
말며 혼모임파 혼뜻으로 온전히 합호라 가
나드려 날으니 너희 가온더 분정이 있다
각각 날으니 나는 바울의 계속호자요 니
케바의 계속호자요 나는 그리스도의 계속은 아
여려시 되며 바울이 엿지 너희를 위하고자
일홈으로 너희가 세례를 밟았는뇨 하는 십자가에
외에는 너희 중에 혼사람도 내가 세례를 못박혔스며 바울의
너희가 나의 일홈으로 세례를 밟았다 흡은 그리스보와 가이오
스테바나 집사람의 계세례를 주었고 그가 지니 흡은 그리스보와
주었는지 아지못호노라 대개 그리스도가 위에 나함이니 사람이 날으니
아니오 복음을 전호라 호심이니 지혜로우며 혼례를 주었는지 아니
십자가가 헛되사 될가 남려 흡은이라 ○ 삽지를을 내여 세례를 주라 호심이
쓰지 아니 흡은 그리스도의 가 멀망하는 사람의 배는

고린도 전 이장

오 빅십륙

능훈자가 만치 아니호며 잘난자가 만치 아니호니 이에 하는님께서 세상의
미련하다 호는 거슬 턱호사 지혜 있는자를 불그립게 헤시고 세상의 약하다
호는 거슬 턱호사 강한 거슬 불그립게 헤시며 또 하는님께서 세상의
천마다 호는 것과 멀시를 밟는 것과 업는 거슬 턱호사 있는 거슬 폐호시니
이는 육례가 진아 모라도 하느님 앞에서 조랑호지 못호게 호심이라 너희가
하는님을 힐남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잇스니 예수는 하느님께서 세우사
우리의 죄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속죄함이 되셨스니 괴록호 바와 굿호니
널넷스터 조랑호는자는 쥬로 써 조랑호라 호셨느니라
형데들아 내가 전에 너희게 나아가 하느님의 오묘호 거슬 전호 때에 말파
지혜의 아름다운 거스로 아니호였느니 대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십자가에 못박힌 것 외에는 다른 거슨 아지아니호기로 작명
하였고 내가 너희 가온터 거할 때에 약호며 두려워호며 심히 썰었노라
내 언론파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흔 말도 호지아니호고 다만 성신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호야 너희 맛음이 사룸의 지혜에 잇지아니호고 다만 하는님의
권능에 잇게 호라하였노라 ○ 그러나 우리가 온제호 사룸 중에서 말호는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죠 이 세상의 업서질 판원의 지혜도
아니라 우리가 하는님의 지혜를 오묘호 리치로 말호노니 곧 네전에 금초았던
지혜인더 하는님이 우리로 헤여 곰영광을 업게 헤시라고 만세 전에 미리
덩호신거시라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판원이 호나도 아지못호였느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죠를 십자가에 못박지 아니호였스리라 괴록호 바와
굿호니 널넷스터

하는님이 조괴의 조랑호시는 사룸을 위호야 예비호신 모든 거슨 능으로
보지못호고 귀로도 듯지못호고 사룸의 민음으로 도성각지못호였더니
오직 하는님이 성신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스니 대개 성신은 모든 거슬
동달호시고 하는님의 길흔거시라도 동달호시느니라 사룸의 조정을 사룸의
속에 있는 신외에는 뉘가 알니오 이와 굿치 하는님의 조정을 하는님의
신외에는 뜨호 아는이가 없느니우리가 받은 신은 이 세상의 전이 아니오
오직 하는님씨로 온 신이니 우리로 헤여 곰하는님씨서 우리의 죄 은혜로

고린도 전 삼장

오백십팔

주신 여러 거슬 알께 흉심이라 ^{우리가 이 거슬 말해 거니와 사룸의 지혜로}
 그르친 말노 혼거시 아니오 성신의 그르친 말씀으로 흠눈 거시니 신령혼
 일은 신령혼 거스로 블허니라 ^혈에 속혼 사룸은 하느님의 신의 일을
 빛지 아니호니 이는 더가도로 혀 ^{마련}히녁임이오 ^도세듯지도 못할지니
 이런 일은 사룸이 성신의 거 감동 허여야 ^{분변}흐느니라 ^{성신의 거} 속혼
 사룸은 모든 거슬 분변 헤것마는 다른 사룸은 더를 분변 헤지못 ^{느니}이라
 누가 쥬의 민음을 알아서 쥬를 그르치겠느냐 그리스도의 민음이 우리의 거
 잇는 나라

형데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해 봄째에 성신에 속혼 사룸의 거 말하는 것 ^곳치
 훌수 업서 써 속육에 속혼 사룸의 거 말하는 것 ^곳치 헤엿 노니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써 어린 ^으희 ^곳흡이라 내가 너희를 젓으로 먹이고 밥으로
 먹이지 아니 헤엿 노니 대개 너희가 전에도 감당치 못 헤엿 거니와 지금도
 감당치 못 헤리라 ^느 너희가 지금도 속육에 속혼자로다 너희 가온티 쇠고와
 분정이 ^잇스나 ^잇지 속육에 속 헤야 ^{세상} 사룸 ^곳치 헹 흠이 아니리오

하나는 말해 봄째 나는 배울의 거 속혼자요 또 하나는 말해 봄째 나는 아불노의 거
 속혼자라 ^하니 너희가 엊지 세상 사룸이 아니리오 ^{아불}노는 무어시며
 바울은 무어시뇨 다 집스들이니 쥬색 써 각각 주신대로 너희를 인도해야
 멋게 혼자라 ^하나는 심으고 아불노는 물을 주되 오직 하느님은 자라나게
 헤셨는니 그원즉 심은은 사룸이나 물 주는 사룸은 관계가 없고 오직 자라나게
 헤시는 하느님 쁜이시니라 ^심은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그 일흔는대로
 조괴의 양은 각각 엇으리니 ^하우리는 하느님과 흠색 일흔는 사룸이 오 너희는
 이에 하느님의 밟치오 하느님의 집이니라 ○ 내가 하느님의 은혜를
 밟은대로 저해로온 장인파 ^곳치 터를 닥가 두매 다른 사룸이 그우에 세우나
 그러나 사룸마다 엇더케 그우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닥가 두면 터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던지 금이나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호로
 이터 우에 세우면 사룸마다 일흔 공력이나 타날터인대 그 날이 공력을
 블허리니 그 날은 불노 써 나타낼 날이라 그 불이 각사룸의 공력이 엇더흔

교린도 전 삼장

오백이십일

거슬 시 험홀지라 ^{十四} 만일 누구던지 그 우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잇스면 상을
 뱗고 ^{十五} 누구던지 공력이 불트면 해를 보리니 오직 주가는 구원을 엇으나
 불노 써 구원 엇은 것 ^{十六} 흐니라 ○ 너희가 하느님의 성년이 된 것과 하느님의
 성신이 너희 안에 거호심을 아지못 ^{十七} 흐느뇨 누구던지 하느님의 성년을
 더럽게 흐면하는 님이 그 사름을 멀 ^{十八} 흐실지라 하느님의 성년은 거루 ^{十九} 흐니
 너희도 ^{二十} 흐흔 그려 ^{二十一} 흐니라 ○ 스스로 속이지 말나 너희 중에 누구던지 이
 제상에서 지혜 있는 흐는 자 어든 미련 ^{二十二} 흐자 가 되여라 그리 ^{二十三} 흐여 야 지혜 있는
 사름이 되리라 대개 이 제상 지혜는 하느님 ^{二十四} 씨 미련 ^{二十五} 흐자 되록 ^{二十六} 흐였스터
 지혜 있는 자로 ^{二十七} 흐여 곰 ^{二十八} 쓰스로 그 씨에 빠지 ^{二十九} 흐시는 쥬라 ^{三十} 흐며 ^{三十一} 흐흔스터
 쥬 ^{三十二} 흐셔 지혜 있는 자의 성각을 헛 ^{三十三} 흐스로 알 ^{三十四} 흐신다 ^{三十五} 흐션 ^{三十六} 흐니라 그린즉
 누구던지 사름으로 써 ^{三十七} 흐랑 ^{三十八} 흐지 말나 ^{三十九} 흐물이 다 너희 ^{四十} 흐시나 ^{四十一} 흐울이나
 아불노나 ^{四十二} 흐나 케 ^{四十三} 흐바나 셰 ^{四十四} 흐나 성명이나 ^{四十五} 흐망이나 ^{四十六} 흐지금 ^{四十七} 흐거시나 ^{四十八} 흐장령 ^{四十九} 흐거시나 ^{五十} 흐다
 너희의 씨 속 ^{五十一} 흐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씨 속 ^{五十二} 흐고 그리스도는 하느님 ^{五十三} 흐
 속 ^{五十四} 흐션 ^{五十五} 흐니라

사름이 맛당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군이오 하느님의 오묘한 도를 맛흔자로
 녁 일지어다 ^{五十六} 흐흔 맛흔 사름의 씨 구휼 거순 충성이나라 ^{五十七} 내가 너희 씨나
 세상 사름의 씨나 론단 밟는 거슬 미우적은 일노 ^{五十八} 녁 일뿐더러 나도 나를
 론단치 아니 ^{五十九} 흐노니 내가 조칙홀 거슬 셔듯지못 ^{六十} 흐나 그러나 이를 인후야
 의롭다 흐울 엇지못 ^{六十一} 흐노라 다만 나를 론단 ^{六十二} 흐실이는 쥬시나라 ^{六十三} 그린고로
 째가 ^{六十四} 흐나르기 전에는 아모 일도 론단치 말고 쥬 ^{六十五} 씨 ^{六十六} 청천을 밟으리라 ○ 형데들아 내가 너희를
 더가 어두은 터 ^{六十七} 흐초인 거슬 빛최고 ^{六十八} 모음의 뜻을 드려내시리니 그째에
 각 사름이 반드시 ^{六十九} 흐는 님 ^{七十} 흐 칭찬을 밟으리라 ○ 형데들아 내가 너희를
 위호야 이 일노 써 나와 아불노를 가지고 본을 삼아 너희로 ^{七十一} 흐여 곰 ^{七十二} 흐록 ^{七十三} 흐^{七十四}
 말숨 ^{七十五} 흐박 ^{七十六} 흐남여 가지 말나 흐 거슬 비화 각각 편당을 지여 교만호 ^{七十七} 모음을
 먹지 말 ^{七十八} 흐노라 누가 너를 ^{七十九} 흐보다 낫 ^{八十} 흐엿느뇨 네 씨 있는 것 중에
 뮤어서 ^{八十一} 흐박지 아니 ^{八十二} 흐거시뇨 내가 임의 ^{八十三} 흐았스즉 엊자호야 ^{八十四} 흐박지 아니 ^{八十五} 흐
 웃치 ^{八十六} 흐랑 ^{八十七} 흐는 뉴 너희가 임의 ^{八十八} 흐부르며 ^{八十九} 흐임의 ^{九十} 흐부요 ^{九十一} 흐며 우리 ^{九十二} 흐업시 ^{九十三} 흐왕이
 되엿도다 너희가 촘으로 왕이 되여 우리로 ^{九十四} 흐여 곰 너희와 흠씨 왕이 되게

교린도 전 소장

오백이십이

죽기를 원호노라 내 성각전대 하느님이 스도된 우리를 미말에 두시고
 죽이기로 작명한 사람 고치 호셨스매 우리는 세계와 렌스와 사람의 배
 구경거리가 되엿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교로 미련호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호되 너희는 강호고 너희는 존귀호되 우리는
 비천호야 이 때서지 우리가 주리고 목모르며 헐벗고 먹를 마지며 잇슬
 곳도 업고 또 슈고호야 천히 손으로 일을 헤며 후욕을 당호즉 츄슈호고
 펫박을 당호즉 촘고 훼방을 당호즉 착함으로 권호니 우리가 지금서지
 세상의 더러온 것과 만물의 써흐니라 ○ 내가 너희를 붓그립제호랴고
 이러케 쓰는거시아니라 이에 너희를 내스랑호는 조녀고치알고 권호노니
 너희가 그리스도를 맷는 일에 스승은 일만이로되 아비는 만치아니하니
 대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현합호야 복음으로 써 너희를 나찾노라
 그런교로 내가 너희네 고구호노니 너희는 나를 본발으라 이를 인호야
 내가 되모데를 너희네 보내엿노니 곳쥬를 맷는 일에 내 귀호고 신실호
 아들이라 내가 너희로 후여 곰내가 그리스도를 맷고 힝흔 일을 괴역호제

나아가자아니호줄노 쫓호교 스스로 교만호자가잇스나 그려나쥬색져
 허락호시면 내가 너희게속하나아가셔교만호자의말을 알아볼거시아니라
 그 권능을 알아보겟노라 대개 하느님의 나라는 말에 잇지아니호고 오직
 나아가랴 스랑파 온유호 모임으로 나아가랴
 너희중에 심지어 음횡이 잇다 흠을 들때 이런 음횡은 이방사람 중에라도
 업는나었던 사람이 그 계모를 쥐호엿도다 오히려 너희가 스스로 교만호야

동흔하녀이지아니호고 그 일 횡흔자를 너희 중에서 물나치지아니호엿는니
 내가 실노몸으로는 너희의 게잇지아니하나 모임으로는 잇서서 너희와 흠색
 잇는것고치 이 일 횡흔자를 임의 판단호엿노라 너희가우리쥬 예수의
 의학호야 이런사를 사단의 게내여 주기로 흠엿스니 이는 정욕을 멀호고
 그 신을 쥬 예수의 날에 구원 업케 흠랴함이라 너희의 조공호는 거시

을 치 아니 흐도 다 엇지 적은 누룩이 온 명어리에 펴지는 거슬 아지 못 흐는 나
너희가 누룩 업는 것 곳 흥 애 흘터 아니 묵은 누룩을 더러 보리고 새 명어리가
되여 라우리의 유월절 양을 임의 죽여 제스 드렸스니 그 양은 곳 그리 슬로시니라
이 럼 으로 우리 가 절괴를 직히 되 뮤은 누룩도 말고 괴악 흥 고 악독 흔 누룩도
말고 오직 누룩 업는 떡파고 치지 성과 진실함으로 흐사이다 ○ 내가 일즉이
너희께 편지 흥 애 음횡 흐는 자를 스 괴지 말나 흥 엿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횡 흐는 자와 탐홍는 자와 토식 흐는 자와 우상 섬기는 자를 돌로 지 스 괴지 말나
흐는 거시 아니라 만일 그리 흥 랴면 세상 밋그로 나가야 흘 거시라 이제
내가 너희께 편지 흥 애 만일 형데라 널 갖고는 자가 혹 음횡 흐거나 탐람 흐거나
우상의 게 절 흐거나 후육 흐거나 술 취 흐거나 토식 흐는 자여 든 스 괴지도
말고 그런 자로 더 브려 먹지도 말나 흘 노라 대개 외인들을 판단 흐는 터
내게 무숨 상관이 잇스리 오마는 교종 사를들이 야 너희가 판단치 아니 흥 랴
외인들은 하느님이 심판 흐시려 니와 다만 이 악한 사를은 맛당히 너희

송수 흥 고 엊지 성도 암해 서 흐지 아니 흥 누나 성도 가 세상을 심판 흐
너희가 아지 못 흐는 나 세상도 너희께 심판을 밋겟거든 지금 희 적은 일
심판 흐기를 감당 치 못 흐겟는 나 우리 가 텐스를 심판 흐 거슬 너희가
아지 못 흐는 나 그 러 흐거든 흐를며 세상 일이라 그런즉 너희가 이 세상에
심판 흐 일 이 잇슬 땐에 교회 중 상관 업는 자를 세워 엊지 심판 흐
흐는 나 내가 너희를 봇그럽게 흥 랴 흥 애 이 말을 흘 노니 너희 가온 터
그 형데 간 일을 판단 흐 만호 지해 있는 자가 흐나 도업는 나 형데 가 형데로
더 브려 송수 흐 쫀더 러 더 곤다나 및지 아니 흐는 자 암해 흐는 나 너희 가 피
송스 흐 으로 너희 가온 터 완연 흐 해물이 잇는 나 엊지 흥 애 도로 혀 해를
맞지 아니 흐는 나 엊지 흥 애 도로 혀 속지 아니 흥 누나 너희 가 불의를 흥 흐고
속이는 고나 뜨흔 더는 너희 형데로다 불의 혼자가 하느님 나라를 엊지 못
흘출을 아지 못 흐는 나 속지 말나 무릇 음란 흐는 자나 우상 섬기는 자나
간음 흐는 자나 탐석 흐는 자나 남석 흐는 자나 도적이나 탐람 흐는 자나 술에

고린도 전 류장

오 빛 이십 철

양취하는자나 욕하는자나 토석하는자는 하느님 나라를 엿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자가 있더니 쥬예수 그리스도의 일홍파 우리 하느님의
 신을 입는다. 씨름과 거루홍파 올홍을 엿보니라 ○ 모든 거시내가 가하나
 다 유익한 거시 아니오 모든 거시 내게 가하나 내가 호나의 결제도
 뱗자 아니호리라 식물은 비를 위호야 잇고 비는 식물을 위호야 잇지안코 쥬를
 하느님이 이것 더것 다 폐호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호야 잇지안코 쥬를
 위호야 잇스며 쥬는 몸을 위호야 거시나라 하느님이 임의 쥬를 살나섯고
 또 혼그 원능으로 우리를 살나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자례인줄을
 아지못호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자례를 가지고 창기의 자례를 만들겠느냐
 결단코 아니라 창기와 합하는자는 더와 혼 몸인줄을 아지못호느냐 날냈스티
 둘이 혼 육례가 된다. 혼 쥬와 합하는자는 혼신을 일우니라 음횡을
 피호라 사룸이 무숨 죄를 범호던지 다 몸 뱃배 잇거니와 음횡하는자는
 드괴 몸의 죄를 범호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느님께로 브터 뱃은
 바너희 가온데 계신 성신의 면인줄을 아지못호느냐 너희는 너희는
 너희가 내게 편지호야 혼 말을 의론호건대 사나희가 녀인을 갓가히
 아니호이 토끼는 호나 오직 음횡이 혼홍으로 사나희마다 드괴 안희를
 두고 너인마다 또 혼 드괴 남편을 두라 호노니 남편은 그 안희의 죄 줄거슬
 슈옹호고 안희도 또 혼그 남편이 쥬장호며 남편도 또 혼이와 고치 그 몸을 스스로
 쥬장호지못호고 오직 그 남편이 쥬장호니 남편도 또 혼이와 고치 그 몸을 스스로
 혹 모임을 고치호야 드괴도 혼 름 엉기를 위호야 얼마 동안 분방하고 다시
 합호야 사단이 너희의 정욕을 스스로 금치못홍을 드셔 시험호지못호게
 혼라 그러나 나의 이 말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내가 사룸이다 나와
 뱃기를 원호노라 그려호되 사룸이 하느님께 은혜를 받은 거시 각각 다르니
 혼나는 이러호고 혼나는 더러호니라 ○ 내가 혼인호지 아니호자와 및
 파부의 채 달도니 나와 고치 그냥 지내는 거시 토호니라 만일 스스로

금치 못 놓겠거든 혼인을 지어다 그 정육이 불그치니 러나는 것보다 혼인에는
 거시 나으니라 ^{임의} 혼인을 자의에 내가 명호나 나의 명령이 아니오 죄의
 명령이시니 너인은 남편을 떠나지 말고 만일 떠날지라도 그냥 지내거나
 그러치 아니하면 다시 그 남편과 화합호라 남편도 또한 안히를 보리지 말나
 그 놈은 사룸의 채 님 ⁰은 거슨 죄의 명령이 아니오 나의 말이니 만일
 형데의 채 및지 아니하는 안히가 잇서 남편과 혼가지로 살기를 도화호거든
 보리지 말며 ⁰너인의 채 및지 아니하는 남편이 잇서 너인과 혼가지로 살기를
 도화호거든 그 남편을 보리지 말나 및지 아니하는 남편이 안히로 인호야
 거룩함이 되고 또 및지 아니하는 안히가 남편으로 인호야 거룩함이 되느니
 그러치 아니하면 너희 조녀도 짹긋지 못 흥려니와 이제는 거룩호니라 ⁰혹
 멋지 아니하는 자가 떠나게 호라 형데나 조미나 이런 일에 얹민
 거서 업스나 하느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서로 화평호게 호심이라 ⁰안히
 된자여 네 남편을 구원할년지 못 흥할년지 엊지 알며 남편 된자여 네 안히를
 구원할년지 못 흥할년지 엊지 아느냐 그러나 주께서 각 사룸의 채
 눈화

주신대로 힝호하며 하느님이 각 사룸을 부르실 때에 그 본분대로 힝호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그치 명호 노라 ^{임의} 할례를 밟고 부르심을 밟은
 사룸이 있는 나 곳 할례를 폐치 말며 할례를 밟지 아니하고 부르심을 밟은
 사룸이 있는 나 곳 할례를 밟지 말나 할례 밟는 것도 관례가 업고 할례
 밟지 아니하는 것도 관례가 업스되 오직 하느님의 계명을 직힐 셈들이니라
 각 사룸이 부르심을 밟을 때에 그 있는 처터대로 지낼지이다 부르심을 밟을
 때에 네가 종아 되엿더니 넘려 호지마라 혹 노힐수가 잇서도 그대로 지내라
 사룸이 죄를 힘남어 부르심을 밟을 때에 종이라도 죄색는 노힌자요 ⁰또
 이와 그치 미안티 업시 부르심을 밟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갑스로 사신 거시니 사룸의 종이 되지 말지이다 형데들아 각 사룸이 부르심을
 밟을 때에 그 잇던 쳐디대로 지내여 하느님을 갖가히 호라 ○ 동정녀를
 의론호간대 내가 죄색 밟은 계명이 업스되 ^{임의} 죄의 은혜를 밟아서
 총의 있는 사룸이 되여 내 의견으로 너희께 고호노니 ⁰내 성각에는 립박호
 환난을 인호야 사룸이 그냥 지내는 거시 퉁호니라 안히가 있는 나 떠나기를

고린도 전 칠장

오백삼십일

구호지 말며 안희가 업느냐 안희를 구호지 말나 그러나 장가가 도죄를 범함이 아니오 동정녀가 쇠집가도 뜨호죄를 범함이 아니로 되이련 사람은 육신의

고난을 밟으리니 나는 너희를 앗기노라 형데들아 내가 이 말을 호노니
는 때가 얼마 되지 못하고로 안희 있는자는 맛당히 안희 업는 것 고치

하며 우는자는 울지 안는 것 고치 호며 깃본자는 깃보지 안는 것 고치 호며

무어술 사는자는 업는 것 고치 호며 세상 물건을 쓰는자는 파도히 쓰지 마라

안희 업는자는 쥬의 일을 넘려 호야 업지 호여 야 안희를 깃보게

오직 안희 업는자는 세상 일을 넘려 호야 업지 호여 야 안희를 깃보게

흘고 호며 부녀와 동정녀가 분간이 업는니 남편이 업는자는 쥬의 일을

넘려 호야 몸과 신을 다 거룩 호게 호랴 호되 남편이 업는자는 세상 일을

넘려 호야 업지 호여 야 남편을 깃브게 호고 호느니라 내가 이 말호 거순

너희를 유익 호게 호랴 함이 오 억미 랴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호여 꼼리치에

합하게 호야 분요 흄미 업시 쥬를 썸가게 호랴 함이라 사람이 만일 동정녀

자리를 더 호야 그미 헹 호는 일이 리처에 합당치 못한 줄노 싱각할 때에 파년도

지나고 죽 마자 못할 일이 잊거든 모음대로 호라 이 거순 죄가 아니니

혼인호게 흄지어다 그러나 사람이 후 그 모음을 굿게 호고 또 마자 못할

일도 업고 또 조괴가 모음대로 흄수 잊어서서 그 동정녀 뜰을 머물너 두기로

모임에 작명호여도 뜻하니 그런고로 동정녀 뜰을 쇠집보내는자도 잘공거니와

스집보내지 아니하는자가 더 잘하는거시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거시 더욱

미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조죽호야 뜻대로 쇠집보내는자도 잘공거니와

오직 죠민는자의 배갈거시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거시 더욱

복이 되리나 나도 또한 하느님의 신을 밟은줄노 싱각호노라

우상의 제물을 의론호건대 우리가 다

교만호게 호고 스랑은 덕을 세우느니 만일 누구던지 스스로 무어술

아는줄노 싱각하면 아직도 맞당히 아는법대로 아지못하는 거시 오오직

누구던지 하느님을 스랑호면 이 사람은 하느님이 아시는자니라 그런고로

우상의 제물 먹는거슬의론호건대 우리가 우상이 세상에 아모 것도 아닌줄

고린도 전 팔장

오백삼십삼

알고 또 혼 하느님 흉나 빛게 위홀신이 업는줄 아는지라. 비록 하늘에나
싸애나 신이라 칭호는자가 있서 신도만코 쥬도만호나 그러나 우리개는
흔하느님이 계시니 곳아바지라 말물의 근본이시오 우리가 그를 위호야
잇스며 뜨호호 쥐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말물이 그로 말미암아 잇고
우리도 뜨호 있는나라 그러나 사람마다 이지식이 잇지못호야 엇던
사람은 지금 선지 우상섬기던거시 버릇시 되여 우상의 제물도 알고 먹으니
량심이 약호야 더러워지는나라 음식은 우리를하는님 압해세우지못호니
우리가 먹지 아니호여도 부족함이 업고 먹어도 풍성함이 업스리라 맛당히
조심호야 너희 조유함이 약호 사람의 개 것치는 거시 될가 두려워호라
지식잇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안져먹는 거슬 누구던지 보면 그 약호 사람의
량심이 권함을 밟아 엊지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아니호겠는나 그려면 네
지식 선들에 그 약호자가 멀망호니 그 형데는 그리스도가 위호야 죽으신
형데라 이 조치 너희가 죄를 형데의 개 엊어 그 약호 량심을 상호게호는
거시 곳 그리스도의 죄를 엊는 거시나라 그 걸고로 만일 음식이 내

형데를 범죄치안케 흠리라

내가 조유호지 아니호는나 스도가 아니냐 우리 쥬예수를 보지못호 엇는나
내가 쥬를 힘남어 흥호 일이 너희가 아니냐 혹 다른 사람의 개는 내가
스도가 아닐지라도 너희개는 스도니 나의 스도됨을 인천 거시 쥬안에
잇는 너희들이라 나를 헐둔호는 사람의 개 발명흘 거시 이 거시나우리가
엇지 먹고 마시는 원이 업겟는나 다른 스도와 쥬의 형데와 채바와 켓치
공포된 안희를 다리고 흥호원이 업겟는나 엊지 나와 바나바 만일ong지아니흘
권이 업겟는나 누가 조비량호교 병역을 든니겟는나 누가 포도를 심으고
그 실패를 먹지 안겟는나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무리의 젖을 먹지 안겟는나
내가 엊지 사람의 풍속대로 이 거슬 말호는나 뜨호 률법이 이 거슬
말호지 아니호는나 대개 모세 률법에 괴록호 엇스티 곡식을 뿜아 뼈는 소의
입에 망을 씨우지 말나 흥션스니 하느님 씨서 엊지 소를 위호야 넘려호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호야 말숨호심이 아니냐 진실로 우리를 위호야 괴록호 엇스니

고령도 전구장

오백삼십서

뱃가는자는 봉라는 모음으로 말며 곡식 쪘는자는 흠띠 엇기를 봉라고
 써는나라 우리나라가 너희에게 신령호 일을 벼운즉 너희 육신의 물건을 거두기로
 엇지파하다 헛겟느냐 다른 사람도 너희에게 이런 권을 잡았거든 헛물을며
 우리 일사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을 쓰지아니하고 범스를 씀는 거슨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히지 안케 흠이로라 성당의 일을 헛는 사람은 성당으로
 말미암아 먹으며 제단을 뵐시는 사람은 제단과는 호는 거슬 나희가
 아지못하느냐 이와 웃치 쥬씨셔 명호시기를 복음 전하는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이라 헛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홀번도 이 권을 쓰지아니하고
 또 이 말을 쓰는 거슨 나를 이 웃치 터점하라는 거시아니라 대개 내가
 출하리 죽을지언정 늘이 내 드랑홀거시업슴은 내가 아니할수업스니 만일
 내가 복음을 전홀지라도 드랑홀거시업슴은 내가 아니할수업스니 만일
 전호지아니 헛면 내게화가 멋치리라 내가 내임의로 이거슬 헛면 상을
 엇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호여도 내게 맞긴 직분은 잇스니 그런즉 내상
 뱃을 거시 무어서나 내가 복음을 전홀 때에 잡업시 전호는 거슨 복음으로
언호 애개 잇는 권을 다 쓰지아니 흠이로라 비록 내가 모든 사람의
 조유 헛였스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께 종이 된 거슨 더 많히 엇고저흐름이라
 유대인의께는 내가 유대인파 웃치된 거슨 유대인을 엇고저흐름이오 률법
 아래 잇는자의께는 내가 률법 아래 엇지아니호나 률법 아래 잇는 것 웃치
 된 거슨 률법 아래 잇는자를 엇고저흐름이나 그려나 내가 하는 님띠는
 률법 업는 거시 아니오 그리스도 씨 률법 아래 잇노라 약호자와의께는 내가
 약호자와 웃치된 거슨 약호자를 엇고저흐름이오 여러 사람의께는 내가 여려
 모양으로 일운 거슨 아모토록 멋멸 사람을 구원코 저흐름이나 내가 복음을
 위호야 모든 일을 힝호 기는 흠가지로 참예호야 은혜를 밟고저흐름이라
 다람박질하는 마당에셔 다라나는자가 다다라날지라도 상엇는자가 다만
 흐나 쟁인줄을 너희가 아지못하느냐 너희도 엇기를 위호야 이와 웃치
 다라나라 이 괴기를 다로는자마다 모든 일에 존절히 헛느니 너희들은
 씩을 면류관을 엊고져 헛되 오직 우리는 씩지아니 할 면류관을 엊고져 헛노라

그림으로 내가 다람박질 허기를 향방 업는 것 끼치 아니하고 내가 싸호기를
 허공을 치는 것 끼치 아니하야 내가 내 몸을 쳐복종 허게 흠은 내가 늄의 제
 전파 혼 후에 드리가 도로 허 브팀이 될가 두려워 허 노라
 형데들 아 니희가 아지못 허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잇고 바다 가온터로 지나며 그 구름파 바다에서 다 세례를
 빛고 모세의 배 속 혼야 다 그 혼 신령 혼 량식을 먹고 다 그 혼 신령 혼 물을
 마셨스니 이 거순 너희를 썩르는 신령 혼 반석으로 브터 마셨스매 그 반석은
 곳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너희 중에 만흔 무리를 하는 남아 깃버 허자 아니
 허시기로 광야에서 멀호 엿느니라 그런 일이 우리의 거울이 되여 우리로
 허여 곰 덕희가 악호 거슬 즐겨 흔는 것 끼치 악호 거슬 즐겨 허자 말게 흠이니
 더희 중에 엇던 사를파 끄치 너희가 우상 섬기는 자가 되지 말나 괴롭 허 엿스터
 빅성이 안져서 먹고 마시며 니려나서 뛰는다 허 엿느니라 또 더희 중에
 엇던 자가 간음 허다가 허로 몽안에 이만 삼천명이 죽었느니우리는 너희와
 끄치 간음 허자 말여 또 너희 중에 엇던 자가 죠를 시험 허다가 비암의 배

멀망 허 엿느니 우리는 너희와 끄치 죠를 시험 허니지 말자 또 너희 중에
 엇던 자가 원망 허다가 멀망 석히는 자의 배 멀망 허 엿느니 너희는 너희와 끄치
 원망 허지 말나 더희에 당호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괴록 허거순 말제를
 맛난 우리를 경계 허 랴 흠이니라 그런즉 스스로 섯다 흔는자는 너머 절가
 조심 허라 사를이 감당 허 시험 밟에는 너희에 당호 거시 업는 나 오직 하느님은
 멋브샤 너희가 감당 치 못할 시험을 당호지 안케 허시고 시험 당호 조음에
 끄호 허피 허길을 내샤 너희로 허여 곰 능히 감당 허 배 허시리라 ○ 그런즉 내
 스랑 허는 자들아 우상 섬기기를 피 허라 내가 너희들이 지혜잇는 사를으로
 알고 말호 노니 너희가 내 님은 말을 판단 허라 우리가 춚샤 허는 바
 층은 그리스도의 몸을 허 가지로 참예 흠이 아니냐 락이 허 뎅이니 우리
 만흔자가 허 몸이 됨은 우리가 다 허 층을 끄치는 흠이라 육신으로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자가 제단과 끄치 참예 허는 거사 아니냐
 그런즉 내 님은 말이 무어시냐 우상의 제물이 무어시라 허며 우상이

교린도 전집장

오백삼십팔

무어시라^으리오 이에 날^으노니 이방 사론의 제스^으는 거손 샤귀의 제스^으힘이오 하느님^으제스^으힘이 아니니 너희가 샤귀와 흠^으썩 참예^으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으노라 너희가 가히 쥬의 잔파 샤귀의 잔을 겸^으하야 마시지^으못^으놓고 쥬의 상파 샤귀의상을 겸^으하야 참예^으치 못^으흘리라 우리가 쥬의 노여워^으하심을 겸^으동^으겟^으느냐 우리가 쥬보다 강^으하나 ○ 모든 거시가^으하나 모든 거시 유익^으호거시 아니 오 모든 거시가^으하나 모든 거시 덕을 세우는 거시 아니니 조괴의 유익을 구^으치 말고^으님의 유익을 구^으하라 무릇 져^으져^으여^으셔 파는 거손 량심을 위^으하야^으못^으지 말고 먹^으라 대개^으싸와 그 가온^으되^으득^으흔 거시 쥬의 거시니라 멋지 아니^으하는 사론이 너희를 청^으하매 너희가 가고^으져^으거든 너희 암해 무어시던^으지^으려 노흔 거손 량심을 위^으하야^으못^으지 말로 먹^으라 혹이 너희 드려 말^으흔^으기를 이거시 제물이라^으하거든 꽁^으는 자와^으밋^으량심을 위^으하야^으먹^으지 말자니 내가 말^으흔^으량심은 조괴의 량심이 아니^으오^으님의 량심이니 엇지^으하야^으님의 량심이 내^으주^으하는 거슬 허물^으리오 만일 내가^으감^으샤^으힘으로 참예^으하면 엇지^으하야^으내^으가^으감^으샤^으하다^으하는 물건으로 훼방을 밟^으리오 그^으린^으즉^으 너희가 유대^으사^으름^으의^으께^으나^으 헬^으나^으 사^으름^으의^으께^으나^으 하느^으님^으의 교^으회^으에^으나^으 너희^으가^으 흠^으업^으시 힝^으하라 나^으와^으곳^으처 모든 일에^으못^으사^으름^으의^으모^으임^으을^으깃^으브^으게^으하야^으조^으괴^으의^으유^으익^으을 구^으치 아니^으하고^으여^으러^으사^으름^으의^으유^으익^으을^으구^으하야^으더^으회^으로^으흐^으여^으품^으구^으원^으을^으엇^으게^으하라 내가^으그리^으스^으도^으를^으본^으벗^으는^으것^으로^으치^으너^으희^으는^으나^으를^으본^으벗^으으^라 ○ 너희^으가^으모^으든^으일^으에 나^으를^으괴^으념^으하^으고^으도^으유^으전^으죽^으야^으온^으말^으을^으내^으가^으너^으희^으가^으전^으흔^으대로^으직^으히^으기^으에^으너^으희^으를^으청^으찬^으하^으노^으라 너희^으가^으알^으기^으를^으원^으하^으노^으니 각^으사^으나^으희^으의^으머^으리^으는^으사^으나^으희^으오^으그리^으스^으도^으의^으머^으리^으는^으하^으느^으님^으이^으시^으라^으무^으릇^으사^으나^으희^으가^으머^으리^으에^으무^으어^으슬^으쓰^으고^으괴^으도^으나^으혹^으예^으언^으을^으하^으면^으 그^으머^으리를^으욕^으되^으게^으하^으는^으거^으시^으니^으이^으는^으머^으리^으싹^으근^으것^으과^으다^으름^으이^으업^으느^으나^으라^으만^으일^으녀^으인^으이^으머^으리^으에^으무^으어^으슬^으쓰^으지^으안^으커^으든^으싹^으글^으거^으시^으오^으만^으일^으싹^으거^으나^으미^으는^으거^으시^으녀^으인^으의^으께^으불^으그^으러^으옴^으이 되^으거^으든^으무^으어^으슬^으쓰^으지^으나^으라^으사^으나^으희^으는^으하^으느^으님^으의^으형^으상^으파^으영^으광^으이^으니^으그^으머^으리^으에^으맞^으당^으히^으무^으어^으슬^으쓰^으지^으안^으커^으나^으와^으녀^으인^으은^으사^으나^으희^으의^으영^으광^으이^으니^으그^으머^으리^으에^으 九三五

교린도 전십일장

오백수십

녀인의 채서 난 거시 아니오 녀인이 사나희의 채서 낫스며 또 사나희는
 녀인을 위호야 지으신 거시 아니오 녀인은 사나희를 위호야 지으신 거시니
 이련교로 녀인은 련스들을 인호야 퀸제 아래 잇는 표를 그 머리에 쓸지니라
 그러나 쥬안에는 사나희 뿐이고 녀인이 업는 거시 아니오 녀인 뿐이고
 사나희가 업는 거시 아니라 녀인이 사나희의 채서 난 것 끝치 사나희도
 녀인의 채로 낫스나 오직 모든 거시 하느님의 채서 낫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성각호야 보라 녀인이 머리에 쓰지 안고 하느님께 고도호는 거시 맞당
 헛겟느니 사나희가 만일 긴 머리가 잇스면 드괴께 그 욕 되는 거슬본
 성품이 너희를 그르치지 아니호느니 만일 녀인이 긴 머리가 잇스면 드괴께
 영광이 되느니 대개 긴 머리를 주심은 쓰는 거슬티신 힘이라 변통동라는자가
 잊슬지라도 우리의 채나 하느님 교회에는 이련 규례가 업느니라 ○ 내가
 명호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호지 아니함은 너희가 모혀 유익함을 엊지못종교
 도로 혀 해를 밟음이라 첫째 너희가 교회에 모힐 때에 너희 중에서 서로
 분정하는 일이 잇다 함을 듯고 대강 멋노니 너희 중에 평당이 잇서 야 울흔
 사람들�이 너희 중에 나라나리라 그련즉 너희가 호 곳에 모혀도 쥬의
 만찬을 먹을 수 업스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조괴의 만찬을 몽져 갖다
 먹음으로 엇던이는 시장호고 엇던이는 취호느니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업느니 너희가 하느님의 교회를 업수히 녕이고 빙궁호자로 불그립게 호느니
 내가 무숨 말을 호라이 거스로 너희를 칭찬호라 칭찬호지안 노라 내가
 너희 채 전호 거순 쥬씨 밧앗노니 곳 쥬 예수씨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샤 축샤호시고 떡여 끝으 샤티 이 거순 너희를 위호는 내 몸이니 이
 거슬팅호야 나를 괴념호라 호시고 식후에 끅호 이와 콧처 잔을 가지시고
 굴으 샤티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언약이니 이 거슬팅호야 마실 때마다
 나를 괴념호라 호셋스니 대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쥬의 죽으심을 오실때 서지전호는 거시니 그런 꿈 누구던지 쥬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안케 먹는자는 쥬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잇느니라 사름이
 스스로 슬피고 그 후에 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쥬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자는 곳죄를 먹고 마시는 거시니라 이련교로

고린도 전십이장

오백스십삼

너희 중에 약혼자와 봉든자가 만코 잠자는자도 져지 아니하니 우리가 스스로 스펫스면 심판을 밟지 아니하려니와 심판을 밟는 거슨 죄 죄서 우리를 징계하심이니 이는 우리가 세상과 흠색 죄 명함을 밟지 안케 하랴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데들아 모혀 먹을 때에 서로 기드리라 만일 시장혼자가 있거든 제 집에서 먹을지니 그리 하여 야 너희가 모힘으로 죄를 밟지 아니하리라 그 님은 거슨 내가 언제던지 갈 때에 귀정하리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사람 되었을 때에 벙어리 끽흔 우상의 죄로 물녀가셔 그 쇠는대로 물녀 갖는나라 그런교로 내가 너희게 알게 하노니 하느님의 신에 갈통하고는 예수를 져주홀자라 하는이가 업고 또 성신에 갈통치안코는 예수를 쥬시라 하는이가 업는나라 ○ 은혜 주시는 거슨 각각 다르나 신은 끽하고 직척은 각각 다르나 쥬는 끽하며 또 힝하는 거슨 각각 다르나 모든 일을 뭇사람 가온데 힝하는 하나님은 끽하시니 각사람의 죄 성신 나 태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업던이의 죄는 성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주시고 업던이의 죄는 끽흔 성신으로 말름을 쓰라 지식 있는 끽흔 성신으로 병곳치는 은혜를 주시고 업던이의 죄는 업던이의 죄는 업던이의 죄는 예언음을 주시고 업던이의 죄는 험능 힝함을 주시고 업던이의 죄는 각 방언 말름을 주시고 업던이의 죄는 방언 번역음을 주시고 주시는나라 ○ 몸은 끽나인디 만흔 지데가 있고 몸에 여러 지데가 만흔 사림이나 종이나 조유하는자나 다 흔성신으로 세례를 밟아 흔몸이 되고 흔몸 쁘이라 그리스도도 또한 그려하니 우리들이 유대사림이나 헬나도 다 흔성신을 마시개 흔션느니라 몸은 흔지데분 아니오 여러 지데니 사림이나 종이나 조유하는자나 다 흔성신으로 세례를 밟아 흔몸이 되고 만일 발이 날으ти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봇지 아니하엿다 흔면 이럼으로 몸에 봇지 아니하엿다 흔면 이럼으로 몸에 봇지 아니하엿다 흔면 이럼으로 눈이면 업더케 드르며 윈 품이 귀면 업더케 내암새를 맞흐리오 이제

고린도 전십이장

오백십집

하느님이 그 소원대로 지례를 각각 몸에 두셨스니 ^{만일} _나 ^다 혼지례뿐이면
 몸이 어디 잇스리오 이제 지례는 만흐나 몸은 흐나이라 ^{눈이} _나 손드려 내가
 너를 쓸터 업다 ^날 _나 지못하고 뜨흔 머리가 말드려 내가 너를 쓸터 업다
 흥지못흐리라 ^아 _나 ^분 아니라 몸에 지례 중 더 약흐바 보이 눈자가 도로 혀
 더 요간하고 몸 ^나 가온티 우리가 덜 귀히녁이 눈자를 더욱 귀흔 거스로
 납혀주니 우리 아름답지못한 지례는 더욱 아름다온 거슬 엇고 우리
 아름다온 지례는 부족한 거시 업스니 오직 하느님이 몸을 고로께 혀야
 부족한자의게 귀호거슬더 주샤 몸 ^나 가온티서 분정함이 업고 여러 지례가
 서로 끽치 넘려 혀야 도라보배 혼섯스니 ^{만일} _나 혼지례가 고난을 밟으면
 모든 지례도 흠색 ^나 고난을 밟고 혼지례가 영화를 엉으면 모든 지례도 흠색
 즐거워하느니 ^나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오 쪘 각각 그 지례라 하느님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세우셨스니 첫재는 스도요 둘재는 선지자요 셋재는
 교수요 그 다음은 권능이오 그 다음은 병 곳치는 은혜와 구제하는 것과
 다수리는 것과 각 방언을 말하는 거시나 ^나 엇지 다수도겟느니 _나 다 선지자겟느니
 다교스겟느니 _나 다 권능을 힘 ^나 _나 ^나 병을 곳치는 은혜가 잇겟느니
 다 방언을 말할겟느니 _나 다 동변호겟느니 _나 너희는 오직 더욱 큰 은혜를
 스모흐라 내가 또한 데일 휴흔 길을 너희께 보이리라

내가 사론의 방언파련스의 말을 흘지라도 스랑이 업스면 소래 나는 구리와
 울니는 땅파리와 끽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잊서 여러 가지 오묘한 뜻과
 모든 학술을 통달하고 또 산을 올길 만흔 모든 멎음이 잇슬지라도 스랑이
 업스면 내가 아모 것도 아니오 ^나 내가 내게 잇는 모든 거스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주어 불살을지라도 스랑이 업스면 내게 유익함이 업 ^나 _나 ^나 스랑은
 오래 쟁고 온유흐며 스랑은 투과흐지 아니흐며 스랑은 조랑흐지 아니흐며
 교만흐지 아니흐며 무례히 힝치 아니흐며 조괴의 리익을 구체 아니흐며 성
 진리와 흠색 ^나 것버하고 범스에 쟁으며 범스에 밋으며 범스에 브라며 범스에
 견득느니 ^나 ^나 스랑은 길이 떠러지자 아니흐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끽치고
 지식도 폐하고 우리 지식도 온전치 못하고 예언도 온전치 못 ^나 온전하고

교린도 전십서장

오 빅 스

필 류

거시 올 때에는 온전치 못한 거시 폐호리라 내가 이 오 빅 스
 거시 어린 익희와 그고 아는 거시 어린 익희와 그고 텁슬에에는 말호는
 익희와 그다가 장성한 사물이 되여 어린 익희의 일상각하는 거시 어린
 이제 거울 속으로 보는 것 그치 회미호나 그 때에는 을 보 려노라 우리 가
 볼 거시 오 내가 이제 아는 거시 온전치 못호나 그 얼꼴을 뒤 흥야 서로
 아신 것 그치 내가 온전히 알니라 그런즉 멋음파 소파 때에는 쥬여서 나를
 흥상 잊을 거신티 그 중에 데일은 스랑이라 파스랑 이 세 가지는

너희는 스랑을 쓰라 구호 되신령호 거슬 고절히 스몽
 구호라 방언을 말호는 자는 사물의 배 말호지 아니호 야 특별히 예언호 기를
 아라 듯는 자가 업스나 그 싱⁺로 오묘호 거슬 말호는 거⁺하고 하느님씨 말호는 나
 사물의 배 말호야 덕을 세우며 권면호며 암위호는 거⁺시 오오자⁺을 말통호는 자는
 조괴의 덕을 세우고 예언호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 오방언⁺을 말통호는 자는
 다 방언 말호 기를 원호나 더욱 원호는 거슨 너희가 누니⁺가 너희들이
 방언을 말호는 자가 만일 통변호야 교회의 덕을 예언을 세우지 아니호면

예언호는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그런즉 형데들 아
 방언을 말호고 무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그르치는 말이나 흥지 아니호면
 너희네 무어서 유익호리오 후⁺ 더나 후 거문고나 성과가 업는 거시로 되
 소리를 발호 때에 그 소리에 분별이 업스면 그 불교 듣는 거슬 엇지 알니오
 만일 라발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말호면 누가 전정을 예비호리오 이와 그치
 너희도 혀로 써 알아 듯기 쉬운 말을 흥지 아니호면 그 말호는 거슬 엇지
 알니오 이는 허공을 향호야 말호는 거시라 세상에 소리가 여려 가지라도
 뜻 업는 소리는 업는니 그련고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아지 못호면 내가
 말호는 자의 배 오랑캐가 되고 말호는 자도 내게 오랑캐가 되리니 그려면
 너희도 신령호 거슬 스모호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호야 풍성호기를
 구호라 그런고로 방언을 말호는 자는 통변호기를 괴도 흥지니 내가 방언으로
 괴도 흥면 나의 선이 괴도 흥거니와 나의 모임은 열미를 미치지 못호리라
 그러면 엉더케 흥고 내가 신으로 괴도 흥고 또 모임으로 괴도 흥며 내가
 신으로 찬미호고 또 모임으로 찬미호리라 그러치 아니호면 내가 신으로

교린도 전십서장

오백수십팔

축사흘 때에 무식흔 처디에 잇는자가 네 말하는 거슬아지못하고 감사흘
 때에 엊지아멘느리오너의 감사흘는 거시도운나 다른사람의 배는 덕을
 세우는 거시되자못흐리라 내가너희 모든 사람보다방언을 말하는 거시
 믿음으로 다忤마티 말을 흐야 둠을 그르치는 거시일만마티 방언흘는
 것 보다 나으니라 ○ 행데들아 지혜에는 으희가 되지말고 악에는 어린
 으희가 되고 지혜에는 장성훈사람이 되라 를법에 괴록흐엿스티 쥬
 글으샤티 내가 다른방언흘는자와 다른입설노이 박성의개 말흘자라도
 더희가 오히려 듯지아니흐리라 흐엿스니 그럴꼴로 방언은 아져이 되엿스니
 멋는자를 위함이 아니오 멋는자를 위함이니 만일원교회가호 곳에 모힐
 흐는자를 위함이 아니오 멋는자를 위함이니 만일원교회가호 곳에 모힐
 때에 다 방언으로 말흘면 무식흔자나 후 멋지아니흐는자가 드려와셔
 너희를 멋쳤다 흐지아니흐겟느냐 그러나다 예언을 흐면 멋지아니흐는자나
 후 무식흔자가 드려와서 여러 사람의개 칙망을 듯고 여러 사람의개

마음과 마음을 밟고 이에 그 믿음의 숨은 일이 드려남으로 업디여 하느님께
례비 흐며 말공기를 하느님이 진실노 너희 가온티 계시다 흐리라 ○
그런즉 형데들아 엊지흘고 너희가 모힐 때에 엉던이는 찬송흘는 시도
잇고 엉던이는 그르치는 말슴도 잇고 엉던이는 무시도 잇고 엉던이는
방언도 잇고 엉던이는 통변함도 잇는나 다크을 세우기를 위흐야 흘지이다
만일 방언을 말흘는자가잇스면 두사람이나 달불파세사람이오 초셔를
쓰라 말흘고 혼사람이 통변흘거시오 만일 통변흘는자가업거든 교회
가온더셔 즘증흘야 조괴와 멋하느님께 말흘 거시오 예언흘는자가 들이나
제시나 말흘고 그 님아는 분변흘거시오 만일 것해 안준 다른사람이
무시를 엉거든 몇져 말흘던자는 즘증흘지니라 너희는 다가히 각각 예언을
말흘야 뭇사람으로 흐여곰빅호게 흐고 뭇사람으로 흐여곰권면을 뺏개
흐라 예언흘는자의 신이 예언흘는자의계 절제를 뺏느니 대개 하느님은
어지러온 일의 하느님이 아니시오 화평흘 일의 하느님이시니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그려흐니라 ○ 부녀는 교회가온더셔 즘증흘라 더희의 말흘는

교린도 전십오장

오백오십일

거슬 허락함이 암는니 너희는 룰법에 날은 것 고치 복종할 거시오
 만일 비홀거시 잇거든 집에서 그 남편의 배 무를 지니녀인이 교회에서
 말하는 거슨 붓그려온 거시라 하느님의 말씀이 엊지 너희세로 브려 난
 거시나 너희세 만림홀 거시나 ○ 사론이 만일 조괴가 선지자라 헤거나 혹
 성신에 갈동호였다 흐는자여든 내가 너희세 편지호 거시 쥬의 명령인줄
 알고 만일 아지못하는자가잇거든 그 아지못하는대로 두라 ○ 그런즉
 형데들아 예언호기를 스모호며 또 방언말호기를 금호지말나 모든 일을
 단정히 헤고 규칙을 썩라 헹호라

형데들아 전에 내가 너희세 전호복음을 이제 너희세 고호노니 이는 너희가
 밟은 거시오 또 이 가온티 셋스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호 그 말을 굳게
 적히고 헛되히 및지 아니호였스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엊으리라 내가
 밟은 거슬문져 너희세 전호였노나 이는 경에 괴록흔대로 그리스도 썩셔
 우리 죄를 위호야 죽으시고 장수자낸 바 되였다가 경에 괴록흔 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샤 캐바의 배보이시고 후에 열두 데도의 배보이셨스며

살아 잊고 잠자는자도잇스며 그후에 야고보의 배보이셨는니 그중에 지금서지 태반이나
 모든 속도의 배보이셨고 밀나종에 많삭 되지못호야 난자 흐내
 보이셨느니라 대깨 내가 하느님의 교회를 팁박흔고로 속도라 칭호기를
 감당치못호자요 속도 중에 지극히 적은자라 그러나 나의 나된 거슨
 손도보다 더 많히 쥬고호였스나 내가 혼거시 아니오 나와 흠색 계신
 하느님의 은혜로라 그런고로 내나 너희나 이 깃치 전파호매 너희들도
 또한 이 깃치 및었느니라 ○ 그리스도가 죽은 가온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 호였거늘 너희중에서는 엊지호야 죽은 가온티서 부활호는 일이 업다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지못호였스면 우리의 전파호는 것도 헛거시오
 죽 너희 및음도 헛거시며 또 우리가 하느님을 위호야 거죽 종인이 될
 거시라 우리가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니셨다고 종거호였스나 만일

고린도 전서 오십장

오백오십이

죽은자가 다시 사는 거시 업스면 하느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니신 거시
 업섯스리라 만일 죽은자가 다시 사는 거시 업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거시 업섯슬터이오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거시 업스면 너희의 멋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온더 있을 거시오 또 그리스도의께서 잠자는 자도
 침윤호였스리니 만일 그리스도를 의지하야 우리의 브라는 거시 다만 이성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상호자가 되리라 ○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가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자의 처음 나은 열미가
 되셨도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성령스니 사람이로 말미암아 죽은자의
 부활도 성경도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죽었스니 이와 모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살나라 그러나 각각 그 초례대로
 부활흘러이니 몬자는 처음 나은 열미 되신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강림호실
 때에 그리스도씨 붓흔자요 그 후에는 너가 모든 정스와 모든 권계와
 능력을 멀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느님씨 빛철 배니 이 거시 나종이라
 대개 더가 모든 원수를 그 말 아래 들 배신자 불가불 왕 노릇 하시리니

민 나종에 멀망 밧을 원수는 소망이니라 대개 하느님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신자라 만물을 그 아래 둔다 말씀하셨스니 만물을 그 아래 두신
 이가 그 종에 계시자 아니 흔거시 분명하도다 만물을 복종하게 궁신째에는
 아들도 뜨호 스스로 만물을 조괴의게 복종하게 궁신 이의게 복종하리니
 이는 하느님이 만물 가운데 대주자가 되시게 흠이라 ○ 만일 죽은자가
 도모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자를 위하야 세례 받는자는 무어 슬국겠는가
 너희를 위하야 세례 받는 거시 무숨 연교뇨 또 엇지하야 우리가 때때로
 위험흔 터잇스리오 형데들아 내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힘남여 너희를
 위하야 조랑으로 단정코 날마다 죽기를 무릅쓰노라 내가 범인처럼
 다시 살지 못하면 마시고 먹자 린일 죽으리라 속지 말나 악한 동모는 선호
 에 베소에서 즘성으로 더 브려 짜황기로 무숨 유익한이 잇스리오 죽은자가
 힘실을 손해 채 하느니 셔여 의를 힘하고 죄를 범하고 말나 하느님을
 아지 못하는자가 잇기로 내가 이곳치 말하야 너희를 붓그립게 하노라 ○
 혹이 뭇기를 죽은자가 엉더케 다시 살며 엉더흔 몸으로 오느냐 하니

고린도 전서 10장

오백오십

드자여 네가 ^{제우}는 씨가 몬져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 ^{할것}고
 우는 거시 ^{장례} 형태를 ^{제우}는 거시 아니오 밀 알강이나 다른
 일강이 뿐이로 되 ^하_는 님이 조괴의 육례도 있고 새의 육례도 있고
 다 각각 그 형태를 주시는니 육례는 ^다 훌종류가 아니니 사물의 육례도
 있고 즘성의 육례도 있고 새의 육례도 있고 물고기의 육례도 있고
 하늘에 속한 형태도 있고 짜에 속한 형태도 있고 스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화와 짜에 속한 자의 영화가 다르니 ^하_의 영화도 있고 들의 영화도 있고
 별의 영화도 있는 터 별별이 그 영화가 다르매 죽은 자의 부활도 ^도 훌 이와
 짜호니라 썩을 거스로 심으고 썩지 아니할 거스로 다시 살며 옥된 거스로
 심으고 영화로온 거스로 다시 살며 약한 거스로 심으고 강한 거스로 다시
 살며 ^혈_괴의 몸으로 심으고 ^{신령}_호 몸으로 다시 사느니 ^혈_괴의 몸이
 잇손즉 또 ^{신령}_호 몸이 있는 니라 ^괴_록 ^호_연스터 처음 사름 아담은 산
 령혼이 되였다 ^호_연스되 모조막 아담은 살녀 주는 신이 되였다 니그러나
 신령호자는 몬져가 아니오 도로 혈과 있는자가 몬져요 그 다음에는

신령호자 나라 처음 사름은 짜으로 브터 낫스니 ^흙에 속 ^놓여 거니와 둘재
 사름은 하늘노브터 나섯느니 ^흙에 속한자는 더 ^흙에 속한자와 짜고
 무릇 하늘에 속한자는 더 하늘에 속한자와 짜호니 우리 암의 흙에 속한자의
 형상을 뺏은 것 짜치 ^도 훈 하늘에 속한자의 형상을 뺏으리라 ○ ^형_데들아
 내가 이 거슬 말호노니 혈육은 능히 ^하_는 님 나라를 엊지 못하고 ^도 훈 썩은
 거순 썩지 아니 훈 거슬 엉지 못 ^하_는 니라 ^불_지 어다 내가 너희께 오묘한 거슬
 고호노니 우리 가다 ^프잠잘 거시 아니오 모조막 라발에 ^술_식간에 훌연히
 변화 흐리니 대개 라발 소리가 나매 죽은자들이 썩지 아니할 거스로 다시
 살고 우리도 ^도 훈 변화 흐리라 이 썩을 거시 불가불 썩지 아니할 거슬
 낌켓고 이 죽을 거시 죽지 아니 흠을 낌으리로다 이 썩을 거시 썩지 아니 흠을
 넘고 이 죽을 거시 죽지 아니 흠을 넘을 때에는 ^수망이 이 꿈의 삼진 바
 되리라 훈 말습이 응호리라 ^프망아 너의 이 괴는 거시 어덕 있는 ^수망아
^프우리들노 하여 곰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괴에 흐시는

고린도 전서 십육장

오 빛 오 십 육

하는 님 씨 갑사 호 노니 그린 고로 내 스랑 흐는 형데들아 너희가 견고 흐야

五五

흔들니지 말고 흥상 힘써 쥬의 일을 부지런히 훌지어다 대개 너희가 쥬를
의지 흐야 슈고 흠이 헛된 거시 아난 줄을 아는 니라

夫

성도를 위 흐야 연보 흐는 일을 의론 견대 내가 갈나 되아 여러 교회에 명흔
것 꼽쳐 너희도 흥 흥 라 미 쥬 일 첫 날에 너희가 각각 그 리를 엇은 대로
저축 흐야 두 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흥지 안 켜 흐 라 내가 너를 째에

너희가 천거 혼사를의 케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흐리니 말일 나도 가는 거시 합당 흐면 너희가 나와 흠 씨 가리 라 내가
마 케 도니아를 지 날려 이니 마 케 도니아를 지난 후에 너희가 나아 가셔

너희와 흠 씨 흥 머물며 흥 파동 흘듯 흐니 너희는 나의 갈 곳으로 보내여
주기를 브 라 노 라 이제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치 아니 흐고 쥬 씨 셔

만 일 희 락 흐 시면 열마 동안 너희와 흠 씨 엇 기를 브 라 노 라 내가 오술 절 선판
에 배 소에 류 흐리니 대개 광대 흐고 공효를 일우는 문이 내 암해 열렸는 드
터 덕 흐는 자가 만도 타 ○ 린 모태가 나르 거든 너희는 삼가 셔 더로 흥여 품

一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두려운 거시 업시 너희 가온 터 잇 켜 흐 라 대개 더도 나 처럼 쥬의 일을
힘쓰느니라 그린 고로 누구던지 더를 멀시 흐지 말고 평안히 보내여 내께로
오게 흐라 나는 더가 다른 형데와 끼치 오기를 기드 리 노 라 형데 아불 노의
일을 의론 견대 더드려 다른 형데와 흠 씨 너희가 가라고 내가 만히 권 흐 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업스나 오직 흔을 드면 가리 라 ○ 세여 및음에 궂게
서서 장부가 되여 강건 흘지 어다 너희 모든 일을 스랑으로 흥 흥 라 ○

형데들아 스데 바나의 집은 곳 아 가 이 야 의 처음 닉은 열미요 쪽 너희가
성도 섬기기로 작정 흔줄을 너희가 아는 바 라 내가 너희를 권 흐 노니 이
깃 혼자와 멋 더와 흠 씨 일 흘며 이 쓰는 모든 자의 케 복종 흐 라 내가

스데 바나와 보드나 도와 아 가 이 교의 온 거슬 깃 버 흐 노니 너희가 너희
오지 못 흔 거슬 터 신 흔 엇느니라 너희가 내 모 음파 너희 모 음을 위로 흔 엇느니
그린 고로 너희는 이련 사를을 중히 녙이라 ○ 아시 아의 여려 교회가 너희가
문 안 흐고 아 굳나와 브 라 스가와 멋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쥬 안에 셔 너희가
군결 흔 문 안 흐고 모든 청대도 너희 케 문 안 흐니 너희는 거룩 흔 채 입 마 촘으로

고린도 전집류장

오백오십팔

서로 문안호라 ○ 나 바울은 천필노 너희께 문안호 노니 만일 쥬를 스랑
호지아니호는자어든 저주를 맛으라 쥬색서 강림호시느니라 원천대 쥬
예수 그라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흠색 있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너희 무리의 베잇슬지이다 아멘

고린도 후

교회에 바울이 보낸 고린도 후편지

하는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손도 된 바울이 형데 터모데로 더브려
고린도에 잇는 하는님의 교회와 원 아가이아에 잇는 모든 성도의 베
편지호노니하는님우리아바지와쥬예수그리스도로말미암아은혜와
평강이너희께잇슬지이다 찬송호리로다하는님우리쥬예수그리스도의
아바지시여 듯비호신아바지시오모든위로를주시는하는님이로소이다
더가우리모든환란중에우리를위로호샤 우리로 호여곰하는님색
밧는위로로써모든환란중에잇는자를능히위로호게호시느니 대개
그리스도의 고난이우리의케만흔것곳치우리의위로로그리스도로말미암아
만흔지라 우리가후환란밧는것도너희의위로와구원을위호야 흠이오
후위로 밧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호야 흠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횡호야 우리가 밧는 것 과 흔 고난을 너희도 촘세호느니라 너희를 위호야
우리의 빛라는 거시 견고호도다 이는 너희가 고난을 흠색 밧는 것 과 흔

위로도 흠遗留 밟을 줄을 아노라 형데 들아 우리가 아시아 도에서 당호 활란을
 너희가 아지 못할 기를 원치 아니할 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술로 표성을 밟아
 살 괴망서자 살 허지 고 촐으로 우리 믿음에 죽을 줄 알았스니 이는 괴리를
 멋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니 시는 하느님 말 멋제 흥심이라 하느님이 임의
 우리를 이러한 스망에서 구원호셨고 ^九 후에도 구원호시리니 뜨호 멸호 야
 구원호시기를 의지호야 빛라노라 너희도 군구호으로 우리를 도으라
 우리가 혀다호 사물의 괴도 흠으로 엇은 은혜를 인호야 혀다호 사물도
 우리를 위호야 감사호제 호라 ○ 우리의 땅심이 증거호노니 우리가 세상에서
 흥호기를 육례의 지혜로 흥지 아니하고 하느님의 은혜로 흥며 하느님의
 주신 바 거룩호고 신실호 모임으로 흥되 특별히 너희를 향호야 더욱 이
 끗치 흠이 우리의 조랑호는 바라우리가 너희에게 편지호는 거순다를 아니라
 오직 너희가 낙이 보고 아는거시라 너희 중에 지금 우리를 아는자가 있는
 것 조치 우리 주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조랑호이 되고 우리가 너희
 조랑호이 되는줄 뜻지 알기를 빛라노라 ○ 내가 이 거슬 확실히 멋는표로

너희로 하여금 두번 은혜를 엿제 흥하고 묻져 너희께 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계도니아에 갖다가 마계도니아에서 다시 너희께 도라와 너희가
 보낼로 유대로 가고저호였스니 이라케 경영을 떼에 엇지 범연히 호였스라오
 흑작당호기를 육례를 쪽차 작당호야 네네 호다가 아니라 아니라 ¹⁰
 일이 내게 잊섯겟는나 하느님은 빛 브시니 우리가 너희께 훈말이 빼호다가
 아니라 흠이 업노라 대개 우리 곳나와 설누아노와 티모데가 너희가온터
 전파호하는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네 호다가 아니라 흠이 업고 다만
 더의에는 네 쌈이니라 하느님의 허락호심이 업마던지 그리스도의 계서다
 네가 되니 그런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호야 하느님의 영화를
 들네 보낼지어다 우리를 너희와 흠遗留 그리스도의 계붓쳐 견고케 호시고
 또 우리 계기름을 부으신이는 하느님이시니 더가 도호 우리의 계인을
 치시고 죽 성신을 우리 믿음에 두샤 장조 은혜 밟을 표를 삼으셨느니라 ○
 내가 하느님을 불녀 내령흔을 위호야 증거호시제 호노니 다시 교령도에
 가지 아니호 거슨 너희를 용서호라 흠이라 이는 우리가 너희 믿음을

교린도 후 이장

오 빛 류 십 삼

쥬관호 래는 거시 아니오 오직 너희 것 봄을 도으 래 흠이니 대개 너희가
 내가 다시는 근심으로 너희께 나아 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 허엿노니 너희로
 허여 곰 근심 허게 혼자가 내면 내가 근심 허게 혼자가 내가 것 브에
 흔는 자가 누구냐 내가 갈 때에 맞당히 나를 것 브에 혼자가 도로 혀 나를
 근심 허게 혼가 두려워 허야 전에 이 곳처 편지를 붓쳤노니 내가 너희
 무리를 터 허야 나의 깃 봄이 너희 모든 사람의 깃 봄이 될 줄 아노라 내가
 큰 환란과 익통 혼 모임이 잊서 만흔 눈물 노 너희께 편지 허엿노니 이는
 너희로 허여 곰 근심 허게 허랴 혼거시 아니오 너희로 허여 곰 내가 속 랑 눈
 거시 입흔 줄 알게 허랴 흠이라 ○ 근심 허게 혼자가 잊섯 슬지라도 나만
 근심 흔 거시 나오 여간 너희 모든 사람도 근심 허게 혼거시니 내가 너무
 심 허게 허랴 허지 아니 허야 이 곳처 말호노라 ○ 이 허 혼사람이 여러 사람의 깨
 친별 뱗는 거시 임의 족 허도다 그려 주 너희는 출하리 더를 용서 허고
 위로 허 거시니 더가 너무 만흔 근심에 즘길가 두려워 허노라 ○ 그려 고로
 너희를 권호 노니 속 랑을 더의 깨 나라 내라 내가 전에 편지를 너희께 붓친
 거슨 너희가 범수에 숲종 허는 여부를 알고 저 흠이니 너희가 무솔 일이 던자
 뉘게 샤 허야 주면 나도 죽 혼 그리 허고 내가 만일 샤 허야 준 일이 잊스 면
 너희를 위 허야 그리스도도 압해셔 샤 허야 주었노니 이는 사단이 우리를
 이 괴지 못 허게 허랴 흠이오 우리 가 그 께례를 아지 못 허는 바가 아니로라 ○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 허야 드로아에 나르 매 쥬의 일 흘 문이 내 압해
 열니 되 오직 내가 내 형 데 터 도를 맛나지 못 흠으로 내 모임이 편치 못 허야
 너희를 작별 허고 마 죄도 나아로 갖노라 ○ 흥상 우리를 인도 허야 그리스도의 깨셔
 이 꿈을 나타내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향괴를
 나 타내시는 한 님씩 감사 허노라 ○ 우리 가 구원 엇는 자의 깨나 침류 흔는 자의 깨나
 하느님 압해셔 그리스도의 향괴가 되는니 ○ 이 사람의 깨는 속망으로 좁차
 속망에 나르는 향괴가 되고 더 사람의 깨는 성명으로 좁차 성명에 나르는
 향괴가 되는니 누가 이 거슬 감당 허리오 ○ 우리는 수다 혼 사람과 곳처 허느님
 도를 더럽게 허지 아니 허고 곳 신실 흠으로 하는 님의 명을 뱗드려 하느님

암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야 말호노라
 우리가 시방브려 다시 조천호겟느냐 우리가 엎지었던 사럼처럼 천거하는
 편지를 너희께 봇치거나 후 너희께 맞겟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몇음에 써셔 뭇사람이 알고 넓는 바라 너희는 우리가 일哄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된 거시 나타낫느니 이는 먹으로 쓴 거시 아니오 살아 계신 하는님의
 신으로 쓰신 거시며 또 돌비가 아니오 몇음의 유희에 괴록흔 거시라
^四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을 향호야 이 깊은 멋음이 잇느니
 이는 우리가 스스로 만족호야 우리 성각으로 무숨일을 헝지못할 거시라
 우리의 만족호 거슨 하느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五더가 또 우리로 헝여 곰
 새언약의 집스됨이 만족호제 호션느니 의문으로 험아 아니오 성신으로
 험아니 대개의 문은 죽이는 거시오 성신은 살내는 거시라 ^七못총내 모세의
 얼굴의 폐흘 영광을 인호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얼굴에 주목호지
 못호었느니 들에 살인 죽개하는 의문의 직분도 오히려 영광이 잇섯거든
 험을 떠 성신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잇지아니호겟느니 좌를 명호는 직분도
 영광이 잇는즉 의롭게 험하는 직분의 영광이 더욱 만호리라 ^九전에 영광이라던
 거시 지금 잇는 더 큰 영광을 인호야 영광 될 거시 업스나 ^十폐흘자도
 영광으로 되잇는즉 길이 잇슬자는 더욱 영광 가온더 잇느니라 ○ 우리가
 이 깊은 소망이 잇슴으로 당당히 말호노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장총
 폐흘자의 결국을 주목지못호제 허랴고 슈건을 그 얼굴에 씌운 것 로치
 아니호노라 그러나 더희 모음이 와악호야 오늘서자라도 더희가 구약을
 넓을 때에 그 슈건이 오히려 벼서지지아니호고 잇느니 그 슈건은 그리스도
 의계서 폐흘 거시라 오늘서자 모세를 넓을 때에 슈건이 오히려 그 모음을
 덤했도다 그러나 쥬색로 도라가면 그 슈건이 벼서지리라 ^{十二}쥬는 곳신이시니
 쥬의 신이 계신 곳에는 조유함이 잇느니라 우리가 다 얼굴에 슈건을
 벗고 거울을 보는 것 끝치 쥬의 영광을 보고 더와 깊은 형상을 화호야
 영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더놓니 이는 쥬 곳신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러함으로 우리가 이 직분을 맛아 궁흘호심을 넓은대로 걸내지아니호고
 이에 숨은 불그려움의 일을 봄리고 궤흘 가온데 힝호자아니호며 하느님의

교린도 후 소장

오백류십륙

말씀을 혼잡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여 하느님 암해셔 각 사람의
량심에 덕망야 스스로 천거하노라 만일 우리 복음이 슈전으로 그리운 것
곳치 그리웠스면 침윤하는자의게 그리운 거시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멋지 아니하는자의 정신을 혼미케 하야 그리스도의 영화로은 복음의 광채가
빛초이지 못하게 흠이니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형상이니라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거시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죄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인하야
우리가 너희의 종된 거슬 전파 흠이라 어두은 터셔 빛처 빛처라 하시던
그 하느님께서 우리 믿음에 빛최사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느님의 영광을 아는 바 빛출 나타내세 하셨느니라 ○ 우리에게 있는 보비가
질그릇에 담겼느니이는 권능의 심히 큰 거시 하느님의 거시 오 우리의께서
난 거시 아님줄을 알게 흠이라 우리가 소방으로 옥여 쌈을 당호여도
눌니지 아니하며 담담한 일을 당호여도 락심눌지 아니하며 팝박을 밟아도
본린 바 되지 아니하며 썩 구러터림을 당호여도 망호지 아니하고 우리 가
홍상 예수 죽인 거슬 몸에 질며져 예수의 사신 것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노라 대개 우리 산자가 홍상 예수를 인하야 잡혀 죽을 디경에
거슨 예수의 사신 거시 도훈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흠이나 그려죽
스망은 우리에게 힝하고 성명은 너희에게 힝하느니라 과록 흘리 날냈스티
내가 멋는고로 말하엿다 흔것곳치 우리게이 멋는 믿음이 잇느니우리도
미는고로 말하노라 쥬 예수를 다시 살니신이가 장초 예수와 흠써 우리를
▣ 흐 다시 살니사 너희와 흠써 그 암해 서게 홍실줄을 아노니 대개 모든
거슬 너희를 위하야 하는거슨 은혜가 사룸의 만흔수를 드라 더 흠으로
감사함이 더욱 만하 하느님께서 영화를 들니께 흠이라 ○ 그려고로 우리가
겁내지 아니하니 것 사룸은 후페 호나 속 사룸은 날노 새롭도다 대개 우
리의 잠시 뱃는 환란의 경흔 거시 우리를 위하야 저극히 크고 영원히 영화의
중호 거슬 일우게 흠이니 우리가 보이는 거슨 도라보지 안코 보이지 안는
거슬 도라봄은 보이는 거슨 잠간이오 보이지 않는 거슨 영원함이니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 집이 문허지면 하느님께서 지으신 집이
하늘에 있는줄 아노니 사룸의 손으로 지은 거시 아니오 영원히 집이로다

교련도 후 오장

오백류십팔

우리가 여괴 잊서 탄식 흥여 하늘노보터 오는집으로 웃 날듯 흐기를 심히
 소모호노니 이는 벗지안코 낱음으로 쥬를 맛나랴 흠이라 대개 이 장막에
 잇는 우리가 담담호야 탄식하는거순 벗고저 흠이 아니오 덧날고저 흠이니
 죽을거시 성명의 계실진 바 되비호랴 흠이라 곳 이 거슬엇게 흐라고
 이런고로 우리의 모임이 흥상 굿세여 육례에 거할 때에는 쥬의 집에
 거흐지못호줄을 아노니 대개 우리가 보는 거스로 흥호지아니호고 멋는
 거스로 흥호노라 아럼으로 우리 모임이 굿세여 육례를 떠나 쥬의 집에
 거흐기를 더욱 즐거워호노니 우리는 육례에 거흐던지 떠나던지 쥬를
 깃브시께 흐기를 힘쓰노라 대개 우리가 다반드시 그리스도의 터 암해
 드러나 선악간에 각각 그 몸의 흥흔 거슬드라 갑흘을 밤으리라 ○ 우리가
 쥬를 두려워하는거슬 아는교로 사를을 훨호노니 우리가 하는님 암해 일의
 나타나고 또 너희의 탕심에도 나타난줄을 멋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께
조천호는 거시 아니오 오직 우리를 인호야 조랑할 거스로 너희를 주어

모음으로 조랑호지 안코 와모로 조랑호는 자의 배 터 담호제 흐는 거시라
 우리가 만일 멋첫스면 하느님을 위호야 그러호 거시니 그리스도의 스랑이 우리를
 온전호면 너희를 위호야 그러호 거시니 그리스도의 스랑이 우리를
 훈면 흥시는도다 우리가 성각건대 훈사람이 모든사람을 먹신호야 죽엇는즉
 모든사람이 죽은거시라 더가 모든사람을 터신호야 죽으심은 산자로
 흥여곰 조괴의 몸을 위호야 살지안코 다만 터신죽엇다가 다시 사신쟈를
 위호야 살제 흠이니라 그런고로 우리가 이제보터는 육례대로 사람을
 알지 아니호리니 비록 육례대로 그리스도를 알었스나 이제는 다시 이곳치
 알지 아니호노라 그런즉 누구던지 그리스도 안에 잇스면 새로 지은거시니
 이전 거순 지나가고 새거시 되엇도다 모든 거시 하느님으로 맘리암아
 잇는니 더가 그리스도로써 우리를 저와 화목 흥케 흐시고 또 화목 흥케 흐는
 적척을 우리께 주셨스니 이는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샤 세상을
 저와 화목 흥케 흐시며 너희 베헤죄를 돌나지 아니호시고 화목 흥케 흐는 말씀을
 우리께 부탁 흥셨느니라 ○ 이럼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신이 되여

하느님께서 천히 험호시는 것 같아 우리로 너희를 험호해 호시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신호야 너희가 하느님과 화목호기를 요구호노라 하느님이
죄를 아지도 못호신자로 우리를 더신호야 죄를 삼으신거늘 우리로 호여 곰
여의게 잇서 하느님의 의가 되게 호심이니라
우리가 하느님과 흠여 일호며 너희를 험호노니 하느님의 은혜를 헛되히
았지마라 하느님이 글으샤되

우리가 하느님과 함께 일하며 너희를 권호노니 하느님의 은혜를 혀 되히
받지마라 하느님이 골으사더니
내가 은혜 줄 때에 너를 듯고 구원할 날에 너를 도았다

“**호셨스니 볼지어다**.” 지금은 은혜 주실 때요. 지금은 구원호살 날이로다.
“**우리가 무숨 일에 던지 사룸의 게 거리세지 안케**.” 허야 이 적척에 훠방이 업게
하고 이에 하느님 일꾼이 되여 모든 일노 조천 허노니 만히 견디는 것과
환란과 궁핍과 곤고와 미망 六는 것과 가치는 것과 요란한 것과 슈고로 옴과
자지못하고 먹지못하는 것을 당하고 七색구름과 지식과 오래 쳐는 것과 八비홍과
성신의 감화홍과 거죽이 업는 소랑으로 힝하고 九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하느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의의 병괴를 좌우로 쓰고 一영광과 육림을 밟으며

교린도 후 칠장

오백칠십이

너희는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살펴 보리고 더러운 거슬문지지 말나
호셨고 또 전능하신 주 | 말씀호시기를

내가 너희를 영접호야 네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조녀가 되리라

호셨느니라

호신 것도 전능호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사랑호는자여 이런처럼 호신 말씀이 우리에게 잇느니 우리 가육례와
믿음의 온갖 더러운 거슬 봉리고 스스로 쟈그호게 호야 하느님을 두려워호야
거룩호을 운전히 일울지어다 ○ 너희는 믿음으로 우리를 영접호라 우리가
뉘게던지 불의를 호거나 해롭게 호거나 속여 빼아순 일이 업노라 나의 이
말이 너희를 명죄코 져함이 아니 오 내가 이전에 말호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믿음에 잊서 죽던지 살던지 흠띠 호고 져함이라 내가 너희를 향호야 호는 말이
굿센 것도 만코 너희를 위호야 조랑호는 것도 만호니 내가 우리 모든 환란
가온터서도 위로함이 그득호고 깃불이 넘치는도다 ○ 우리가 마계도 니아
에니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례가 편치 못호고 소방으로 환란을 당호야

밧그로는 다톤이 잇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잇스나 오직 겸손한자를
위로호시는 하느님이 되 도의 옴으로 우리를 위로호셨느니 다만 더의 온
것뿐아니오 더가 너희께 밟은 위로로 우리를 위로호고 너희의 소모함과
의통함파나를 위호야 열심 있는 거슬 내게 고호야 나로 호여곰 더욱
깃브게 혼자라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호게 혼거슬 전에는 후회호였스나
제금은 후회호지아니호노니 대개 그 편지가 너희로 호여곰 잠시 만근심호게
혼줄을 아노라 내가 지금 깃버호는 거순 너희로 근심호게 호는 쇠돌이
아니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기호 쇠돌이라 너희를 하느님의 쫓대로
근심호게 호엿스나 너희가 우리의 제아모해도 밟지안케 호엿노라 대개
하는님의 쫓대로 호는 근심은 회리를 일우어 구원을 엿세호는 거시오
후회호거시 업거니와 세상 근심은 죽는 거슬일우느니라 하느님 쫓대로
호게 혼이 근심을 싱각호야 보라 너희께 엿더케 고절호게 호며 엿더케
발명호게 호며 엿더케 분호게 호며 엿더케 두렵게 호며 엿더케 소모호게
호며 엿더케 열심잇게 호며 엿더케 척벌호게 호엿는가 이 모든 거스로

교린도 후 팔장

오 빅 철 십 수

너희가 더 일에 덕 헌 악 죄의 셱 긋 훈 거슬 표 헌 였느니라 그 런즉 내가
 너희께 편지 훈 거슨 그 불의 힝 훈 자를 위 훈 것도 아니오 그 불의 당 훈 자를
 위 훈 것도 아니오 오직 너희가 우리를 위 헌 악 고 절 훈 거슬 하느님 압 해서
 너희 중에 북히 나라 나에 험 이로라 이련고로 우리 가 위로를 엊고 위로
 엉은 우에 데도의 깃 벼 험으로 우리 가 더욱 만히 깃 벼 헌 노니 그 믳 음이
 너희 무리를 인 헌 악 평안 험을 엇 엉느니라 내가 데도의 깨 너희를 위 헌 악
 무어 시던지 조랑 훈 거시 봇 그 럽지 아니 헌 우리 가 너희께 닐은 말이 다
 전실 훈 것 조치 데도 암 해서 우리 의 조랑 훈 것도 전실 헌 채 된지라 더가
 너희 모든 사물들이 두려워 헌 고 셀 므로 조괴를 영접 헌 악 순종 훈 거슬
 성 각 헌 고 너희를 향 헌 악 그 믳 음의 정이 더욱 발 헌 였느니 내가 범스에
 너희를 멋고 깃 벼 헌 노라

종 거 훈 노니 더희가 함대로 훈 쌤 아 나라 힘에 지나도록 조원 헌 악 연보를
 헌 되 이 은혜를 엉어 성도를 섬기는 일에 참 섭 헌 기를 우리 채 고 절 훈
 구 헌니 이는 우리 의 보라던 것 쌤 아니라 더희가 하느님 쫓을 쪽 차 몬져
 더욱 만하 심히 간난 헌 여도 구제 헌 기를 더욱 풍성 헌 악 헌 였느니라 내가

형데들 아 하느님 쌤 서 마케 도니 아 여러 교회에 주신 은혜를 우리 가 너희께
 알게 헌 노니 더희가 환란 가온 터서 시험을 만히 밟을 때에 깃 본 믳 음이
 몸을 쥬 씨 드리고 후에 우리 채 주 엇도다 아 럴 으로 우리 채 데도를 권 헌 악
 임의 시작 헌 이 은혜를 너희 가온 터서 성취 채 헌 라 헌 였느니라 내가
 멎음과 말과 지식과 고 절 험과 우리를 스랑 헌 는 이 모든 일에 풍성 훈 것
 웃처 이 은혜에도 풍성 헌 채 헌 지어다 나의 이 말이 명령이 아니라 이에
 다른 사물의 고 절 험을 가지고 너희의 스랑 헌 는 실상을 시험 코져 험 이로라
 우리 쥬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를 너희 가 알 거니와 본리 부요 헌 시더니
 너희를 위 헌 악 간난 헌 채 되샤 그 간난 험을 인 헌 악 너희로 부요 헌 채
 헌 셋느니라 이 연보 일에 내가 뜻 만 보이 노니 이는 너희 깨 유익 험이라
 너희가 일년 전에 이 일 험 헌 기를 다른 사물 보다 묻져 시작 헌 쌤 아니라
 그 전 브 터 원 헌 는 믳 음이 엇는지라 이제는 힝 헌 기를 성취 헌 지니 너희가
 원 헌 뜻 뜻과 조치 성취 헌 되 엇는대로 힝 헌 라 대개 헌 믳 음 만 잇스면

교린도 후 팔장

오백칠십육

잇는대로 밟으실 터이오 업는 거슬 밟지아니호시리라 이는 내가 다른
 사름은 평안호제 호고 너희는 곤고호제 호라는 거시 아니오 이에 평균케
 허려호니 이제는 너희의 유여호 거스로 너희 부족호 거슬도아 주제
 허고 후에는 너희 유여호 거슬로 너희 부족호 거슬도아 주제 호야 평균호제
 허노라 고록호 것고치 만히 거둔자도 놈은 거시 업고 적개 거둔자도
 모자름이 업느니라 ○ 내 모음이 너희를 위호야 고결호 것고치 티도의
 모임도 고절케 호야 주신 하느님째 감사호노니 더가 우리의 권함을 듯고
 또 그 모음이 더욱 고절호고로 조원호야 너희제 나아가고 또 더와 흠씨
 훈형데를 보내니 이 사름은 복음을 전함으로 여러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자요 이뿐 아니라 더는 여러 교회에서 퇴호야 이은혜의 일도 우리와
 흠씨 동향호제 혼자라 우리가 이은혜를 맛핫스매 쥬의 영화와 우리 원하는
 모음을 나타내고 져호노니 이려케 조심함은 이 만흔 저물을 맛하 놈의
 훠방이 업세 허려함이로라 대개 우리가 선호일도 도모호기를 쥬 암해셔
 만 훈분 아니라 사름 암해셔도 허려호고 또 너희와 흠씨 혼 형데를

보내노니 우리가 여러번 시험호야 모든 일에 그 고절한 거슬 알거나와
 이제 더가 너희를 감히 및을죽 더욱 고절호는줄을 아노라 되도를 말호면
 나의 동모요도 너희를 위호야 나와 흠씨 일호는자요 두 형데를 말호면
 여러 교회의 스랑함과 우리가 너희를 위호야 조랑호 증거를 너희제 보이라
 성도를 위호야 연보호는 일노 내가 너희제 편지흘 거시 업스나 대개
 너희의 원호는 모음을 내가 알고 너희를 위호야 마계도니아 사름의 계
 조랑호기를 아가이아 에서는 일년 전에 예비호였다 호니 너희 열심이
 곳 만흔 사름을 겪동 식혔느니라 그런즉 이 형데를 보내는 거순 너희로
 헛되지안게 허려함이라 혹 마계도니아 사름이 우리와 흠씨 가셔 너희의
 예비호지아니호 거슬 보면 너희는 고사호고 우리가 너희를 멋는 거시
 봇그려울가 두려워호노니 이런교로 내가 이 형데를 헛호야 몬져 너희제
 가셔 너희가 전에 혀락호연보를 미리 모화두개호는 거시 불가불 흘일노

교린도 후 구장

오 빅 칠십 팔

아노니 이 러 케 예비 호여 야 촘 연보요 억지가 아니니라 ○ 적개심으는자는
 적개거두고 만히 심으는자는 만히 거둔다 흥는 말이 올도다 각각 그
 믿음에 원호는대로 흘 거시오 린식흔 믿음으로 흥거나 부득이 흥야
 흥지 말지니 대개 즐겨내는 사물은 하느님이 소랑호시는 나라 하느님이
 모든은혜를 너희께 후히 주실 능이 있셔서 너희로 흥여곰 모든 일에 흥상
 모든 거시 너넉 흥야 모든 착한일을 만히 흥호께 호시리라 ^九과록 흥엿스되
 더가 저물을 흥히 간난흔자를 주었스니 그의가 영원도록 있는 나라
 흥엿스니 심으는자의세씨를 주시고 양식을 주어 먹게 호시는이가 너희
 심을 거슬주샤 변성호께 호시고 또 흥 너희의의 열미를 더호께 호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요호야 너그러운 믿음으로 연보를 만히 흥야 밟는자로
 흥여풀우리로 말미암아 하느님째 감사호께 흘지이다 이 연보 호는일이
 성도의 부족호 것 만 보조호뿐 아니라 또 흥 하느님째 더욱 만히 감사호께
 흄이니 너희 연보호는일이 종거가 되여 다른사람으로 흥여곰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및고 복종하는 것과 너희와 뭇사람을 위호야

연보를 ^{후호께} 내는 거슬 보고 하느님께 영화를 돌녀 보내고 ^도 너희를
 위호야 고구궁며 하느님이 너희께 주신 은혜가 만코 만흔 거슬 인호야
 너희를 ^{수모호는} 나라 ^나 말도 다 흘수업는 운수를 인호야 하느님째 감사호노라
 나 바울은 너희를 더면호면 겸손호교 뙠나 편지호면 궂세계 ^하는자라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파 너그러움으로 너희를 권호고 ^도 흥 구호노니
 나로 흥여곰 너희께 잇슬 때에 용명이 나게 흥지말나 오직 우라를
 지목호야 육례대로 흥흔다고 말하는자가 잇스니 이런 사물의 배는 궂센
 믿음으로 담대히 티접호가로 성각호노라 우리가 육례에 ^있서 흥하나
 아니오 하느님 암해세 강홍으로 견고호진을 파호는 거시라 우리가 모든
 육례대로 싸호지아니호노니 ^하 대개 우리의 싸호는 괴계는 육례에 속호거시
 모든 성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세복종호라고 스스로 놈하진거슬다 헐고
 복종호 후에 모든 복종치안는자를 칙벌호라고 예비호엿노라 너희는 의모
 만보는자로다 만일 사름이 스스로 그리스도의세속흔줄을 및을 진대

고린도 후 십장

오 봉 팔 십

맞당히 다시 그의 속으로 성각하기를 드리자 그리스도의 계속한 것 같지
 우리 도 속 혼종을 알나 쥐새서 내게 권세 주시기는 너희를 파호 래고 호신
 거시 아니오 세우 래고 호셨느니 내가 이 권세를 만히 드랑호여도 붓그립
 지아니 호리라 이 말호는 거손 내가 편지로 너희를 놀내게 호는듯 혼죽 그
 면 호려 흠이니 대개 뉘 말이 그 편지는 중호고 힘이 있으나 되면 혼죽 그
 혼용이 약호고 말이 쇠 원치안타 호니 아련사름은 맞당히 성각할 거슬
 우리가 떠나 잇슬 때에 편지로 호는 말이 엊더 호면 흠새 잇슬 때에
 헝호는 것도 도호 그와 혼종을 노알나 드천호는 자가 잇느니 우리가 감히
 너희로 더 브려 짜호며 비교할수 업노라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서로 해아리고
 스스로 서로 비교하니 지혜가 업는 자로다 우리는 분량 밋케 드랑을 호지안코
 오직 하느님이 우리에 난화 덩호신 분량대로 호노니이 분량을 쌔라 너희가
 서지니르렀노라 우리 가 너희에 난화에니르지 못할자로 분량을 지나 너희가 나른
 거시 아니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호야 너희가 서지니르렀느니 우리 드랑호는
 거슨 우리 분량 밋케 뉘의 슈고를 드랑호는 거시 아니라 다만 너희 및 음이

점점점 다 호흡사록 우리의 한명 안에 직분이 너희 가온더셔 더욱 광대 호기를

트라노라 복음을 너희 디경 외에 전호되 능의 한명 안에 예비호 거스로
 드랑치 아니호리라 드랑호는 자는 맞당히 쥐로 드랑호저여다 대개 드천호는
 자는 밟으실 거시 아니오 이에 쥐새서 천거호시는 자라야 밟으실 거시나라
 원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거슬 용납호라 너희가 본령 나를 용납호
 옛느니라 내가 하느님의 열심파 혼열심으로 너희를 위호여노라 내가
 임의 너희를 혼지아비의 계중미호 옛노니 정결호동녀로 그리스도색 드리고
 져홀이로라 해와 가비암의 궤홀에 미혹된 것 드치 너희 모임이 변호야
 그리스도를 향호는 경성과 셋굿호 모임을 일하 브릴가 두려워호노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가서 우리가 전파호지 아니호 다른 예수를 전파호거나
 혹 너희가 밟지아니호 다른 신을 밟개 호거나 혹 너희가 밟지아니호
 복음을 밟개 호는 자는 너희가 잘 용납호는고나 내가 성각에는 저극 히크다호는
 수도 보다 내가 부족호 거시 조공도 업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줄호나 지
 식에는 그려치 아니호니 이 거슬 우리가 모든 사를 가온더셔 모든 일노

고린도 후 십일장

오 빛 팔십이

너희가 복히 나타내였노라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복음을 갑업시 전함으로
스스로 늦초고 너희를 높히는 거시 죄를 벌한 거시니 내가 탈취하듯 하여
다른 교회에서 료를 업은 거슨 너희 일을 헌려 험아 오^九 또 혼 내가 너희 중에
잇서 용도가 부족하되 혼사들의 배도루를 대치자 아니 힘은 형데가 마계도니아
로서 와서 나의 부족한 거슬 보조 힘아라 내가 모든 일에 스스로 조심하야
너희가 루됨이 업게 혼연거니와 또 혼 못 촘내 스스로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잇스니 나의 이 조랑궁는 거슬 아가아아 디방에서
막을 자가 업스리라 이 엉더 혼연 고뇨 내가 너희를 스랑하지 아니 힘이니
하느님이 아시는 내가 지금 힝하는 대로 후에도 힝하야 괴화를 찾는 자의 배
더 괴화를 쓸 코져 혼도니 이는 더희로 희여 곰 스스로 조랑하는 일에 우리와
다름이 업게 힘으로라 더련 사람들은 거죽 수도요 제홀을 힝하는
일군이니 스스로 변호야 외모로 그리스도의 수도인 혼니라 이 거시
괴이호 일이 아니라 사단도 스스로 변호야 광명흔 스자인 혼니
^{그린주 사단의 집수도 스스로 변호야 의의 집수인 혼는 거시 또 혼 괴이호}

고린도 후 십이장

오 빛 팔십 속

감하고 ^(二五) 또 세번 터장으로 맛고 혼번 돌노 맛고 세번 파션 ^호는 뒤 일쥬야를
깁흔 바다에서 지낫스며 ^(二六) 또 여러번 먼 길을 든닐 절에 강의 위험함과
도적의 위험함과 본국 사류의 위험함과 이방 사류의 위험함과 성안에서
위험함과 뷔들에서 위험함과 바다에서 위험함과 거죽 형데 가온되서
위험함을 당하고 ^(二七) 슈고 ^호며 ^(二八) 쓰고 여러번 자지못하고 주리며 목모르고
여러번 굽고 침고 헐버섯노라 ^(二九) 이 밋것 일 외에도 오히려 날마다 내 무음에
싸히노 일이 잇스니 곳 모든 교회를 위호야 넘려 ^호는 거시라 누가 약호면
내가 약호지 아니호며 누가 님의게 거리세면 ^(三〇) 내가 의로지 안려나 ^(三一) 내가
부득불 ^(三二) 조랑홀전대 나의 약호 거슬 조랑호리라 ^(三三) 쥬예수의 아바지 영원히
찬송홀 하는 님이 나의 거죽 말 아니호는 줄을 아시는니라 ^(三四) 내가 다메섹에
잇슬 ^(三五) 떠에 아례다 왕 아래 잇는 방빛이 나를 잡으라고 다메섹 성을 칙힐서
내가 광주리를 두고 들창문으로 성에 는려가 그 손에서 떠셔 낫노라
나의 조랑호는 거서 무익호나 부득불 ^(三六) 조랑호 노니 오직 쥬의 나라나 심파
무시 ^(三七) 흐심을 말호노라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사람 ^호나를 아노니 그사람이
삼신년 전에 잇쓸녀 삼층총련에 갖스니 그 떠에 몸 ^{안에} 잇섯는지 몸 밟개
잇섯는지 나는 모로거니와 하느님은 아시는니라 ^(三八) 내가 그사람이 잇쓸녀
락원에 간줄을 아나 몸안에 잇섯는지 몸을 쪘낫는지 모로거니와 ^(三九) 하느님은
아시도다 ^(四十) 그사람이 말도 흘수업는 말을 드렷스니 사람이 가히 닐 ^으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물을 위호야 ^(四一) 조랑호고 ^(四二) 조괴를 위호야 ^(四三) 조랑체
아니호나 다만 나의 여러 가지 약호 거슬 조랑호리라 ^(四四) 내가 만일 조랑호고
져호여도 어리썩은자가 되지아니호리니 대꺼 내가 촤된 말을 ^(四五) 호리라
그러나 사름이나를 보는 바와 내꺼 듯는 바에 ^(四六) 지나께 나를 중히 녁일가
두려워호야 그만두노라 내가 들키 흐심을 거시 심히 괴이함으로 스스로
스쟈요 나를 치는자라는 나로 흐여곰 스스로 교만호지안케 ^(四七) 흐심이니라
이거시 내꺼셔 죄나기를 내가 세번 쥬씨 ^(四八) 군구호였더니 ^(四九) 내꺼 닐 ^(五〇) 시기를
내은혜가 네께 족호니 대꺼 내 권능은 약호티셔 온전히 ^(五一) 일우어진다
흐신지라 이런고로 오히려 깃버서 나의 여러 가지 약호 거슬 조랑호노니

교린도 후 십이장

오 빅 팔십칠

이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거할 힘이라 그런 교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호야 여러 가지 약호 것과 능욕파 궁핍파 펠박파 곤고 당함을 깃벼호노니
대개 내가 약호 때에 곧 강호니라 ○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거손 너희가
역지로 식한 거시라 대개 너희가 맛당히 나를 천거호 거시 내가 아모
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 호는 수도 보다 부족호 거시 조공도 업느니라
나의 수도 된 표는 내가 너희가 온디 잇슬 때에 온갓 일을 촘으며 이적파
괴스와 권능을 힝호였노라 내가 너희계 를 세치지 아니호 일 밟케
너희계 다른 교회 보다 부족호 거시 무어서 잇느니 너희는 나의 이
공평처못호 거슬 용서호라 ○ 내가 이제 세번째 너희계 가기를 예비호고
너희계 를 세치지 아니호려 호노니 대개 내가 너희 저물을 구호지 아니
호고 너희를 구호노라 드녀가 부모를 위호야 저물을 썻는 거시 호 일이
아니오 이에 부모가 드녀를 위호야 호느니라 내가 너희 령혼을 위호야
깃발에 저물을 해비호고 힘도 다 해비호리니 너희를 더욱 스랑호스록
너희가 나를 멀 스랑호켓느니 고려나 내가 너희계 를 세치지 아니호고
누구로 말미 암아 너희계 저물을 채호였다 호니 내가 너희계 보낸자 종에
흔 형데를 보내였스니 데도가 너희계 저물을 채호더니 내가 데도를 훈호고 더와 흠색
성신으로 힝호지아니호더니 호자최로 힝호지아니호더니 ○ 이 때 서지
너희 성각에 우리가 스스로 너희계 말명호는 줄노 아는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남어 하느님 암해 말호 노라 스랑호는자들아 우리의 힝호는 거시다
너희의 덕을 세우기를 위호함이니라 내가 가셔 너희를 불째에 너희가 나의
원호는 것파 웃치 되지못호고 너희가 나를 불째에 도흔 내가 너희의
원치 아니호는 것파 웃치 될가 두려워호며 또 다른 것파 투과호는 것파
분노호는 것파 당짓는 것파 훼방호는 것파 숙은숙은호는 것파 거만호
것파 어지러운 거시 잇슬가 두려워호고 또 내가 다시 갈째에 내 하느님이
나를 너희 암해셔 늦초시고 또 내가 여러 사물이 일의 죄를 범호야
그 힝호 바더러온 것파 음란호 것파 방탕호 거슬 회기치아니호을 보고
근심이 될가 두려워호노라

내가 이제 세번째 너희께 말터이니 두세 종인의 일을 빙자하야 말마다
 결령호리라 내가 전에도 너희께 고호였거니와 지금 떠나 잇스나 두번째
 되면 호연슬 땐와 웃치 일즉이 범죄를 여려 사물과 그 늄은 사물의께 미리
 고호노니 내가 다시 가면 반드시 용서처 아니호리라 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종거를 너희가 구함이니며 가 너희를 향하야 약호지안코
 오히려 너희가 온티셔 강호시니라 그리스도가 비록 약호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느님의 권능으로 살으셨스니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호나 너희를 향하야 하느님의 권능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니라 너희가
 멋음에 있는가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슬피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줄을 너희가 스스로 아지못하였느냐 너희가 브린바 되지 아니
 헤였스면 알니라 우리가 브린바 되지 아니한 거슬 너희가 알기를 내가
 브라고 또호 우리가 하느님께 괴도하야 너희로 헤여 곰 악을 조곰도
 험치안케 헤시기를 구호노니이는 우리가 올흔자된 거슬 나타내고 저함이
 아니라 우리는 브린바 된 것 궂흘지라도 너희로 헤여 곰 선을 험하케
 우고 저함이라 대개 우리가 진리를 능히 거스리지 못하고 진리를 위호리니
 되기를 구호노라 이림으로 내가 죄나 잇슬 땐에 이러케 편지하는 거슬
 턱면 호면 쥬가 내게 주신 권세대로 엄호법을 쓰지 아니하고 저함이니 이
 권세는 너희를 패호하고 주신 거지 아니오 세우랴고 주셨느니라 ○
 형데들 아 내가 말을 뭇초 노니 평안호기를 브라노라 온전한 사물이 되며
 위로 흄을 밟으며 믿음을 웃치 헤며 화목할지어다 또호 솔랑함파 화목 흄을
 주시는 하느님이 너희와 흄씩 계시리라 거룩호제 임 맞종으로 서로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신의 감화 허심이 너희 무리의께 잇슬지어다

갈나되어

소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갈나되어

스도 바울의 스도 된 거슬 사롬의 채서 난 것도 아니오 사롬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와 멋 죽은 가온티셔 그리스도를 살니신 하는 님 아바자로 말미암은 채시라 뜻도 흠색 잇는 모든 형데가 말나되어 여러 교회에 편지 호노니 하느님 아바자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채서 난 은혜와 평강이 너희 채 잊을지어다 그리스도가 하느님 곧 우리 아바자 의 쫓을 쌔라이 악흔셰티에서 우리를 건지시라고 우리 죄를 위호야 몸을 드리셨느니 영광을 더의 채 영세로록 돌닐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이를 이곳 치속히 채나 빙반호교 다른 복음 쫓는 거슬 내가 이상히 녁이 노니 그 거슬 복음이 아니라 다만 엇던 사롬들이 너희를 요란케 헤야 그리스도의 복음을 뼠호 랴함이라 혹 우리나라 혹 하늘노 브리온 스자라도 우리가 너희 채 전호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밟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호 엿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호 노니 만일 너희가 밟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누구던지 전호면 저주를 밟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롬의 채 묘 채 헤랴 하느님 채 묘 채 헤랴 사롬의 채 깃불을 구호랴 내가 지금도 사롬의 채 깃브 채 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 나라○ 형데들 아 내가 너희 채 알 채 헤노니 내가 전호 복음이 사롬의 채 쫓을 쌔라 된 거시 아니라 대께 내가 사롬의 채 밟은 것도 아니오 누가 나를 쌔르친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뮤시로 말미암아 밟은 거시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에 잊을 때에 향호 일을 너희가 드렷 거니와 하느님의 교회를 심히 펫박 헤야 살해 헤고 내가 유대교를 본국 중에 나이 죽흔 여러 동류 보다 뛰여나게 헤야 조상의 유전을 더욱 열심으로 하느님이 깃보시 채 그 아들을 내 모임에 나타내사 이방에 전호 채 헤시기로 직혔느니 그려나내 어머니의 뒤로 브리 나를 퇴호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내가 꽃 혈육 잇는 자로 더브리 의론 헤지 아니 헤고 쌔 내가 예루살렘에 잇는 나보다 몬져 스도 된 자의 채로 가지 아니 헤고 아라비아로 갖다가 다시 다 예섹으로 도라 갖노라○ 그후 삼년 만에 내가 채바를 심방 헤랴고

갈나티아 이장

오백구십삼

예루살렘에 올나가서 흠띠 십오일을 류홀식 ^{十五} 속도 중 다른 이를 보지 못하고
 오직 주의 아오 야고보만 보았노라 너희께 편지 흠는 말이 하느님 암해 셔
 거죽 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니기아 디방에 나르렀느냐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 교회가 나를 얼굴도 아지 못하고 다만
 전에 패박 흠던 자가 그 때 잔해 흠던 도를 지금 전한다 흠을 듯고 나의
 연교로 영화를 하느님께 돌니더라

십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흠띠 딕도를 다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나
 갓노니 뮤시를 엉음으로 올나가 내가 이방 가온티셔 전파 흠는 복음을
 더희께 고호되 유명훈자 수인의께 손으로 히훈 거손 내가 지금 흠하는
 거시나 임의 흠호 거시 헛되지 안게 흠이라 나와 웃치 있는 딕도는 헬나
 사룸이라도 억지의 할례를 밟게 흠자 아니 흠스니 이는 그 만히 드려 오게
 흠 거죽 형데 선득이라 더희가 그 만히 드려온 거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유함을 엿보교 우리를 종으로 삼고 져 흠이로되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 흠은 복음의 진리가 흠상 너희 가온티 잇게 흠이라

그 종에 여간 유명훈 사룸은 본리 엇더훈 사룸이 던지 내께 상관이
 업는지라 하느님은 외모로 사룸을 쥐치 아니 흠시느니 더 유명훈 사룸들은
 대체 그르쳐준 거시 업고 도로 혀 내가 할례 밟지 아니 흠자의 배복음 져 흠을
 맛기를 베드로가 할례 밟은자의 배 전 흠기를 맛 흠파 웃치 흠 거슬 보고
 베드로의께 갈통 흠샤 할례 밟은자의 배 손도를 삼으신이가 섣헌 내께
 교회에서 기동 웃치 너이는 야고보와 흠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의 배 올 흠
 손을 주어 스피는 레를 흠하야 우리는 이방에 가기로 흠고 더희는 할례
 밟은자의 배 가기로 흠되 오직 우리로 간단히 사룸을 성각 흠께 흠니 이
 거슬 나도 본린 힘써 흠하랴 흠노라 ○ 흠바가 안되오에 나르렀을 때에
 척망 흠일이 잇기로 내가 면척 흠였도니 야고보의 보낸 두 어사 름이 나르기
 전에 흠바가 이방 사룸으로 더브러 먹다가 더희가 오매 그 가 할례 밟은자 를
 두려워 더희를 떠나 물너가 매 그 님은 유대인들도 더와 웃치 거죽
 착흔데 흠으로 바나바도 더희의 거죽 착흔데 흠는 일에 유혹 흠자라 내가

너희들이 복음의 전리를 써라 바로 헹^호지 아니^하니^하음을 보고 모든 사람 암해^져
 켜 바드려 날^으다^니 네가 유대인으로 이방을 쪽고 유대 풍속을 적히지 아니
 헹^먼져 엇지^하야 이방 사람으로 유대 풍속을 억지로 적히^게 헹^라는^나
^{우리}^는 본리 유대인^이오 이방 죄인^이 아니로^라 그러나 사람^이 률법의 일을
 아는^고로 우리^가 뜨^흔 그리스도 예수를 멋어서 그리스도를 멋음으로 의를 엊을 줄
 헹^함으로 의를 엊지^못하고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멋음으로 의를 엊을 줄
 아는^고로 우리^가 뜨^흔 그리스도 예수를 멋어서 그리스도를 멋음으로
 의를 엉^고져^하며^오 률법의 일을 헹^함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률법의
 일을 헹^함으로 의를 엊은 육데가 업^는니^라 말^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엇^으랴^하다가 죄인이 되면 그리스도가 죄를 짓^게 헹^는자^나 결단^코
 아니라^하 말^일 내가 헐^었던 거슬 다시 세우면 스스로 범법^흔자가 되^게
^하 헸^이니^내 내가 률법으로 말미암아 률법을 향^하야 죽^었는^니 이는 하^느님을
 향^하야 살^냐 헸^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험^씨 십^자가에 못박^혔는^니 그런즉
 내가 산 거시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거시라 이제 내가 육데
 가온^되 사는 거시 하^느님의 아들을 멋음으로 사는 거시니 그는 나를
 어리석은^갈나^티아 사를들^아 너희 눈 압해^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히신 거시^붉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썬^이더^니 내가 너희^께 다만
 이 거슬 알^냐 헹^노너 너희^가 률법의 일을 헹^함으로 성신을 밟^았는^나 복음을
 듯고 멋음으로 밟^았는^나 너희^가 이^고치 어리석^으냐 성신^으로 시작^한 옛^다가
 이제는 육데로 못초^겠는^나 너희^가 이^고치 말^후 피로^을 헷^되히
 밟^았는^나 엇지^파연 헷^되니^라 너희^께 성신^을 주^시고^도 너희^가 가온^되서
 이^적을 헹^{하시}는^이가 너희^가 률법의 일을 헹^함으로 헹^{하시}는^나 복음을
 듯고 멋음으로 헹^{하시}는^나 이^고치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멋^으매 그
 멋음^을 의로^명호^셨는^나라 그^런즉 멋음으로 말미암은^{자는} 아브라함^의
 아들^노 알^지어다^도 하^느님이^이 방 사람^을 멋음으로 말미암아^의로
 명호^실 거슬^성경^이 미리 알고^몬져 아브라함^의게 복음을 전^하야^닐으^되

갈나되어 삼장

오백구십칠

모든 이방이 너를 인호야 복을 밟으리라 흥엿스니 그린고로 멋음으로
 말미암은자는 멋음이 있는 아브라함파 흠색 복을 밟는나라 무릇 룰법의
 일 힝옴을 의지하는자는 져주호는 아래 있는니 괴록 흥엿스티 누구던지
 를 법칙에 괴록호대로 온갓 일을 흥상 흥자 아니호는자는 져주호는 아래
 있다 흥엿고 또 하느님 암해셔 아모나 룰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엊지못할
 거시 분명호니 이는 의 있는자가 멋음으로 말미암아 살니라 혼연고니라
 룰법은 멋음으로 말미암지 아니호니 곳 닐으되 그 일을 흥호는자는 그
 가온티셔 살니라 흥엿스니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호야 져주를 밟은 바 되샤
 를 법의 져주호는 가온티셔 우리를 속탕호션스니 괴록 흥엿스티 나무에
 돌닌쟈마다 져주호는 아래 있다 흥엿느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사름의 계 멋치게 흥고 또 우리로 흥여 품 멋음으로
 말미암아 허락호신 성신을 밟제 흠이니라 ○ 형데들아 사름의 풍속대로
 말호노니 사름의 약효라도 대호 후에는 아모나 폐우호지도 못호고 더호지도
 못호느니 대개 여러 허락은 아브라함파 그 조손의 계 말씀호신 거신티

여러 사름을 그르쳐 그 조손들이라 흥지 아니호시고 오직 혼사름을 그르쳐
 네조손이라 흥션스니 곳 그리스도라 내가 이 거슬 말호노니 하느님의
 미리 대호신 언약을 스빅삼십년 후에 세운 룰법이 업시호야 그 허락을 헛
 되게 흥지못호리라 만일 그 괴업이 룰법으로 말미암았스면 허락으로 주신
 말미암은 거시 아니라라 그러나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계 허락으로 주신
 거시라 그런즉 룰법은 무여세 쓰겠는냐 이는 범법함을 인호야 후에 베프러
 허락 받은 조손이 오시기를 기드린 거신티 수자들노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서 베프신 거시니 중보는 혼편만 위호자가 아니오 오직 하느님은
 호나이시니라 그러면 룰법이 하느님의 허락호신 거슬거스리는냐 결단코
 아니라 만일 능히 살게 흥는 룰법을 주셨더면 의가 반드시 룰법으로
 말미암았스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거슬죄 아래 가도았스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멋음으로 말미암은 허락을 멋둔자들의 계주라 흠이니라 ○
 멋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룰법 아래 미인바 되고 가처져 나타날 멋음을
 기드렸는니 이럼으로 룰법이 우리의 몽학선성이 되여 그리스도의 계로

이 왓스니 몽학선성 아래 잇지 아니 ^하리로다 ⁽³⁶⁾ 너희가 다 그리스도로
예수를 맞음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되였스니 ⁽³⁷⁾ 대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로
더보러 합흔자들은 그리스도를 웃닐듯 ⁽³⁸⁾ 헛였느니라 ⁽³⁹⁾ 너희는 유대 사람이나
헬나 사람이나 종이나 ⁽⁴⁰⁾ 조 ⁽⁴¹⁾ 쥬 ⁽⁴²⁾ 헤 ⁽⁴³⁾ 자나 남자나 ⁽⁴⁴⁾ 조업시다 ⁽⁴⁵⁾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⁴⁶⁾ 헛나이 된지라 ⁽⁴⁷⁾ 너희가 그리스도 ⁽⁴⁸⁾ 속흔자면 곳 아브라함의
조손이 오 ⁽⁴⁹⁾ 허락 ⁽⁵⁰⁾ 헌대로 ⁽⁵¹⁾ 괴업을 나을자니라

내가 또 말 ⁽⁵²⁾ 헛노니 괴업을 나을자가 모든 거세 죄인이 되였스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파다름이 ⁽⁵³⁾ 업서서 아바지의 데Hon 괴약 ⁽⁵⁴⁾ 서지 부탁 받은자와 집
맞흔자 아래 잇는니 ⁽⁵⁵⁾ 이와 ⁽⁵⁶⁾ 그치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적은 학문
아래 잇서서 종이 되였더니 ⁽⁵⁷⁾ 괴약이 ⁽⁵⁸⁾ 초매 ⁽⁵⁹⁾ 하느님이 그 아들을 보내시니
곳 ⁽⁶⁰⁾ 너희인의 새로 브터를 범 아래 나신 거순 ⁽⁶¹⁾ 를 범 아래 잇는자를 속량 ⁽⁶²⁾ 허시고
우리 무리로 아들의 명분을 엊개 ⁽⁶³⁾ 헛셨도다 ⁽⁶⁴⁾ 일의 아들이 되매 하느님이 그
아들의 선을 우리 모임 가운데 보내셨스니 부르지 쳐 몰아 ⁽⁶⁵⁾ 아바 ⁽⁶⁶⁾ 아바지라
하는지라 ⁽⁶⁷⁾ 그런교로 ⁽⁶⁸⁾ 네가 이 후로 종이 ⁽⁶⁹⁾ 아니 ⁽⁷⁰⁾ 오 ⁽⁷¹⁾ 아들 ⁽⁷²⁾ 아니 ⁽⁷³⁾ 아들이면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괴업을 ⁽⁷⁴⁾ 나을자니라 ○ 그러나 너희가 그 때에는 하느님을
아지 못하고 ⁽⁷⁵⁾ 본리 신이 아닌자들의 게 종이 되였더니 ⁽⁷⁶⁾ 너희가 이제는
하는님을 알뿐더러 하느님의 아신바 되였거늘 ⁽⁷⁷⁾ 엉지 ⁽⁷⁸⁾ 약 ⁽⁷⁹⁾ 허고 천홀
적은 학문으로 도라가서 다시 ⁽⁸⁰⁾ 너희게 종이 되랴 ⁽⁸¹⁾ 헛느냐 너희가 날파 들파
절괴와 히를 삼가 ⁽⁸²⁾ 적히니 ⁽⁸³⁾ 내가 너희를 위 ⁽⁸⁴⁾ 헛야 ⁽⁸⁵⁾ 슈교호 ⁽⁸⁶⁾ 거시 헛될가
두려워 ⁽⁸⁷⁾ 헛노라 ○ 형데 ⁽⁸⁸⁾ 들아 내가 너희와 ⁽⁸⁹⁾ 그치 되였는즉 너희도 나와 ⁽⁹⁰⁾ 그치
되기를 구 ⁽⁹¹⁾ 헛노니 너희가 내게 해롭게 ⁽⁹²⁾ 헛거시 업느니라 ⁽⁹³⁾ 너희도 알거니와
내가 처음에 몸에 병이 있는 ⁽⁹⁴⁾ 석류으로 너희게 ⁽⁹⁵⁾ 복음을 전 ⁽⁹⁶⁾ 헛게 되였는즉
본리지도 아니 ⁽⁹⁷⁾ 헛고 나를 터접 ⁽⁹⁸⁾ 헛기를 하는님의 소자와 ⁽⁹⁹⁾ 그치 ⁽¹⁰⁰⁾ 헛고 그리스도
예수와 ⁽¹⁰¹⁾ 그치 ⁽¹⁰²⁾ 헛었스니 너희의 이전 복이 지금 어 تعد 있는지도 아니 ⁽¹⁰³⁾ 헛며
증거 ⁽¹⁰⁴⁾ 헛노니 너희가 고 땨에 ⁽¹⁰⁵⁾ 헛수만 잇셨더면 ⁽¹⁰⁶⁾ 조괴의 눈이라도 빼여 ⁽¹⁰⁷⁾ 나를
주었스리라 ⁽¹⁰⁸⁾ 그런즉 내가 촘된 말을 ⁽¹⁰⁹⁾ 헛으로 너희 원슈가 되였는니 ⁽¹¹⁰⁾ 너희가

열심으로 너희를 터접하는 거시 데흔 뜻이 아니오 너희를 리간 붓쳐 너희
 열심으로 조괴를 터접하는 게 랴함이라 데흔 일에 터호야 열심으로
 터접함을 맛은 거시 언제던지 둔호니 내가 너희를 터호였을 때뿐 아니라
 나의 쇼조들아 그리스도가 너희 속에 형상이 일우기 서자 다시 너희를
 위호야 헌산하는 슈고를 헌노니 내가 너희 일에 의심이 있는고로 너희를
 터면 헌야 목소리를 곳치랴 헌노라 ○ 내게 말호라 률법 아래 잇고 십흔
 사람들아 률법을 듯지 못한였느냐 괴록한였스터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잇스나 헌나는 계집 종의 베서 난자는 유헤를 쟈라 난자요 조유호는 녀인의 베서
 난자는 허락으로 말미암아 난자라 이거슨 비유니 이녀인은 곳두
 헌역이라 헌나는 시내산에서 나서 종을 낫는자니 곳하가라 이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인즉 지금 예루살렘파 곳흔 되니 여가 그조식들노
 더브러 종이 되였고 오직 우에 있는 예루살렘은 조유호는니 곳우리
 어머니라 괴록한였스터

즐거워할지어다 성령도 못하고 헌산도 못하는자여 소림질녀 웨칠지어다
 헌산하는 슈고를 지나지 못하는자여 외로온자의 조식이 남편 있는자의
 조식보다 더욱 만로다

헌였스니 형데들아 우리는 이삭파 콧처 허락호신 조식이라 그째에
 육례를 쟈라 난자가 성신을 쟈라 난자를 팝박호더니 이제도 그려호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어술 말호는뇨 날넷스터 계집 종파 그 아들을 내여
 췄치라 계집 종의 아들이 조유호는 녀인의 아들노 더브러 괴업을
 엊지못호리라 헌였느니라 그컬주 형데들아 우리는 계집 종의 조식이
 아니오 조유호는 녀인의 조식이니라
 그리스도가 우리의 께조유호함을 주어 조유호게 헌셨스니 그런고로 꽃세계
 서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메지말나 ○ 드를지어다 나바울은 너희게
 말호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맛으면 그리스도가 너희 께유익함이
 업스리라 내가 할례를 맛는 각사람의 께 다시 종제호노니 그사람은
 온전한 률법을 맛당히 헝흘자라 률법으로 말미암아 의를 엊으랴호는

갈나티아 오장

류빛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배서 묻혀져 온해에 쟈여려 진쟈로다 ^五우리가 성신을 힘남어 멋는 모임으로 봄라는 의를 업기를 기드리노니 ^六대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잊어서는 할례 밟는 것도 유익함이 업고 아니 밟는 것도 또 헛 그러 헛되 오직 소랑으로 써 힝동는 멋음 쟁이니라 ^七너희가 전에는 다 람박질을 잘 헛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전리를 숀종처 안케 ^八헛더니 그 헌면이 너희를 부르신이의 배서 난 거시 아니라 적은 누룩이 원령이를 살히느니라 ^九나는 쥬를 힘남어 너희가 다른 모임을 품지 아니 흘줄을 김히 멋노니 너희를 요동케 헛는자는 누구던지 형벌을 밟으리라 ^十형데들아 내가 지금 선퇴 할례를 전파 헛면 엇지 헛야 ^{十一}지금 선퇴 ^{十二}핍박을 밟으라오 ^{十三}그리 헛였스면 십자가가 사람의 배 거리낌이 ^{十四}굿첫스리니 ^{十五}너희를 어지럽게 헛는자들이 부르셨느니 ^{十六}그러나 그 조유로써 육례의 괴회를 삼지 말고 ^{十七}오직 소랑함으로 서로 종이 되라 ^{十八}원 둘법은 일연이 폐지 헛고 ^{十九}네리 웃 소랑 헛기를 네 몸 ^{二十}처 헛라 ^{二十一}헛셨느니 ^{二十二}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초 멀망 헛리니 삼가 조심 헛라 ○

내가 ^{二十三}널 이 노니 너희는 ^{二十四}성신을 일우지 아니 헛리라 ^{二十五}대개 육례의 소욕은 ^{二十六}성신을 ^{二十七}죽자 헛라 ^{二十八}그리 헛면 ^{二十九}육례의 육심을 육례를 거스리느니 ^{三十}이 둘이 서로 터덕 헛야 ^{三十一}너희의 원하는 거슬 헛지 못 헛게 ^{三十二}호는 나라 ^{三十三}너희가 만일 성신의 인도 헛시는 바가 되면 ^{三十四}률법 아래 잊지 아니 헛리니 ^{三十五}대개 육례의 일은 ^{三十六}나타나느니 ^{三十七}못 음향과 더러온 것과 ^{三十八}호석 헛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과 술수와 원수를 멋는 것과 싸호는 것과 괴하는 것과 분노하는 것과 담을 짓는 것과 ^{三十九}이단과 ^{四十}투괴와 술 취하는 것과 방탕 ^{四十一}함과 ^{四十二}도 그와 ^{四十三}굿흔 것들이라 ^{四十四}전에도 너희에 경계 헛엿거니와 ^{四十五}지금 그와 ^{四十六}굿치 경계 헛노니 ^{四十七}이런 일을 헛하는자는 하느님 나라를 ^{四十八}유업으로 밟지 못 헛 거시오 ^{四十九}오직 성신의 열미는 소랑과 ^{五十}희락과 ^{五一}화평과 ^{五二}인내와 ^{五三}지비와 ^{五四}량선과 ^{五五}충성과 ^{五六}온유와 ^{五七}존절이니 이 굿흔 거슬 금지 헛법이 업느니라 ^{五八}그리스도 예수의 사물들은 그 육례를 십자가에 못박았느니 ^{五九}못 그 정파 육심 서지 헛엿느니라 ○ ^{六十}만일 우리가 성신을 힘남어 살면 ^{六一}둘 헛성신을 힘남어 헛흘자니 ^{六二}헛된 영화를 구 헛야 ^{六三}서로 노호개 헛고 ^{六四}서로 투괴 헛지 마스이다

갈나티아 류장

류벽신

형데들아 사름이 만일 범법^ホ다가 잡히거든 성선^{성선} 밟은 너희들은 온유^{온유}
 믿음으로써 그려 혼자를 바른 터로 인도^{인도}하고 뜨흔^{뜨흔} 조괴^{조괴}를 도라보아 너도
 시험을 밟을가 두려워^{두려워} 헤지^{하다}이다⁼ 너희가⁼ 쇠고를 서로 담당^{담당}하라 그리^{그리} 헤여야
 그리스도의 법을^{법을} 성취^{성취}하리라⁼ 만일 누구던지 되지^되 못^못하고 된줄노^{된줄노} 성각^{성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나니라⁼ 사름이 각각^{각각} 조괴의 일을^{일을} 슬퍼라^{슬퍼라} 그리^{그리} 헤면^면 조랑^{조랑}
 거시^{거시} 조괴의^의 계만^{계만} 잊고^{잊고} 뉘의^의 배는^{배는} 잊지^{잊지} 아니^{아니} 헤리니^니 각각^{각각} 조괴의^의 점을
 질지^{질지} 나라○^{도의} 그르침을^{그르침을} 밟는자는^{자는} 그르치는자의^의 계 모든^{모든} 료흔^{료흔} 거스로
 는화^{는화} 줄지^{줄지} 어다⁼ 스스로 속이^지 말나^하하는^는 남은^{남은} 만홀^{만홀} 헤녀^녀 임을^{임을} 밟지^{밟지} 아니^{아니} 헤시^시느니^{느니}
 사^사 름의^의 심은^은 거^거 슨^는 무어^어 서^서 던지^{던지} 그대로^{그대로} 거^거 두^두 리^리 라^라 조^조 괴^괴의^의 유태^{유태}에^에 심^심으^으 는^는 자는^{자는}
 유태^{유태}로^로 말미^{말미} 암^암아^아 썩어^어 진^진 거^거 슬^슬 거^거 두^두 교^교 성^성 선^선에^에 심^심으^으 는^는 자는^{자는} 성^성 선^선으로
 말미^{말미} 암^암아^아 영^영 성^성 을^을 거^거 두^두 리^리 라^라 선^선을^을 힝^힝 희^희 다^가 락^락 심^심 헤^지 말^말 지^지 나^나 계^계 으^으 르^르 지^지 아^아
 니^니 헤^면 때^가 니^르 매^매 거^거 두^두 리^리 라^라 그^그 련^고 괴^괴 회^회 가^가 잊^잇 는^는 대^로 뭇^뭉 사^사 름^{ーム} 의^의 계^계
 착^착 흔^흔 일^일 을^을 힝^힝 희^희 되^되 특^특 별^별 헤^교 회^회 의^의 멋^멋 는^는 자^자 들^들 의^의 계^계 더^더 육^육 헤^수 스^스 이^이 다^다○[○] 내^내 손^손 으^으 로^로
 너희 ^{너희} 계^계 이^이 러^러 채^채 큰^큰 글^글 드^드로^로 편^편 지^지 쓴^쓴 거^거 슬^슬 보^라 무^무 륷^롯 육^육 태^태 의^의 모^모 양^양 을^을 내^내 랴^랴 헤^는
 사람들^{사람들} 이^이 억^억 지^지로^로 너희 ^{너희} 를^를 할^할 려^려 빛^빛 배^배 흥^흥 누^누 니^니 이^는 여^여 희^희 가^가 그^그 리^리 스^스 도^도 의^의
 십^십 조^조 가^가 를^를 인^인 헤^야 펌^팜 박^박 밟^밟 음^음 을^을 면^면 헤^랴 래^랴 흠^흠 이^라 할^할 려^려 빛^빛 은^은 대^대 헤^여 희^희 라^라 도^도 스^스 로^로
 률^률 법^법 은^은 직^직 헤^지 아^니 헤^지 고^고 오^오 직^직 너희 ^{너희} 를^를 할^할 려^려 빛^빛 배^배 흥^흥 려^려 흥^흥 거^거 슨^는 너희 ^{너희}의^의
 유태^{유태}로^로 말미^{말미} 암^암아^아 조^조 랑^랑 헤^려 흠^흠 이^라 그^그 러^러 나^나 대^대 헤^여 우^우 직^직 우리 ^{우리} 쥬^쥬 예수^{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 의^의 십^십 조^조 가^가 밟^밟 게^게 조^조 랑^랑 헤^려 거^거 시^시 결^결 단^단 코^코 업^업 스^스 니^니 그리스도^{그리스도}로^로 말미^{말미} 암^암아^아
 세^세 상^상 이^나 를^를 향^향 헤^야 십^십 조^조 가^가 에^에 못^박 헤^히 고^고 내^가 세^세 상^상 을^을 향^향 헤^야 조^조 랑^랑 헤^려 흠^흠 거^거 헤^지 오^오 직^직
 대^대 개^개 할^할 려^려 빛^빛 음^음 도^도 유^유 익^익 흠^흠 이^라 업^업 고^고 밟^밟 지^지 아니^{아니} 흠^흠 도^도 헤^지 그^그 러^러 헤^지 오^오 직^직
 새로^{새로} 지^지 으^으 신^신 자^자 뿐^뿐 이^나 리^리 이^이 규^규 력^력 를^를 준^준 힝^힝 낭^낭 는^는 자^자 의^의 계^계 평^평 강^강 과^과 긍^긍 흠^흡 이^이 잊^잇 고^고
 하^하느^느 님^님 의^의 이^이 스^스 라^라 엘^엘 의^의 계^계 도^도 헤^지 그^그 려^려 헤^지 아^아 후^후로^로 브^브 터^터 누^누 구^구 던^던 지^지 나^나 를^를
 꾀^꾀 름^{ーム} 배^배 말^말 나^나 내^내 몸^몸 에^에 예^예 수^수 의^의 인^인 친^친 흔^흔 적^적 을^을 지^지 고^고 가^가 노^노 라^라○[○] 형^형 데^데 들^들 아^아
 원^원 전^전 대^대 우^우 리^리 쥬^쥬 예수^{예수} 그^그 리^리 스^스 도^도 의^의 은^은 혜^혜 가^가 너희 ^{너희} 믿^믿 음^음에^에 잊^잇 슬^슬 지^지 어다^다 아^멘

에베소

소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

하느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손도 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여러 성도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의 편지 헌노니 우리 아버지 하느님과 쥬 예수 그리스도로 좁차은 혈과 평강이 너희에게 잇슬지어다 ○ 찬송 허리로다 하느님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여 그가 우리로 헌여 곰 그리스도를 인허야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에서 맛끼 헌션스니 이는 세상을 창조 헌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털 헌샤 스랑함으로 그 암해셔 거룩 헌교 흠이 업제 헌시고 그 깃브신 뜻대로 우리를 미리 작명 헌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아들을 삼으션스니 그 스랑 헌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의 헌후 헌제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 헌제 헌라는 거시라 우린 그리스도 안에 잇서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 흠을 맛으니 이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드리라 죄사 흠을 엊은 거시라 이 은혜는 하느님이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의 헌 더 헌샤 우리로 헌여 곰 그 뜻의 오묘한

거슬 알게 헌션스니 이는 곳 그 깃브신 뜻대로 헌샤 그리스도로 인허야 미리 작명 헌선 거시니 피약이 출 땨에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 통일 헌제 헌라함이라 하늘에 잇는 거시나 싸에 잇는 거시나 다 그려 헌것고 모든 일을 그 믿음의 원대로 헌 헌시는 자가 그 뜻을 드리라 미리 우리를 작명 헌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괴업이 되게 헌션스니 이는 그리스도를 몬져 빙라고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드렸는니 이는 너희를 구원한 복음이라 그리스도를 잇은 후에 그 허락 헌신 성신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밟았스니 곳 우리가 영광을 찬미 헌제 헌심이라 ○ 그런고로 너희 가온더 쥬 예수를 믿음파 모든 성도를 소랑함을 나도 듯고 너희를 위 헌야 감사 헌기를 마지아니 헌고 내가 괴도 헌 땐에 너희를 말 헌노니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의 하느님 영화로온 아바지 쥬 지혜와 무시의 신을 너희에게 주샤 너희로 헌여 곰 하느님을 알게 헌시고 또 너희 믿음의 눈을 봄히사 그 부르심을 님에

소망이 업더호 것과 성도로 고업을 삼으신 그 영화의 풍성함이 업더호
 것과 또 하느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있는 우리의 계 업더호 거슬 알베
 호시기를 구호노니 이 권능은 크게 힘써 힝호시는바 되여 이 거스로
 그리스도를 죽은 가온더셔 다시 살나사 하늘에서 조괴의 올흔 편에 암치샤
 모든 정신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호는 것과 빛이 세상 뿐아니라 오는
 세상션자라도 모든 부르는 일호 우에 뛰여나게 호시고 또 만물이 그 발
 아래 북종호게 호시고 만물 우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스니 교회는 곳 그
 몸이라 이는 만물에 충만호신 주의 충만호 거시 되였느니라
 너희가 허물파죄로 죽었던자라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온더셔 힝호야 이
 세상 풍속을 웃차 공중의 권세 잡은자를 쓰르니 이 권세 잡은자는 순종치
 아니호는 자 속에 지금 일호는 신이라 우리도 다 일죽이 그 가온더셔 우리
 유톤의 육심을 쓰라지내며 유톤와 믿음의 원호는 거슬 힝호야 다른사람과
 웃치 본리 진노 밟을 듯식이 되였스니 궁홀호함에 풍성호신 하느님이 우리를
 스랑호신 그 큰 스랑을 인호야 범죄호함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살나섯스니 너희가 은혜를 인호야 구원을 업들은 거시라 또 힘세 나근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힘세 하늘에 암치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베프신 인호심으로 써 그 은혜의 크게 풍성호 거슬 오고
 오는 여러 세계션자 나타내심이라 대개 너희가 은혜를 인호야 빛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업었느니 이는 너희께서 난거시 아니오 하느님의
 선물이라 힝호으로 말미암은 거시 아니니 누구던지 조랑치못놓게 힝호이라
 우리는 하느님의 문드신 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샤 선호 일을
 힝호제호려호션스니 이 일은 하느님이 예비호샤 우리로 힝여 꿈그 가온더셔
 너희를 무할례당이라 흐엿슨즉 그 때에 너희는 성각호라 유톤로 말호면 너희가
 이스라엘 나라 밧제 사물이라 허락호신 여러 연약에 터호야 의인이 오
 세상에 처호야 소망이 입고 또 하느님도 업섯더니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잇슨즉 전에 멀니 잇던 너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갖가와 젓는자라

그 ¹⁴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 되여 둘노 ¹⁵하나를 문드샤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¹⁵조괴 육데로 써 둘이 원슈 되었던 거슬 폐호시니 곳 전례로 ¹⁶느려
 오는 계명의 률법이라 이 들노 조괴의 안에서 혼새사름을 저여 화평호에
 흐시고 ¹⁶또 ¹⁷십자가로 써 둘을 헌합¹⁸하야 혼몸을 문드샤 하느님으로 더 브러
 화목 흐게 ¹⁸하려 ¹⁹하사 원슈된 거슬 그 십자가로 쇼멸²⁰하시고 ¹⁸또 ¹⁹어서서
 복음을 전 ²¹하사 너희면티 사롭과 갖가운티 사롭의 계화평음을 베프신지라
 대개 ²²더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혼성신을 힘남여 아바지썩로 드러가게
 되였스니 ²³그런고로 이제 브터 너희가 와인도 아니오 손도 아니오 오직
 성도들과 ²⁴곳흔 나라 사롭이 오 ²⁵또 하느님의 헌속이라 너희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우에 세우신 바니 그리스도 예수가 천히 모동이 돌이 되신지라
 세우신 ²⁶것마다 서로 련합²⁷하야 주안에서 성면이 되여 가매 너희도 더의
 안에서 흠색지으심을 밟아 하느님이 성신으로 거호실 집이 되였느니라
 이려 흠으로 나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노 너희 이방사들을 위호야
 갓첫 노라 너희도 드렷거니와 하느님이 너희를 위호야 은혜를 베프샤 내개

적분을 맛기시되 ²⁸무시로 써 ²⁹내게 오묘한 거슬 알게 ³⁰하신 거순 ³¹내가 임의
 대강 ³²괴록³³흔대로 된 거시니 ³⁴너희가 이 거슬 넓여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오묘한 거슬 셋드론줄 알니라 이 오묘한 거순이 전세티 사롭의 조손들의 계
 나타내지 아니 ³⁵흐엿더니 이제 거룩한 수도들과 선지자들의 계 성신으로
 나타내셨스니 그 오묘한 뜻은 이방사들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와 흠색과업을 엊고 우리와 흠색 몸의 지례가 되고 우리와
 흠색 허락에 참예³⁶하는자가 되는 거시라 하느님의 능력이 힝호시는대로
 주신 은혜를 힘남여 내가 복음의 접수가 되였스니 ³⁷나는 모든 성도
 중에 ³⁸지극히 절은자보다 더 절은자로 되 이 은혜를 주사 측량할수 업는
 그리스도의 풍부한 거슬 이방사롭의 계 전³⁹우⁴⁰제 흐시고 모든 사롭으로
 흠색⁴¹오묘한 리처의 적분을 알게 ⁴²옹⁴³셨스니 ⁴⁴이 거순 만세 전 브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속에 ⁴⁵곰초인 거시라 이로 써 이제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⁴⁶나 잡은자들과 ⁴⁷권세 ⁴⁸초지⁴⁹흔자들의 계 하느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⁵⁰하려 ⁵¹하셨스니 이는 만세 전 브터 뎅⁵²하신 뜻대로 우리 쥬

예배소 삼장

류별복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우에 흑선 거시라 우리 가 그 안에서 그를
 빛음으로 말미암아 장담코 당당히 하느님 암해 드려 갖는니라 그런고로
 너희께 구호노니 내가 너희를 위호야 여러 환란을 밟는 거슬 겁내지 말나
 이거슨 너희의 영화니라 ○ 이를 인호야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여러
 족속의 부모 아버지라 호는 일흔을 주신 아버지 암해 무릅을 물고 비노니
 월전대 그 영광의 풍성훈대로 그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 속 사물의 제
 권능을 주어 강건호 개호 샤 그리스도로 흥여 곰빛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에 계시게 흥읍시고 이곳치 너희가 스랑호는 가온더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로 더 브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스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기와 깊흔 거슬 세드라 하느님의 모든
 총만호신 거스로 너희께 총만호 개호 읍쇼셔 ○ 월전대 우리 가온더셔
 흥호시는 능력대로 우리가온갖 구호는 거시나 성각호는 거시나 넘치도록
 능히 흥호실이의 제교회 가온더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더의 제
 디더로 영원무궁도록 도라갈지어다 아멘

그런고로 쥬를 위호야 갓친 내가 너희를 권호노니 너희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호 개팅호야 모든 겸손함파 온유 호으로써 흥호며
 스랑호는 가온더셔 서로 용서하고 화평으로 련합호 중에서 성신이 흥나
 되게 흥신 거슬 힘써 직허라 몸도 흥나이오 성신도 흥나이니 이와 곳치
 너희가 부르심을 납은 부름의 소망도 흥나이라 쥬도 흥나이오 빛음도
 흥나이오 세례도 흥나이오 하느님도 흥나이시니 곳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우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호시고 만유 가온더 제시도다 우리 각
 사물의 개 그리스도의 주신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니 그런고로 널으기를
 그가 우으로 올나가실 때에 사로잡힌자를 사로잡고 사물들을의 개
 선물을 주셨다

흐엿도 다임의 우으로 올나가셨다 흥엿손즉 짜 아래 곳으로 누리셨던
 거시 아니냐 누리셨던자는 곳 모든 하늘우에 오르신자니 이거슨 만물을
 충만케 흑려호심이니라 더가 주시더 혹은 수도가 되게 흥시고 혹은
 선지자가 되게 흥시고 혹은 복음 전하는자가 되게 흥시고 혹은 목소와

교수가 되게 헌사 성도를 온전케 하며 교회의 일을 헌제 헌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랴 헌심이라 우리가 다하는 님의 아들을 맛는 것과 아는 일에
 헌나이 되여 온전한 사물을 일우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더니지 나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 보려 어린 이희가 되지 아니 헌야 사람의
 체술과 간사한 죄임에 빠져 모든 교의 소망을 쓰라 요동 헌야 불녀가는
 것고치 헌지 아니 헌제 헌이라 오직 소랑하는 가온더 촘된 거슬 말 헌야
 범스에 점점 자라 더의 케션자니를 지라 더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더로 말미암아 원몸이 일찍 마되어 도음을 낭음으로 련락하고 상합 헌야
 그자례가 각각 분량대로 알 헌야 그 몸을 자라 케 헌야 소랑으로 써 스스로
 세우는니라 ○ 그런 꼴로 내가 말호며 주의 안에서 이 거슬 너희 케 중 거승노니
 너희가 이제 브터는 이방 사물과 고치 그 믿음의 허망한 거슬 품에
 헌 헌지 말나 ○ 그려 총명이 어둠고 그려 믿음이 궂어져서 저희 가온더 있는
 무지호 거스로 말미암아 하느님이 주신 성명을 살펴 보렷도다 ○ 그려가
 봇그려 위험줄을 아지 못하고 그 몸을 방탕한 가온더 봇쳐 모든 더려온
 거슬 육심으로 헌 헌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거시 이 끊지 아니
 헌나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대로 너희가 더의 케 듯고 그 가온더 쇄
 그물침을 밟았는즉 그려치 아니 헌리라 ○ 이에 너희 구습을 의론컨대 넷
 사물을 벼셔 브리라 이는 죄이는 육심을 쓰라 써어져 가는자니라 너희
 믿음의 신을 새롭게 헌야 ○ 새 사물을 넘으라 이는 하느님을 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써 저으심을 밟은자라 ○ 그려 즉 거죽 말을 브리고
 각각 그리웃으로 더 브러 촘된 말을 헌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례가 된
 선숙이니라 문을 내여도 죄를 범하지 말며 하지도록 문을 품지 말고 마귀로
 힘드려 손으로 선호 성업을 헌라 그리하면 빙궁궁을 자의 케 구제할 거시
 잇스리라 ○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터 소용 되는 대로 선호 말을 헌야 듯는자들의 케 은혜를 세치라 하느님의
 성신을 근심하게 헌지 말나 ○ 이 성신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인치심을 밟아
 구속하는 날까지 나르리라 너희는 모든 악독한 것과 노호는 것과 분내는

五

것파 뼈드는 것파 비방하는 것파 멧 모든 혐의도 묻혀 봄리고 서로
 인자 헤 죠며 불상히 녀이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는 남이 그리스도를
 인호야 너희를 용서하심과 끝치 헤라 그린고로 스랑하심을 넘은 조녀 끝치 너희는 하느님을 본받고 그리스도가
 너희를 스랑하심과 끝치 너희도 스랑하는 가온더서 향하라 더는 우리를
 위호야 몸을 봄리샤 제물과 성축이 되여 향내 나는 제스를 하느님째
 드리셨느니라 음힐과 온갖 더러운 것파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일홈아라도
 부르지 말나 이는 성도의 맛당호 바니라 루추호 말파 망녕된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맛당치 아니하니 도리켜 감사하는 말을 헤라 너희도 명명히
 알거나와 음힐하는자나 더러운자나 탐하는자나 다 그리스도와 하느님의
 괴업을 엿지 못하리니 탐하는자가 곳 우상을 섬기는자라 너희는 사롭의
 헛된 말에 속지 말나 이런 일을 인호야 하느님의 전노하심이 숀종치 아니
 흐는자의게 림호니 그린고로 너희와 험씨 참예 헤지 말나 너희가 본린
 어둠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처 되였느니 빛 있는자 처럼 향하라
 빛의 열미는 모든 착한 것파의로온 것파 진실한 가온더 있는 개시니
 주의 깃비 헤시는 개시 무어신가 슬퍼 보라 너희가 열미 업는 어두은 일에
 참예 헤지 말고 도리켜 칙망할지니 너희의 숨어 향하는 거슬 말만 헤여도
 붓그러오니라 모든 일이 칙망을 밟을 때에 빛초로 말미암아 나타나는니
 나타나는 모든 거시 빛처 되느니라 그린고로 널으 시기를 잠자는자여
 씨여서 죽은 가온더서 나려나라 그리스도가 네게 빛최사리라 헤션느니라 ○
 그린즉 너희가 엉더케 힝흘 거슬 삼가 성각호야 지혜 업는자와 끝치
 헤지 말고 오직 지혜잇는자와 끝치 힝호야 광음을 앗기라 이 때가 악하니라
 그린고로 어리석은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어신가 알아 보라
 술 취하지 말지어다 이는 곳 방탕한 거시니 오직 성의 충만함을 맛아서
 서와 찬미와 신령호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입으로 부르며 무용으로
 쥬씨 차송하고 범스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홈으로 흥상 아바자
 하느님씨 감사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초 숀복하라 ○ 지어미 보자여
 지아비의 세 숀복호기를 쥬씨 숀복호듯하라 대개 지아비가 지어미의 머리가

에베소 오장

루백십팔

됨이 되호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됨파 뜻하니 그가 천히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색 슐복호^(四) 뜻치 지어미들도 범스에 지아비의 배
 슐복흘지니라 ^(五) 저아비 된쟈여 지어미 스랑흐기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스랑흐샤 위흐야 몸을 브리심 뜻치 호라 이는 곳 물노 셋는 것 뜻치
 말슴으로써 써 쟁긋흐게 흐샤 거룩흐게 흐시고 ^(六) 조괴 암해 영화로온 교회로
 세우샤 티나 주름 잡힌 거시나 이런 것들이 업시 거룩흐고 흠이 업케
 허려흐심이니라 맛당히 이와 뜻치 지아비들은 그 지어미 스랑흐기를 제
 몸 뜻치 흘지니 지어미를 스랑흐는 거시 뜻제 몸을 스랑흐는 거시라
 본리 제 몸을 뛰워흐는자가 흘나도 업고 이에 양육흐야 보호흐기를 제
 그리스도가 교회를 보양흐파 뜻치호니 우리는 곳 그 몸의 지혜라
 되느니 이 오묘한 거시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멋 교회를 그르쳐 말흐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조과의 지어미 스랑흐기를 조괴의 몸 뜻치 흘고
 지어미도 그 자아비를 경와흘지 어다

○ 너희들아 너희가 가족 안에서 부모를 슐종흐라 이 거시을흐니라 네 아바지와
 어머니를 공경흐라 이 거시 허락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짜에서 장슈흐리라 아비 된쟈여 너희 조식을 노엽게 흐지말고 오직 죄의
 경비와 교훈으로 써 양육흐라 ○ 종 된쟈여 너희는 두려워흐고 셀며
 신실호 모임으로 육례의 상면의 배 복종흐기를 그리스도색 복종흐듯 흐야
 눈마림만 흥야 사물의 배 깃불을 쬐흐는자 뜻치 흐지말나 각사람이 무숨션흔
 종파 뜻치 모임을 다흐야 하느님의 솟을 힝흐라 둔 모임으로 섬기기를
 쥬를 섬김파 뜻치 흐고 사물을 섬김파 뜻치 흐지말나 각사람이 무숨션흔
 일을 힝흐던지 종이나 조유흐는자나 죽의 배 그대로 밧을줄을 알지 나라
 상면이 하늘에 계서서 외모로 사물을 쬐치아니 흐시는줄을 알지 어다 ○
 이제 브러 너희가 죠 안에서 그 능력의 궂센 거슬 엉어 강건흐여 지고
 하는님의 전선갑쥬를 닙고 능히 서서 마귀의 궤계를 터역흐라 우리의
 씨름하는 거슨 혈육을 터역흐는 거시 아니오 정스와 원세와 어두운 터셔

에베소 류장

류벽이십일

세상을 주관하는 자와 공중에 있는 악한 신을 뒤덮으니라 그려고 하느님의
 전신 갑주를 채우라 너희가 이로 써 악한 날에 능히 견디고 모든 일을
 일운 후에 서리라 그런즉 서서 진실한 거스로 허리띠를 끼고 의의 호심경을
 붓치고 화평호복음의 예비호거스로 신을 신고 그 중에 멋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쇼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신의 검을
 채울지어다 이 검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모든 괴도함과 군구함으로 써
 무사로 성신을 힘남여 괴도하고 광성 것세여 구궁기를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호야 군절히 구호고 또 나를 이호야 구호 거슨 곳 나로 호여 곰 입을
 벼려 굿세히 말호야 복음의 오묘한 거슬 나타내게 호음쇼셔 할 거시니
 내가 복음의 소신이 되여 쇠사슬에 미었스나 나로 호여 곰 복음 전하는
 일에 당연히 말할 거슬 굿세히 말호게 훌지어다 ○ 나의 소정이 엇더호
 거슬 너희께 알게 흉려호노니 스랑함을 밟은 형데 두기고는 죠의 전실호
 집스라 그가 모든 일을 너희께 알게 흉리라 내가 특별히 보내여 너희
 흉여 곰 우리 소정을 알게 하고 또 너희 몸임도 위로호게 호노라 ○ 아버지

하느님과 쥬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청대의 계평안과 스랑파 및음을 주시고
 우리 쥬예수 그리스도를 스랑하는 모임이 변치않는자의 계은혜가
 잇슬지어다

하느님과 쥬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청대의 계평안과 스랑파 및음을 주시고
 우리 쥬예수 그리스도를 스랑하는 모임이 변치않는자의 계은혜가
 잇슬지어다

별남보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류 빅 이 썹 이

별념보
일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티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멧 갈루들과 집스들의 게 편지호노니 우리 아바지 하느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게 잊을지어다 ○ 내가 민양 너희를 성각할때에 나의 하느님께 감사호며 미양 고구할때에 너희 무리를 위호야 깃름으로 흥양 고구함은 첫날부터 이제서지 복음을 전호는 터 너희가 참예함이니 너희 속에 착훈 일을 시작호신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설지 그 일을 일우실줄을 우리가 김히 멧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호야 이와 조치성각호는 거시 맞당호나이는 너희가 내 믿음에 있는지라 내가 미임을 당호는 것과 복음을 발명호고 증거호는 일에 너희가 다나와 조치온혜를 밝았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엇더 케 성각호는지 하느님이 증거호시는지라 내 괴도호는 거슨 너희 스랑함이 자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호개 흥사 너희로 흥여공

제국 헤 선호 거슬 분별호개 흥시 교 쪼 순전호야 헤물 암부시 그리스도의 날설자 나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미를 그득케 흥야 하는님을 영화롭게 흥고 찬송호개 흥여주시기를 구호노라 ○ 형데들아 내가 맛난 일이 도로 헤 복음 전호는 터 전보가 될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호노라 이리 흥으로 내가 미임을 당호 거슨 원시위티와 그 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위호인줄을 분명히 알고 죠안에 형데들이 태반이나 나의 미임 당함을 보고 궂세게 겁업시 하느님의 말씀전호기를 더욱 담대케 흥느니라 투고와 분정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흥는이도 잊고 착훈 뜻으로 흥는이도 있느니 이 사람은 복음을 말령호라고 나를 세우신 거슬아는교로 스랑함으로 흥고 더 사람은 나의 미임 당함을 더 괴롭게 헤려호야 다통과 정성 되지아닌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 흥느니라 그런즉 업더 흥리오 외모로 흥나 촘 믿음으로 흥나 무론 업더 흥던지 전파 흥는바는 그리스도니이로 써 내가 즐거워하고 또 흥 즐거워호리라 대개이 거시 너희 고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이 도으심으로 내 구원함에 유익함이 되는줄 알고

내가

근절히 기드리고 브라는 거손 일만 일에 붓그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파 끼치 이제도 온전히 담대 허야 살던지 죽던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로

하여 곰존귀케 허려함이라 내게 사는 거시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

되느 나라 만일 육신으로 사는 거시 내 일의 열미가 될진대 무어슬

갈힐년지 아지못 허리니 대개 내가 그 두 손에 세엇스니 원천대여나셔

그리스도와 흠씨 잇는 거시 더욱 도흐나 그려나 내가 육신에 거는 거시

너희께 더 요긴 허리라 이거슬 김히 멋는고로 내가 살아잇고 너희 무리로

더브러 혼가자로 거허야 너희로 허여 곰밋음이 더호고 멋음을 인허야

즐겁게 훌줄을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끼치 잇슴으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조랑哄이 나를 인허야 더호리라 오직 너희 헝실이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 허게 허라 내가 너희를 가보나 멀나 잇서 너희 일을 드르나

너희가 일심으로 굿게 서서 훈뜻으로 복음의 도를 위허야 힘쓰는 거슬

알녀 허노니 모든 일에 터덕 허는자를 두려워 허지 말나 이거시 너희께는

멸망을 빙거요 너희께는 구원을 엊은 빙거니 이는 하느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대개 너희가 은혜를 밟아 그리스도를 위허야 헝흘 거손다 만 멋을 뿐아니라

더를 위허야 괴로움도 밟을지니라 너희께도 싸흘아 잇스니 너희가

그럼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숨 권함이 잇스며 사랑에 무숨 위로함이

잇스며 성신에 무숨 사귐이 잇스며 무숨 어진 무음과 불상히녀임이 잇거든

흔 무음과 흔 뜻으로써 무음을 끼치 허고 사랑을 끼치 허야 나의 즐거움을

일우 허 허라 아모 일에 던져 달롬이나 험된 영화로 허지 말고 오직 첨손흔

무음으로 각각 뉘을 조괴 보다 낫게 녁이라 너희는 각각 조괴 일 만

도라보지 말고 각각 다른 사귐의 일도 도라불지이다 너희는 이 무음을

품으라 곳 그리스도 예수의 무음이니 더는 근본 하느님의 사귐의 모양이 잇스나

하는 남과 동등됨을 쥐흘 거스로 녁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조괴 몸을 뷔여

종의 형상을 취허야 사귐의 형태를 일우 엇스니 암의 사귐의 모양이 잇스매

조괴를 누초시고 죽기 선지 복종 험션스니 곳십 조가에 죽으심이라 그럼으로

하느님이 높히 올나사 모든 일홈 우에 뛰여난 일홈을 주샤 무릇 하늘에

잇는자와 땅에 잇는자와 땅 아래 잇는자로 흥여 곰다 예수의 일홍을 듯고
무릎을 꿀게 흥시고 모든 입으로 흥여 곰 예수 그리스도가 죄된다고 흥야
하는님 아바지씨 영화를 돌니게 흥셨느니라 ○ 이럼으로 나의 스랑하는자들아
너희가 임의 복종 흥였느니나 잇슬 때뿐 아니라 더욱 이제 나 업슬 때에도
두렵고 셀님으로 너희 구원을 일우라 대개 너희 안에서 흥호시는이는
하느님이시니 너희 원하고 흥하는 거슬 조각 깃브신 췄대로 흥배 흥시느니
모든 일에 원망과 사비가 업시 흥호라 그리 흥여야 너희가 척망할 거시
업고 슐전 흥야 어그러자고 거스리는 세티 가온티 잇서 하느님의 흄 업는
조녀가 되여 계상에서 사룸의 베 벳츠로 나타내며 성명의 말씀을 봄혀
나로 흥여 곰 그리스도의 날에 나의 흄 흄도 헛되지 아니하고 슈고도 헛
되지 아니 흄으로 조랑홀 거시 잇게 흥이라 만일 너희 맛음으로 제물을
삼아 드릴 것 흄으면 나는 피를 흘녀 그 우에 부을지라도 깃버 흄고 너희
무리와 흄띠 깃버 흥리니 이와 깃치 너희도 깃버 흄고 나와 흄띠 깃버 흄라 ○
내가 쥬 예수 안에서 블라는 거슬 터 모데를 속히 너희께 보내여 나로

三

그리스도의 일을 위호야 죽기에니 르러도 조괴 목숨을 도라보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치우려 헛되는 나라
 또 말흘거시 잇스니 쥬안에서 깃버 허라 너희께 전말파 그치 또 써서
 보내는 거시 내께는 슈고로움이 업고 너희께는 궂게 흠 아니라 께들을
 삼가고 힝악 흥는 일꾼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대개 하는 님의 성심으로
 레비 허고 그리스도 예수로 조랑 허고 육례를 의지 헉지 아니라 흥는 우리가
 촘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례를 의지 헤만 헉니 만일 다른 사물이 육례를
 의지 헤라이면 나는 더욱 그리 헤리니 내가 난지 팔일 만에 할례를 밟고
 이스라엘의 조손이 오 벤야민의 자파요 히브리 사물 종에 히브리 사물이 오
 률법으로는 바리식 교인이 오 열심으로는 교회를 펌박 헝고 률법의 의로는
 칙망흘 거시 업는 자로라 그러나 내께 유익 헤던 거슬 내가 그리스도를
 위 헉야 다해로 녀일뿐더러 또 흔 모든 거슬 해로 녀임은 내 쥬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시 더욱 아름다움을 인함이라 내가 더를 위호야 모든 거슬
 일허 브리고 뚱으로 녀임은 그리스도를 엇고 내가 그 안에 잇음을

나타내려 흠함이니 내 의는 물번금이므로 말미 암은 거시 아니오 다만 그리스도를
 잇음으로 말미 암은 거시라 이는 잇음으로써 하느님께로 말미 암은 의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고치함을 알 헤야 그
 죽으심을 분발아 엇더 헛던지 죽은 가온티셔 부활함에니 르러 허노니 내가
 임의 엇엇다 흠도 아니오 온전히 일우엇다 흠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쥐흐신 뜻을 내가 쥐흐리고 다람질 흥 노라 형데들아 나는 아직 내가
 쥐흐줄 노녀이지 아니 허고 오직 이 혼 일 만 헉야 뒤에 있는 거슬 니져
 브리고 암해 있는 거슬 잡으랴 표대를 향 헉야 다람질 흠은 하느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으로 부르샤 상주심을 엇고 져 흠이니 그림으로
 우리 온전히 일운사람들은 이 뜻을 품을지니 만일 무숨 일에 너희가 다른
 뜻을 품어 잇스면 하느님이 이 것도 너희께 보이시리라 그러나 우리가 다른
 어디서지 나르렀던지 그대로 쪘자 흥흘지 않다 ○ 형데들아 너희는 흠
 나를 본방으라 뜻호 우리가 너희께 본이 되었스니 이대로 흥하는 사물을
 보아라 내가 여러번 너희께 말 헉 옛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 흥 노니

十九

둔나는 사름 중에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만흐니라 더희의 못출은
멀망이니 더희는 바로 그 하느님을 삼고 봇그려음으로 그 영광을 삼고

세상 알만 성각호니라 오직 우리 나라는 하늘에 있는지라 거괴로 셔
구원하는자 곳쥬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호시기를 기드리노니 더가 만물을

조괴 개 복종케 하는 능력으로 우리 천Hon 몸을 변호케 호사 조괴 영화로 오신

몸파 곳 배 호 시리라

그럼으로 나의 스랑호고 스모호는 형데들아 너희는 내 줄어음이 오 내
면류판이니 스랑호는자들아 쥬안에서 굽케 서라 ○ 내가 유오티아를
권호고 순두케를 권호노니 쥬안에서 홀 모음을 품으라 또 나의 촘된
짝네게 구호노니 더부녀를 도으라 대개 더희는 나와 흠씨 힘써 복음을
전호였고 또호 글비멘드와 그외에 나와 흠씨 슈고호자도 그리호였스매
그 일호를이 성명 척에 잇는니라 ○ 흥상 쥬안에서 즐거워호라 내가 다시
말호노니 즐거워호라 너희 량선호을 모든 사름의케 알케 호라 쥬가
갓가왔는니 아모 것도 넘려호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너희 구호
거슬

과도와 고구와 감사 함으로 하느님색 알외라 그런즉 하느님의 평강이 모든
사름 지각에 뛰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모음과 성각을 직히시리라 ○
형데들아 또 말풀을 거시 잇스니 무릇 진실호며 무릇 경건호며 무릇 올호며
무릇 짹긋호며 무릇 스랑호만호며 무릇 청찬호만호며 무슴덕이 잇던지
바를 다 흥호라 또호 평강을 주시는 하느님이 너희와 흠씨 제시리라 ○
오직 내가 쥬안에서 크게 즐거워호은 너희가 나를 성각호던 거시 이제
다시 짹이 남이니 너희가 파연 성각은 잇섯스나 과회가 업섯는니라 내가
궁핍 흐으로 말호는 거시 아니라 무슴 일에던지 내가 조족호기를 비학도나
내가 비천호에 처흐를도 알고 풍비 흐에 처흐를도 아라 모든 일에 비부르며
비급 흐과 풍비 흐며 부족호을 너희 아는바라 내내게 능력 주시는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호 거시 업는니라 그려나 너희가 내 환난에 참예호 거시
아름답도다 빌립보 사를를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을 처음 전호고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 빛는 일에 나와 흔가지로 참예호 교회가

업고 오직 너희 셈이니라 내가 데살노니가에 잊슬 때에도 너희가 호번
 두 번 나의 쓸 거슬 보내여 주었스니 내가 이 말을 흔드거시 도 아주 기를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께 유익호도록 과실이 번성호기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거시 잇고 또 유여 혼지라 내가 풍족호거손에 바쁘로 되도
 편에 너희가 준 거슬 밟음이니 이거시 묵 향내오 밟으실만한 제스니
 하느님을 깃브시 케 흔 거시라 나의 하느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온더서 그 풍성흔대로 너희 쓸 거슬다 척우시리라 우리 하는님이 시오
 아바지 되신이의 케 세세에 영광을 돌닐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케 각각 문안호라 나와 끽치잇는 형데들이 너희께 문안호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께 문안호는 중 특별히 가이사 집 사림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믿음에 잊슬지어다

골노새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

하느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손도 된 바울이 형데 되모
 더 브려 골노새에 있는 여러 성도 곳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험 형데 되모
 편지 호 노니 우리 아바지 하느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
 잊슬지어다 ○ 우리가 하느님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바지 씨 감사
 너희를 위호야 흥상 과도호 노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 손랑호는 거슬 드름이 오 너희를 위호야 하늘에 싸하둔 소리로
 인함이니 곳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을 드른 거시라 이 복음이
 너희께 나르매 너희가 이 복음을 듯고 촘으로 하느님 은혜를 아던 날
 너희 중에 자라는 것과 그치도 훈련하에 서도 열미를 미쳐 자라는 도리로
 이 말슴을 너희가 예바브라의 케 빙황스니 더는 우리 손랑호는 바
 된 종이오 우리를 터신호야 그리스도의 신실험 일군이오 성신 안에서
 스랑을 우리에게 교훈자니라 ○ 이로 써 우리도 듯던 날보더 너희

위호야 거도호기를
긋치지 아니하고 구호노니 너희로 호여공
지혜와 총명을 엿어 하느님의 뜻을 아는 거스로 척우제 호시고 힝⁺하는
바로 쥬색 합당케 호야 범스에 깃브시케 호고 모든 선호 일에 열미를
멎치케 하며 하느님을 알기에 일취월장케 호시고 그 영화의 힘을 좁차
모든 권능으로 강건호케 호며 모든 일에 인내와 오래 쟁음으로 깃브케
호야 주시기를 구호노라 아바자색 감사할⁺자손 우리로 하여 곰벗 가온 터셔
성도의 괴업을 엿기에 합당호케 호심이니라 더가 우리를 후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여 스랑호시는 아들의 나라로 음기셨스니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구속함을 밟아 죄사함을 엿은지라 더는 곳 볼수 없는 하느님의 형상이오
조성호신 거보다 몇져 나선자니 대개 만물이 더의 배 지음을 밟은지라
무론 하늘파 땅에 있는 것파 보이는 것파 보이지 않는 것 중에 혹 위에 있는
거시나 쥬관호는 거시나 정소나 친체나 만물이 다 더로 말미암고 더를
위호야 지음을 밟은지라 또⁺호 더가 만물보다 몇져 있고 만물이 더 안에
흘러 셋도 다 더는 머리오 교회는 몸이라 더가 근본이오 죽은 가온 터셔

본래 나신자니 이는 만물에 웃들이 되께 허려 허심이라 대개 아바지 씨셔 화평을 일우샤 만물노 허여 곰 무론 하늘에 있는 거시나따에 있는 거시나 데를 힘남여 조괴와 화목케 헌신자라 너희가 전에 악한 형실노 멀니 죄나 모음으로 원슈가 되였더니 이제는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을 인호야 너희를 조괴와 화목케 헌셨스니 이는 거룩하고 흠업고 척망할 거시 업는자로 그 암해 세우고 져호심이라 오직 너희가 멋음에 거하고 터우에 굿게 서서 혼들니지 말고 복음의 소망을 빼앗기지 말자니 이 복음은 너희가 임의 드른바요 헌하 만민의 채 전파호바라나 바울은 이 복음의 집수가 되엿노라 ○ 내가 이제 너희를 위호야 괴로움 밟는 거슬 즐거워하고 그리스도의 늄은 고난을 내육례에 청오노니 이는 그 몸된 교회를 위함이라 내가 접수된 거슨 하느님이 너희를 위호샤 내게 주신 직분대로 하느님의 말씀을 일우려 흠이니 이는 오묘한 리치라 만세와 만덕 써 움으로 금초엿다가 이제는 그 성도의 채 나타난자라 하느님이 영도로 그치니

골노새 이장

류박삼십육

오묘한 리처의 영화가 이방 사Rom 가온티 엉더케 부요호 거슬 알게
 허려 허심이니 곳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잇서 영화의 소망이 되는 나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파 헤야 각 사Rom을 권호교 모든 지혜로 각 사Rom을
 그르침은 각 사Rom을 그리스도 안에 셔온전케 헤야 드리려 험이나 이럼으로
 나도 슈고 헤야 내 속에 능력을 힝총시는 이가 힝총시는 대로 힘을 다 헤노라
 대개 내가 너희와 라오디세아에 잇는자와 무릇 육신으로 내 얼굴을
 보지 못 헌자를 위 헤야 엉더케 험쓰는 거슬 너희가 알기를 원호노니 이는
 너희 민음에 위로를 밟고 스랑으로 련합 헤야 세드라 온전히 멋음의 일절
 풍성 험을 엿어 하느님의 오묘한 거슬 너희게 알게 허려 험이나 곳 그리스도 시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비로운 거시다 금초연느니라 내가 이 말을
 험은 누가 공교훈 말노 너희를 속이지 못 헤게 험아니 대개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험씨 잇지 못 헤나 민음으로는 너희와 험씨 잇서 너희의 규칙과
 그리스도를 멋음이 굿은 거슬 보고 깃버 헤노라 ○ 그림으로 너희가 주
 그리스도 예수를 밟았느니 그 안에서 힝총티 그 안에 뿌리를 김히 박으며

세움을 담아 교훈을 밟은대로 멋음에 굽게 서서 감사 험을 더 험고 더 험라 ○
 삼가 사Rom이 잇서 그 과학의 허황한 속임으로 너희를 로략할가 두려워 험라
 이거시 사Rom의 유전과 세상의 적은 학문을 쪽침이오 그리스도를 쪽침이
 야나니라 대개 하느님의 일절 풍성 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례를 일우어
 거흐시고 또 험 너희도 그 안에서 풍성 험을 엿었느니 그는 모든 정스와
 권세의 머리가 되신지라 ○ 그 안에서 너희가 할례를 밟았느니 이는
 손으로 훈 할례가 아니오 정육의 몸을 벗는 거시니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험씨 장수하고 또 험씨 살았느니 곳
 죽은 가온티 셔 그리스도를 다시 살니신 하느님의 험심을 멋음으로
 됨이니라 ○ 또 너희가 이왕에 너희 범죄 험파 육례의 할례를 받음이 업슴으로
 그리스도와 험씨 살니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뒤덕 험는 의문에 쓴
 를 법을 도망통시고 제흐야 버리샤 설득가에 못 박으셨요 ○ 정수와 권세 잡은 자를
 파헤야 너희를 세상의 계보이시고 십자가로 승전가를 부르셨느니라 ○

골노새 삼장

류백삼십팔

그럼으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과와 월식파 안식일을 인호야 사룸의 펌론을 밟지 말나 이는 다 장려 일의 그림조니 그 형상은 곳 고리스도색 속 호였는니라 사룸이 일부러 겸손호야 턴스의 계절홍으로 너희 샹을 빼앗지 말게 호라 더가 그 본 거슬 의지호야 정육을 쪽차 망녕되히 교만하고 머리를 밟들지 아니호는지라 원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덕와 힘줄 노도음을 엊고 혼합호는니 하느님이 자라게 호심으로 자라느니라 ○ 너희가 그리스도와 흠색죽어서 세상의 적은 학문을 버셔 낫거든 엇지호야 세상에 사는 것과 끗치의 문을 순종호는나 곳 못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묻지지도 말나 호는 의문이니 이 모든 물건은 쓰는대로 패호는 거시어들 사룸의 명파 그친침을 쪽는나 이련 의문은 스스로 숭비호파 겸손호파 몸을 괴롭게 호는 터는 지혜 엇는 모양이 잇스나 오직 정육 쪽는거슬 금호는 터는 유익호이 조곰도 업느니라 그런고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흠색 다시 살았스면 우에 엇는 거슬 차지라 거리는 그리스도가 계서서 하느님 우편에 안조셨느니라 우에 엇는 거슬

성각호고씨에 엇는 거슬 성각지말나 대개 너희가 죽었스니 너희 성명이 그리스도와 흠색 하느님 안에 금초였느니라 우리 성명되시는 그리스도가 나다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흠색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 그럼으로 땅에 있는 너희 저례를 죽이라 곳음란파 부정호파 샤우파 악호정육파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을 섬김이니라 이를 인호야 하느님의 진노호심이 순종 치아니 호는 조식들의 계립호는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온티 살 때에는 그 가온티 쪽호였느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노호파 분냄파 혐의와 훼방파 말나 넷사룸파 그 힘위를 바셔 브리고 너희가 서로 거죽 말을 조성호신자의 모양을 쪽차 새롭게 호심을 밟아 지식이 엇는자니라 이러하면 헬나 사룸파 유대 사룸이나 할례 밟은자와 아니 밟은자나 야인이나 스구되어 사룸이나 종이나 조류지인이 분별 업느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의 쥬가 되시고 만유 안에 계시니라 ○ 그럼으로 너희가 하느님의 휘호버 거룩하고 소랑호신자가 되니 공홀호 모임파 조비가

골노새 삼장

류비수집

용남호야 피추 용서호더 쥬색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그치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외에 소랑을 웃님듯호라이는 온전호제미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믿음을 쥬장호시제 호라이를 위호야 너희가
부르심을 밟아 혼몸이 되엿느니 또호 너희가 감사할 거시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너희 믿음 속에 풍성호제 두어 범스에 지혜롭게 호고 시와 찬미와
신령호 노래로 피추 그르치며 권호고 은혜 밟은 믿음으로 하느님을
찬양호고 또 무어슬 헌던지 말에나 일에나 다 쥬 예수의 일홍으로 힝호고
더를 험닙여 하느님 아바제끼 감사호라 ○ 안히 된자들아 너희 남편의 제
복종호라이는 쥬안에서 맛당호니라 남편 된자들아 너희 안히를 스랑호며
괴롭게 호지 말나 조녀 된자들아 모든 일에 부모를 숀종호라이는 쥬안에서
깃브케 호는거시니라 아비 된자들아 조녀를 격노케 말고 믿음을 일홍을
두려워호라 종된자들아 육신으로 된 너희 쥬인을 모든 일에 숀종호더 눈
그림 만호야 사룸을 깃브케 호는자와 그치 호지 말고 오직 쥬를 두려워호야
사룸을 섬김으로 호지 말나 이는 쥬로 말미암아 유업의 상을 밟을줄 알마니
너희는 쥬 그리스도를 섬기는자니라 다만 불의를 힝호는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느니 쥬는 외모로 사룸을 취치아니호시느니라
쥬인된자들아 의와 공평함을 종의제 베풀지니 너희께도 하늘에 쥬인이
계심을 알지어다 ○ 과도호기를 흥상 힘쓰고 과도호 때에 셰여 감사호며
또호 우리를 위호야 과도호티 하는 님이 우리의제 전도호문을 열어주샤
우리로 그리스도의 오묘함을 말호제 호시기를 구호라 내가 이 거슬위호야
미임을 당호지라 그리호면 내가 맛당하 홀말노써 이 오묘호 거슬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호여서는 지혜로 힝호야 세월을 앗기라 너희 말호는
거슬 소곰으로 고로제 흠 모치 흥상 은혜로 호라 그리호면 맛당히 각
사룸의제 뒤답호 거슬 알니라 ○ 두기고가 내 소정을 다 너희께 알게
호리니 그는 소랑을 밟는 형데오 신실헌 접즈요 쥬안에서 흠색된종이라
내가 이 사룸을 특별히 너희께 보냄은 다큘 아니라 너희로 험여 곰우리

스정을 알게 하고 너희 몇음을 위로 하게 흠아라 오네 시모를 고치 보내노니
그는 신실하고 소랑을 뱗는 형데 오너희 고을 사룸이라 이 두사룸이 여괴
일을 다 너희에 알게 하리라 ○ 나와 흠째 가천 아리스다고가 너희에
문안하고 바나바의 성질 마가도 그리 흠니 이 마가를 위하야 너희가 명을
맛잇스매 그가 나르거든 영접하라 또 유스도 라는 예수가 너희에
문안하니 너희는 할례 밧은자라이 두어 사룸이 하느님 나라를 위하야
나와 흠째 슈고하고 나를 위로 하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너희
고을 사룸에 바브라가 너희에 문안하니 더가 흥상 너희를 위하야 힘을
다하야 괴도하고 너희로 흥여 곰온전하개 하고 하느님의 모든 뜻을 불허
알아 굿바서 기를 구하느니 대개 그 사룸이 너희와 라오티케아에 있는 자와
히에라 볼니에 있는 자를 위하야 만히 슈고하는 거슬 내가 증거하노라
소랑을 뱟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 문안하느니라 라오티케아에
잇는 형데와 놔바와 그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 중에서
넓은후에 라오티케아 사룸의 교회에서도 넓게 하고 또 라오티케아로 셔

오늘 편지를 너희도 뵈으라 야. 임보의 게 날이 기를 죄 안에 밟은 적분을
삼가다. 호라고 호라 ○ 나 바울은 친필 노문안호 노니 나의 미인 거슬
성각호라 은혜가 너희께 잇슬지어다

데살노니가 전

소도 바울이 데살노니가
교회에 보낸 전 편지

바울파 실와노와 티모데는 하느님 아바지와 쥬예수 그리스도 안에 잇는
데살노니가 사물의 교회에 편지 헌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잇슬지어다 ○
우리가 너희를 위호야 흥상하는 님씩 감사호고 괴도호 때에 너희를 말호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브라고 인내함을 괴여 호기를 쉬지 아니호노니 하느님의
스랑호심을 밟은 형데들아 너희를 턱호심을 아노라 대개 우리 복음이
너희께 니름은 말노만 홀뿐 아니라 또 혼 권능으로 호며 성신으로 호며
확실히 멋음으로 훈거시니 우리가 너희 가온더셔 너희를 위호야 엊더 혼
사름이 된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또 너희는 큰 환란 가온더셔 성신의 주신
깃봄으로 도를 밟아 우리와 멋쥬를 본발았스니 너희가 곳 마케도니아와
아가이아 모든 멋눈자의 모본이 되였는지라 대개 쥬의 말씀이 너희께로
말미암아 마케도니아와 아가이아에만 들닐뿐 아니라 하느님을 향하는
너희 멋음의 소문이 각처에 펴진고로 우리는 말함을 거시 업스니 여희가
스스로 고호기 를 우리가 엊더 캐 너희 가온더 드러감과 너희가 엊더 캐
우상을 브리고 하느님세로 도라와 셔 살으시고 촘되신 하느님을 섬기며
또 죽은 가온더 셔 다시 사신 아들이 하늘 노브터 강림호심을 기드린다고
말호니 곳 예수라 우리를 장리 노호심에서 구호시는자 나라
형데들아 너희도 우리가 너희 가온더 드러감이 헛되지 아님줄을 아느니
너희 아는 것과 꼬치 우리가 몬져 빌립보에서 해 밟고 릉을 당호 엿스나
우리가 우리가 하는 님을 힘남여 만히 싸호도 중에 하느님의 복음을 꽂세하
너희께 말호 엿스니 대개 우리의 권면 훔은 그릇호 터셔 난 것도 아니오
부정호 터셔 난 것도 아니오 간사호 터잇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느님이
우리를 올케 녁이 샤복음 전음을 부탁호 셋스니 이와 꼬치 말호는 거순
사음을 깃브제 흠이 아니오 오직 우리 믿음을 감찰호 시는 하느님을
깃브시께 흠이니 우리 가 아모 떠도 아첨호는 말을 쓰지 아니호 거슬 너희도
알거니와 또 외모로 탐심을 머리우지 아니호 거슬 하느님이 중거호 시는 나라

데살 노니가 전 이장

루빅스십률

우리가 그리스도의 속도로 비록 능히 존중하는데 이나 그러나 너희가 계던지 다른 사물의 계던지 사물의 계는 영화를 구치 아니하고 오직 우리가 너희가 온 터서 유순함이 유모가 되고 어린 너희를 기름과 끼치 흥연스니 우리가 이 끼치 너희를 손 모호야 하느님의 복음으로 만 너희가 출생 아니오 둘째 우리 성명서지 너희가 주기를 즐거움은 너희가 우리의 속량하는 자가 됨이니라 형데들아 우리의 슈고와 애쓸 거슬 괴여 흐리니 너희 흐사람의 계도 괴롭게 아니호라고 밤낮으로 일호면서 너희가 하느님의 복음을 전파 흥연스니라 우리가 엉더케 거룩하고 을코 철망 업슴으로 너희 멋는 자를 향호야 흥호거슬 너희가 증거호고 하느님도 뜨호 그리호시도 다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너희 각 사물의 계 흥호기를 아비가 드고 드식의 계 흠파 끼치 흥야 전면호고 위로호고 경계호은 너희를 부르샤 그 나라와 영광을 엇개호시는 하느님께 합당히 흥호게 흠이니라 ○ 이런으로 우리가 하느님께 감사호을 쉬지아니 흠은 너희가 우리의 계 드른바 하느님 말씀을 뱃을 떠에 사물의 말노 빛지아니호고 오직 하느님의 말씀으로 빛음이니

진실노 그려호다 이 말슴이 너희 멋는 자 속에서 힘쓰는 나라 형데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느님의 여러 교회를 본받았느니 너희가 유대인의 계 해를 빛음과 끼치 너희도 너희 나라 사물의 계 해를 빛았느니라 유대인은 쥬 예수와 또 여러 선지자를 죽이고 우리를 쫓차내고 하느님을 깃브시게 아니하고 무릇 사물의 계 터덕이 되여 우리 가 이방 사물의 계 말호야 구원 엇개 흠을 금호니 이 끼치 드리 죄를 흥상 척우매 오직 노호심이 뜻서지 너희가 립호연느니라 ○ 형데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거슨 얼굴이 오모임은 아니니 길흔정으로 더욱 혼절히 너희 얼굴을 보고 져호연느니라 그려고로 나 바울은 혼 번 두 번 너희가 가고 져호나 오직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대개 우리의 소망이나 즐거움이나 조랑호는 면류관이 무어시나 그 강림호실 때 우리 쥬 예수 암해 너희가 아니냐 대개 너희는 우리의 영화요 즐거움이니라 이 럼으로 우리 가 춤다 못호야 아덴에 혼조 머물기를 뜨케 녁여 터모데를 보내 옛노니 곳 우리 형데요 그리스도 복음에 하느님의 집스라이는 너희를

데살노니가 전 삼장

록박수십팔

굿바 흐고 너희 밋음을 위호야 너희를 위로호야 아모던지이 여러 환란
중에 요동치 안케 흠이니 대개 우리로 이 환란을 당호바 세우신 줄을
너희도 알니라 우리가 너희와 흠색 잇슬 때에 양초 받을 환란을 미리
말호 옆더니 후에 과연 그려 캐 된 거슬 너희가 아느니라 이럼으로 나는
총다 못호야 사룸을 보내여 너희 밋음을 알고 져호 거슨 혹시 험호는 자가
너희를 미혹케 흐야 우리 슈고를 헛되네 흘가 두려워호 옆더니 지금은
되 모데 가 너희게로 조차 와서 너희 밋음과 스랑 흠의 깃분 죠식을 우리
전호고 또 너희가 흥상 우리를 잘 성각호야 우리 가 너희를 보고 져호과
조치 너희가 우리를 고절히 보고 져호다 호니 이럼으로 형례들아 우리의
모든 궁핍과 환란 가온더셔 너희 밋음을 인호야 너희로 인호야 위로 흠을
밧았노라 대개 너희가 쥬안에 굿바 선주 우리 가 곳 살니라 우리 가 우리
하느님 압해셔 너희를 인호야 모든 즐거움을 즐거워호니 너희를 위호야
능히 엊더흔 감사 흠으로 하느님 쌔 보답할고 쥬야로 심히 고구 흠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밋음의 부족 흠을 온전케 흥려 흠이라 ○ 원전대 우리

하느님 아버지와 우리 쥬예수는 우리 길을 곳바 흐사 너희게로 나아가 배
흐옵 쇼서도 쥬색서 우리 가 너희를 스랑 흠파 끄치 너희로 흠여 곰 피추
서로 스랑 흐고 뭇 사룸을 스랑 흠이 자라 풍성호케 흐샤 우리 쥬예수가
그 모든 성도와 흠색 강림호설 때에 우리 하느님 아버지 압해셔 너희
모임을 거룩 흠으로 척망 업시 굿바 흐야 주쇼서 흐노라
형데들아 또 말흘 거시 잇서 우리가 쥬예수 안에서 너희게 구호고
권면호노니 너희가 맞당히 엉더케 힝호며 하느님색 깃브시 배 흘 도리를
우리 배 밧았느니 곳 너희 흉호는 바라 더욱 만히 힘쓰 라 우리가 쥬예수로
말미 암아 너희게 무숨 경계로 준 거슬 너희가 알니니 대개 너희가 거룩 흐야
음란을 브리는 거시 하느님의 솟이라 너희가 각각 거룩 흐고 존귀 흠으로
조괴의 안히 취 흠줄을 알고 하느님을 모르는 이방 사류파 끄치 석육을
쫓지 말나 누구던지 이 일에 분수를 넘어 서 형데를 해호지 말나 대개 우리가
주시느니라 대개 하느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흐심이 아니오 오직

데살노니가 전 수장

류별오십일

거룩케 호심이니 그린고로 져보리는자는 사를을 져보림이 아니오 그 성신으로 너희께 주신 하느님을 져보림이니라 ○ 형데 스랑함을 의론전대 너희께 편지흘 거시 업슴은 너희가 하는님의 그르치심을 밟아 서로 스랑함이니 너희가 원마케도니아 모든 형데들을 터흐야 파연 이 굽치 힝호도다 형데들아 권호노니 더 만히 흐고 또 이전에 너희께 경계함파 굽치 뜻을 세워 종용흔 사름이 되고 각각 조괴 일이나 보고 손으로 버리흐라 그리흐면 외인을 터흐야 너희 흥스가 단정흐고 또 혼 궁핍함이 업스라라 ○ 형데들아 자는자를 의론전대 너희가 아지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흐 노니 외인파 굽치 슬퍼흐지말나 너희는 소망이 업느니라 우다가 만약 예수의 죽엇다가 다시 사심을 멋을전대 이와 굽치 예수 안에서 임의 자는자도 하느님이 예수와 흠색 오베흐시리라 우리가 쥬의 말슴으로 너희께 말호노니 쥬 강림흐실 때서지 우리 살아남아잇는자도 임의 자는자 보다 결단코 암서지못흐리라 대개 쥬가 장흐 호령파련수장의 소리와 하느님의 라발노 천히 하늘노 쪽차 강림흐시리니 그리스도

한에서 죽은자들이 묻져나려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자도 너희와 흠색 구름속으로 쇠을어 올녀 고풍에서 쥬를 영접흐게 낭시리니 이러흔죽 쥬와 흠색 흥상잇스리라 그런고로 이런 말노서로 위로흐라

형데들아 떼와 거약을 의론전대 우리가 너희께 편지흘 거시 업슴은 쥬의 날이 밤노이에 도적파 굽치니를줄을 너희도 조세히 아는거시니 사름들이 평안하고 들통흐다 말할때에 곳회산과약이 으희 빈녀인의께 니름파 굽치 멀망이 홀연히 나르리니 결단코 면치못흐리라 형데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잇지 아니흐매 그 날이 도적파 굽치 너희께 립흐지못흐리니 대개 너희는 다 빗의 아들이오 낫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에 속흐지안코 굽치 어두움에 속흐지 아니흐엿느니 그런고로 우리는 외인파 굽치자지말고 맛당히세고 존절히 흘지라 대개 자는자는 밤에 자고 취흐는자는 밤에 취흐되 오직 우리는 낫에 속흐엿스니 맛당히 존절히 흘야 밑음파 스랑으로 호심경을 끊치고 구원의 소망으로 투구를 쓰자 하느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호심을 밟게 호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를 힘남여

데살 노니가 전 오장

류벽 오십이

구원을 엿세 ^하셨스니 예수가 우리를 터신 ^하야 죽으샤 우리가 세딘자
 자던지 더와 흠써 살세 ^하셨느니라 그런고로 서로 편면 ^하고 피초 ^더을
 세우기를 너희가 시방 ^하는 것 끼쳐 ^하라 ○ 형데들아 우리가 너희께
 구호노니 너희 ^{가온}되서 슈고 ^하고 쥬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경계 ^하는 자를
 너희가 알고 ^하면 당히 그 ^하는 일을 인 ^하야 스랑 ^하음으로 더욱 귀히녀이며
 너희세리화목 ^하라 ^도 형데들아 너희를 훤면 ^하노니 규모 ^하는 자를 경계 ^하며
 믿음이 약 ^하자를 안위 ^하고 힘이 업는 자를 봇드려주며 못 ^하사를 봇 ^하야
 오래 ^하온 ^라 삼가 누구던지 악으로 악을 ^{감지} 말게 ^하고 ^{오직} 피초 ^더 ^하던지
 웃 ^하사 름을 터 ^하던지 ^하양 ^하착 ^하음을 ^하듯 ^초라 ^하양 ^하깃 ^하버 ^하라 ^하쉬 ^하지 ^말고 ^하괴도 ^하라
 범 ^하스에 ^하감 ^하샤 ^하라 ^하이는 ^하느 ^하님 ^하이 그리스도 ^하예수 ^하안에서 너희를 향 ^하신
 뜻 ^하이 ^나라 ^하성 ^하신 ^하의 ^하감 ^하화 ^하심 ^하을 ^하쇼 ^하멸 ^하치 ^하말 ^하고 ^하예 ^하언 ^하을 ^하멸 ^하시 ^하치 ^하말 ^하고 ^하맞 ^하당 ^하히
 범 ^하스 ^하를 ^하슬 ^하퍼 ^하도 ^하흔 ^하거 ^하슬 ^하취 ^하고 ^하모 ^하든 ^하악 ^하호 ^하거 ^하슨 ^하모 ^하양 ^하이 ^라도 ^하브 ^하리 ^하라 ○
 평 ^하강 ^하을 ^하주 ^하시 ^하는 ^하느 ^하님 ^하이 ^하친 ^하히 ^하너 ^하희 ^하로 ^하온 ^하전 ^하히 ^하거 ^하루 ^하께 ^하하 ^하시 ^하고 ^하도 ^하 너희
 신 ^하파 ^하혼 ^하파 ^하몸 ^하을 ^하온 ^하전 ^하게 ^하보 ^하전 ^하하 ^하샤 ^하우 ^하리 ^하유 ^하예 ^하수 ^하그 ^하리 ^하스도 ^하강 ^하림 ^하실 ^하때 ^하에
 잊 ^하슬 ^하지 ^하어다 ○ 우리 ^하쥬 ^하예 ^하수 ^하그 ^하리 ^하스도 ^하의 ^하온 ^하해 ^하가 ^하너 ^하희 ^하께

척망 ^하어 ^나게 ^하하 ^사기 ^하를 ^하원 ^하하 ^노니 ^하너 ^하희 ^하를 ^하부 ^하르 ^하시 ^하는 ^하이 ^는 ^하밋 ^하브 ^하시 ^하니 ^하그 ^하가 ^하소 ^하훈
 일 ^하우 ^하시 ^하리 ^하라 ○ 형 ^하데 ^하들 ^하아 ^하우 ^하리 ^하를 ^하위 ^하야 ^하괴 ^하도 ^하하 ^하라 ○ 거 ^하루 ^하께 ^하입 ^하맛 ^하총 ^하으로
 모든 ^하형 ^하데 ^하의 ^하께 ^하문 ^하안 ^하하 ^하라 ^하내 ^하가 ^하쥬 ^하를 ^하힘 ^하넘 ^하어 ^하너 ^하희 ^하를 ^하명 ^하하 ^하노 ^하니 모든 ^하형 ^하데 ^하의 ^하께
 이 ^하편 ^하지를 ^하넓 ^하여 ^하들 ^하니 ^하라 ○ 우리 ^하쥬 ^하예 ^하수 ^하그 ^하리 ^하스도 ^하의 ^하온 ^하해 ^하가 ^하너 ^하희 ^하께

데살노니가 후 일장

데살노니가 후

소도 바울이
교회에 보낸 데살노니 가 편지

바울과 실와노와 티모데는 하느님 우리 아바지와 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잇는 데살노니가 사물의 교회에 편지 후 노니 하느님 아바지와 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잇슬지어다 ○ 청예들 아 우리가
너희를 위호야 맞당히 흥상하는 님께 감사하노니 너희 멋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다 각기 서로 소랑함이 풍성해 도다 이럼으로 우리가 도훈하는 님의
여러 교회에서 너희로 드랑함은 너희 모든 필박과 당호 환란 중에서 안내와
멋음이 잇슴이라 이는 하느님이 공변되히 심판호실 표요 너희로 하여 곰
하느님 나라에 합당흔자로 넉이심을 엊제 흠이니 이제 그 나라를 위호야
너희가 괴로움을 밟는 니라 너희로 환란 밟게 하는 사물의 계는 환란으로
갑호시고 환란 받는 너희계는 우리와 흠께 평안함으로 갑호시는 거시
하느님의 공의시니 쥬 예수께서 그 권능의 힘스와 흠께 하늘노보터 불셋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느님을 모르는자와 우리 쥬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안는자의 계 청벌을 주시리라 대회가 청벌을 맛아 주의 암파 그
능력의 영광을 떠나 영원히 멀망해 리로다 그 날에 강림해 샤 모든 성도의 계서
영화를 엊으시고 모든 멋는자의 계서 괴이히 넉임을 엊으시리니 대개
우리가 너희계 중개호 말을 너희도 멋은지라 이럼으로 우리가 흥상 너희를
위호야 괴도호노니 우리 하느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흔자로 넉이시고
월호는 바 모든 선파 멋음의 일을 전능으로 일우게 해샤 우리 하느님과
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쥬 예수의 일晦이 너희계서 영화를
업으시고 너희도 뜨호 그의 계서 영화를 엊제 호시기를 구호노라
형데들아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호심과 우리가 그 암해 모힐 거슬
의론전대 혹 십으로나 혹 말노나 혹 우리에게 밟았다 흠은 편지에나 쥬의
날이 나르렸다 흠여도 쉬히 동심차 말고 두려워 말게 흠려호야 너희계
구호노니 사물이 아모려 케 흠여도 너희가 유혹호지마라 대개 그 날이 나르기
전에 몬져 빙도호는 일이 엿고 더 죄악의 사물 곳 멸망의 조식이 나타나리니
더는 덕덕호고 조존호는자라 모든 닐로는 선파 숭비함을 맛는자 우에

데살노니가 후이장

류비오십류

뛰여나하는님성면에 안져조괴를 보여하는님이라호리라 내가 전에 너희께
잇슬 때에 이 일을 너희께 말한 거슬 괴역지못하는냐 더로 허여곰 저의
대개 불법의 괴미가 ^{임의} ⁷ ⁸ ⁹ ¹⁰ ¹¹ ¹² ¹³ ¹⁴ ¹⁵ ¹⁶ ¹⁷ ¹⁸ ¹⁹ ²⁰ ²¹ ²² ²³ ²⁴ ²⁵ ²⁶ ²⁷ ²⁸ ²⁹ ³⁰ ³¹ ³² ³³ ³⁴ ³⁵ ³⁶ ³⁷ ³⁸ ³⁹ ⁴⁰ ⁴¹ ⁴² ⁴³ ⁴⁴ ⁴⁵ ⁴⁶ ⁴⁷ ⁴⁸ ⁴⁹ ⁵⁰ ⁵¹ ⁵² ⁵³ ⁵⁴ ⁵⁵ ⁵⁶ ⁵⁷ ⁵⁸ ⁵⁹ ⁶⁰ ⁶¹ ⁶² ⁶³ ⁶⁴ ⁶⁵ ⁶⁶ ⁶⁷ ⁶⁸ ⁶⁹ ⁷⁰ ⁷¹ ⁷² ⁷³ ⁷⁴ ⁷⁵ ⁷⁶ ⁷⁷ ⁷⁸ ⁷⁹ ⁸⁰ ⁸¹ ⁸² ⁸³ ⁸⁴ ⁸⁵ ⁸⁶ ⁸⁷ ⁸⁸ ⁸⁹ ⁹⁰ ⁹¹ ⁹² ⁹³ ⁹⁴ ⁹⁵ ⁹⁶ ⁹⁷ ⁹⁸ ⁹⁹ ¹⁰⁰ ¹⁰¹ ¹⁰² ¹⁰³ ¹⁰⁴ ¹⁰⁵ ¹⁰⁶ ¹⁰⁷ ¹⁰⁸ ¹⁰⁹ ¹¹⁰ ¹¹¹ ¹¹² ¹¹³ ¹¹⁴ ¹¹⁵ ¹¹⁶ ¹¹⁷ ¹¹⁸ ¹¹⁹ ¹²⁰ ¹²¹ ¹²² ¹²³ ¹²⁴ ¹²⁵ ¹²⁶ ¹²⁷ ¹²⁸ ¹²⁹ ¹³⁰ ¹³¹ ¹³² ¹³³ ¹³⁴ ¹³⁵ ¹³⁶ ¹³⁷ ¹³⁸ ¹³⁹ ¹⁴⁰ ¹⁴¹ ¹⁴² ¹⁴³ ¹⁴⁴ ¹⁴⁵ ¹⁴⁶ ¹⁴⁷ ¹⁴⁸ ¹⁴⁹ ¹⁵⁰ ¹⁵¹ ¹⁵² ¹⁵³ ¹⁵⁴ ¹⁵⁵ ¹⁵⁶ ¹⁵⁷ ¹⁵⁸ ¹⁵⁹ ¹⁶⁰ ¹⁶¹ ¹⁶² ¹⁶³ ¹⁶⁴ ¹⁶⁵ ¹⁶⁶ ¹⁶⁷ ¹⁶⁸ ¹⁶⁹ ¹⁷⁰ ¹⁷¹ ¹⁷² ¹⁷³ ¹⁷⁴ ¹⁷⁵ ¹⁷⁶ ¹⁷⁷ ¹⁷⁸ ¹⁷⁹ ¹⁸⁰ ¹⁸¹ ¹⁸² ¹⁸³ ¹⁸⁴ ¹⁸⁵ ¹⁸⁶ ¹⁸⁷ ¹⁸⁸ ¹⁸⁹ ¹⁹⁰ ¹⁹¹ ¹⁹² ¹⁹³ ¹⁹⁴ ¹⁹⁵ ¹⁹⁶ ¹⁹⁷ ¹⁹⁸ ¹⁹⁹ ²⁰⁰ ²⁰¹ ²⁰² ²⁰³ ²⁰⁴ ²⁰⁵ ²⁰⁶ ²⁰⁷ ²⁰⁸ ²⁰⁹ ²¹⁰ ²¹¹ ²¹² ²¹³ ²¹⁴ ²¹⁵ ²¹⁶ ²¹⁷ ²¹⁸ ²¹⁹ ²²⁰ ²²¹ ²²² ²²³ ²²⁴ ²²⁵ ²²⁶ ²²⁷ ²²⁸ ²²⁹ ²³⁰ ²³¹ ²³² ²³³ ²³⁴ ²³⁵ ²³⁶ ²³⁷ ²³⁸ ²³⁹ ²⁴⁰ ²⁴¹ ²⁴² ²⁴³ ²⁴⁴ ²⁴⁵ ²⁴⁶ ²⁴⁷ ²⁴⁸ ²⁴⁹ ²⁵⁰ ²⁵¹ ²⁵² ²⁵³ ²⁵⁴ ²⁵⁵ ²⁵⁶ ²⁵⁷ ²⁵⁸ ²⁵⁹ ²⁶⁰ ²⁶¹ ²⁶² ²⁶³ ²⁶⁴ ²⁶⁵ ²⁶⁶ ²⁶⁷ ²⁶⁸ ²⁶⁹ ²⁷⁰ ²⁷¹ ²⁷² ²⁷³ ²⁷⁴ ²⁷⁵ ²⁷⁶ ²⁷⁷ ²⁷⁸ ²⁷⁹ ²⁸⁰ ²⁸¹ ²⁸² ²⁸³ ²⁸⁴ ²⁸⁵ ²⁸⁶ ²⁸⁷ ²⁸⁸ ²⁸⁹ ²⁹⁰ ²⁹¹ ²⁹² ²⁹³ ²⁹⁴ ²⁹⁵ ²⁹⁶ ²⁹⁷ ²⁹⁸ ²⁹⁹ ³⁰⁰ ³⁰¹ ³⁰² ³⁰³ ³⁰⁴ ³⁰⁵ ³⁰⁶ ³⁰⁷ ³⁰⁸ ³⁰⁹ ³¹⁰ ³¹¹ ³¹² ³¹³ ³¹⁴ ³¹⁵ ³¹⁶ ³¹⁷ ³¹⁸ ³¹⁹ ³²⁰ ³²¹ ³²² ³²³ ³²⁴ ³²⁵ ³²⁶ ³²⁷ ³²⁸ ³²⁹ ³³⁰ ³³¹ ³³² ³³³ ³³⁴ ³³⁵ ³³⁶ ³³⁷ ³³⁸ ³³⁹ ³⁴⁰ ³⁴¹ ³⁴² ³⁴³ ³⁴⁴ ³⁴⁵ ³⁴⁶ ³⁴⁷ ³⁴⁸ ³⁴⁹ ³⁵⁰ ³⁵¹ ³⁵² ³⁵³ ³⁵⁴ ³⁵⁵ ³⁵⁶ ³⁵⁷ ³⁵⁸ ³⁵⁹ ³⁶⁰ ³⁶¹ ³⁶² ³⁶³ ³⁶⁴ ³⁶⁵ ³⁶⁶ ³⁶⁷ ³⁶⁸ ³⁶⁹ ³⁷⁰ ³⁷¹ ³⁷² ³⁷³ ³⁷⁴ ³⁷⁵ ³⁷⁶ ³⁷⁷ ³⁷⁸ ³⁷⁹ ³⁸⁰ ³⁸¹ ³⁸² ³⁸³ ³⁸⁴ ³⁸⁵ ³⁸⁶ ³⁸⁷ ³⁸⁸ ³⁸⁹ ³⁹⁰ ³⁹¹ ³⁹² ³⁹³ ³⁹⁴ ³⁹⁵ ³⁹⁶ ³⁹⁷ ³⁹⁸ ³⁹⁹ ⁴⁰⁰ ⁴⁰¹ ⁴⁰² ⁴⁰³ ⁴⁰⁴ ⁴⁰⁵ ⁴⁰⁶ ⁴⁰⁷ ⁴⁰⁸ ⁴⁰⁹ ⁴¹⁰ ⁴¹¹ ⁴¹² ⁴¹³ ⁴¹⁴ ⁴¹⁵ ⁴¹⁶ ⁴¹⁷ ⁴¹⁸ ⁴¹⁹ ⁴²⁰ ⁴²¹ ⁴²² ⁴²³ ⁴²⁴ ⁴²⁵ ⁴²⁶ ⁴²⁷ ⁴²⁸ ⁴²⁹ ⁴³⁰ ⁴³¹ ⁴³² ⁴³³ ⁴³⁴ ⁴³⁵ ⁴³⁶ ⁴³⁷ ⁴³⁸ ⁴³⁹ ⁴⁴⁰ ⁴⁴¹ ⁴⁴² ⁴⁴³ ⁴⁴⁴ ⁴⁴⁵ ⁴⁴⁶ ⁴⁴⁷ ⁴⁴⁸ ⁴⁴⁹ ⁴⁵⁰ ⁴⁵¹ ⁴⁵² ⁴⁵³ ⁴⁵⁴ ⁴⁵⁵ ⁴⁵⁶ ⁴⁵⁷ ⁴⁵⁸ ⁴⁵⁹ ⁴⁶⁰ ⁴⁶¹ ⁴⁶² ⁴⁶³ ⁴⁶⁴ ⁴⁶⁵ ⁴⁶⁶ ⁴⁶⁷ ⁴⁶⁸ ⁴⁶⁹ ⁴⁷⁰ ⁴⁷¹ ⁴⁷² ⁴⁷³ ⁴⁷⁴ ⁴⁷⁵ ⁴⁷⁶ ⁴⁷⁷ ⁴⁷⁸ ⁴⁷⁹ ⁴⁸⁰ ⁴⁸¹ ⁴⁸² ⁴⁸³ ⁴⁸⁴ ⁴⁸⁵ ⁴⁸⁶ ⁴⁸⁷ ⁴⁸⁸ ⁴⁸⁹ ⁴⁹⁰ ⁴⁹¹ ⁴⁹² ⁴⁹³ ⁴⁹⁴ ⁴⁹⁵ ⁴⁹⁶ ⁴⁹⁷ ⁴⁹⁸ ⁴⁹⁹ ⁵⁰⁰ ⁵⁰¹ ⁵⁰² ⁵⁰³ ⁵⁰⁴ ⁵⁰⁵ ⁵⁰⁶ ⁵⁰⁷ ⁵⁰⁸ ⁵⁰⁹ ⁵¹⁰ ⁵¹¹ ⁵¹² ⁵¹³ ⁵¹⁴ ⁵¹⁵ ⁵¹⁶ ⁵¹⁷ ⁵¹⁸ ⁵¹⁹ ⁵²⁰ ⁵²¹ ⁵²² ⁵²³ ⁵²⁴ ⁵²⁵ ⁵²⁶ ⁵²⁷ ⁵²⁸ ⁵²⁹ ⁵³⁰ ⁵³¹ ⁵³² ⁵³³ ⁵³⁴ ⁵³⁵ ⁵³⁶ ⁵³⁷ ⁵³⁸ ⁵³⁹ ⁵⁴⁰ ⁵⁴¹ ⁵⁴² ⁵⁴³ ⁵⁴⁴ ⁵⁴⁵ ⁵⁴⁶ ⁵⁴⁷ ⁵⁴⁸ ⁵⁴⁹ ⁵⁵⁰ ⁵⁵¹ ⁵⁵² ⁵⁵³ ⁵⁵⁴ ⁵⁵⁵ ⁵⁵⁶ ⁵⁵⁷ ⁵⁵⁸ ⁵⁵⁹ ⁵⁶⁰ ⁵⁶¹ ⁵⁶² ⁵⁶³ ⁵⁶⁴ ⁵⁶⁵ ⁵⁶⁶ ⁵⁶⁷ ⁵⁶⁸ ⁵⁶⁹ ⁵⁷⁰ ⁵⁷¹ ⁵⁷² ⁵⁷³ ⁵⁷⁴ ⁵⁷⁵ ⁵⁷⁶ ⁵⁷⁷ ⁵⁷⁸ ⁵⁷⁹ ⁵⁸⁰ ⁵⁸¹ ⁵⁸² ⁵⁸³ ⁵⁸⁴ ⁵⁸⁵ ⁵⁸⁶ ⁵⁸⁷ ⁵⁸⁸ ⁵⁸⁹ ⁵⁹⁰ ⁵⁹¹ ⁵⁹² ⁵⁹³ ⁵⁹⁴ ⁵⁹⁵ ⁵⁹⁶ ⁵⁹⁷ ⁵⁹⁸ ⁵⁹⁹ ⁶⁰⁰ ⁶⁰¹ ⁶⁰² ⁶⁰³ ⁶⁰⁴ ⁶⁰⁵ ⁶⁰⁶ ⁶⁰⁷ ⁶⁰⁸ ⁶⁰⁹ ⁶¹⁰ ⁶¹¹ ⁶¹² ⁶¹³ ⁶¹⁴ ⁶¹⁵ ⁶¹⁶ ⁶¹⁷ ⁶¹⁸ ⁶¹⁹ ⁶²⁰ ⁶²¹ ⁶²² ⁶²³ ⁶²⁴ ⁶²⁵ ⁶²⁶ ⁶²⁷ ⁶²⁸ ⁶²⁹ ⁶³⁰ ⁶³¹ ⁶³² ⁶³³ ⁶³⁴ ⁶³⁵ ⁶³⁶ ⁶³⁷ ⁶³⁸ ⁶³⁹ ⁶⁴⁰ ⁶⁴¹ ⁶⁴² ⁶⁴³ ⁶⁴⁴ ⁶⁴⁵ ⁶⁴⁶ ⁶⁴⁷ ⁶⁴⁸ ⁶⁴⁹ ⁶⁵⁰ ⁶⁵¹ ⁶⁵² ⁶⁵³ ⁶⁵⁴ ⁶⁵⁵ ⁶⁵⁶ ⁶⁵⁷ ⁶⁵⁸ ⁶⁵⁹ ⁶⁶⁰ ⁶⁶¹ ⁶⁶² ⁶⁶³ ⁶⁶⁴ ⁶⁶⁵ ⁶⁶⁶ ⁶⁶⁷ ⁶⁶⁸ ⁶⁶⁹ ⁶⁷⁰ ⁶⁷¹ ⁶⁷² ⁶⁷³ ⁶⁷⁴ ⁶⁷⁵ ⁶⁷⁶ ⁶⁷⁷ ⁶⁷⁸ ⁶⁷⁹ ⁶⁸⁰ ⁶⁸¹ ⁶⁸² ⁶⁸³ ⁶⁸⁴ ⁶⁸⁵ ⁶⁸⁶ ⁶⁸⁷ ⁶⁸⁸ ⁶⁸⁹ ⁶⁹⁰ ⁶⁹¹ ⁶⁹² ⁶⁹³ ⁶⁹⁴ ⁶⁹⁵ ⁶⁹⁶ ⁶⁹⁷ ⁶⁹⁸ ⁶⁹⁹ ⁷⁰⁰ ⁷⁰¹ ⁷⁰² ⁷⁰³ ⁷⁰⁴ ⁷⁰⁵ ⁷⁰⁶ ⁷⁰⁷ ⁷⁰⁸ ⁷⁰⁹ ⁷¹⁰ ⁷¹¹ ⁷¹² ⁷¹³ ⁷¹⁴ ⁷¹⁵ ⁷¹⁶ ⁷¹⁷ ⁷¹⁸ ⁷¹⁹ ⁷²⁰ ⁷²¹ ⁷²² ⁷²³ ⁷²⁴ ⁷²⁵ ⁷²⁶ ⁷²⁷ ⁷²⁸ ⁷²⁹ ⁷³⁰ ⁷³¹ ⁷³² ⁷³³ ⁷³⁴ ⁷³⁵ ⁷³⁶ ⁷³⁷ ⁷³⁸ ⁷³⁹ ⁷⁴⁰ ⁷⁴¹ ⁷⁴² ⁷⁴³ ⁷⁴⁴ ⁷⁴⁵ ⁷⁴⁶ ⁷⁴⁷ ⁷⁴⁸ ⁷⁴⁹ ⁷⁵⁰ ⁷⁵¹ ⁷⁵² ⁷⁵³ ⁷⁵⁴ ⁷⁵⁵ ⁷⁵⁶ ⁷⁵⁷ ⁷⁵⁸ ⁷⁵⁹ ⁷⁶⁰ ⁷⁶¹ ⁷⁶² ⁷⁶³ ⁷⁶⁴ ⁷⁶⁵ ⁷⁶⁶ ⁷⁶⁷ ⁷⁶⁸ ⁷⁶⁹ ⁷⁷⁰ ⁷⁷¹ ⁷⁷² ⁷⁷³ ⁷⁷⁴ ⁷⁷⁵ ⁷⁷⁶ ⁷⁷⁷ ⁷⁷⁸ ⁷⁷⁹ ⁷⁸⁰ ⁷⁸¹ ⁷⁸² ⁷⁸³ ⁷⁸⁴ ⁷⁸⁵ ⁷⁸⁶ ⁷⁸⁷ ⁷⁸⁸ ⁷⁸⁹ ⁷⁹⁰ ⁷⁹¹ ⁷⁹² ⁷⁹³ ⁷⁹⁴ ⁷⁹⁵ ⁷⁹⁶ ⁷⁹⁷ ⁷⁹⁸ ⁷⁹⁹ ⁸⁰⁰ ⁸⁰¹ ⁸⁰² ⁸⁰³ ⁸⁰⁴ ⁸⁰⁵ ⁸⁰⁶ ⁸⁰⁷ ⁸⁰⁸ ⁸⁰⁹ ⁸¹⁰ ⁸¹¹ ⁸¹² ⁸¹³ ⁸¹⁴ ⁸¹⁵ ⁸¹⁶ ⁸¹⁷ ⁸¹⁸ ⁸¹⁹ ⁸²⁰ ⁸²¹ ⁸²² ⁸²³ ⁸²⁴ ⁸²⁵ ⁸²⁶ ⁸²⁷ ⁸²⁸ ⁸²⁹ ⁸³⁰ ⁸³¹ ⁸³² ⁸³³ ⁸³⁴ ⁸³⁵ ⁸³⁶ ⁸³⁷ ⁸³⁸ ⁸³⁹ ⁸⁴⁰ ⁸⁴¹ ⁸⁴² ⁸⁴³ ⁸⁴⁴ ⁸⁴⁵ ⁸⁴⁶ ⁸⁴⁷ ⁸⁴⁸ ⁸⁴⁹ ⁸⁵⁰ ⁸⁵¹ ⁸⁵² ⁸⁵³ ⁸⁵⁴ ⁸⁵⁵ ⁸⁵⁶ ⁸⁵⁷ ⁸⁵⁸ ⁸⁵⁹ ⁸⁶⁰ ⁸⁶¹ ⁸⁶² ⁸⁶³ ⁸⁶⁴ ⁸⁶⁵ ⁸⁶⁶ ⁸⁶⁷ ⁸⁶⁸ ⁸⁶⁹ ⁸⁷⁰ ⁸⁷¹ ⁸⁷² ⁸⁷³ ⁸⁷⁴ ⁸⁷⁵ ⁸⁷⁶ ⁸⁷⁷ ⁸⁷⁸ ⁸⁷⁹ ⁸⁸⁰ ⁸⁸¹ ⁸⁸² ⁸⁸³ ⁸⁸⁴ ⁸⁸⁵ ⁸⁸⁶ ⁸⁸⁷ ⁸⁸⁸ ⁸⁸⁹ ⁸⁸¹⁰ ⁸⁸¹¹ ⁸⁸¹² ⁸⁸¹³ ⁸⁸¹⁴ ⁸⁸¹⁵ ⁸⁸¹⁶ ⁸⁸¹⁷ ⁸⁸¹⁸ ⁸⁸¹⁹ ⁸⁸²⁰ ⁸⁸²¹ ⁸⁸²² ⁸⁸²³ ⁸⁸²⁴ ⁸⁸²⁵ ⁸⁸²⁶ ⁸⁸²⁷ ⁸⁸²⁸ ⁸⁸²⁹ ⁸⁸³⁰ ⁸⁸³¹ ⁸⁸³² ⁸⁸³³ ⁸⁸³⁴ ⁸⁸³⁵ ⁸⁸³⁶ ⁸⁸³⁷ ⁸⁸³⁸ ⁸⁸³⁹ ⁸⁸⁴⁰ ⁸⁸⁴¹ ⁸⁸⁴² ⁸⁸⁴³ ⁸⁸⁴⁴ ⁸⁸⁴⁵ ⁸⁸⁴⁶ ⁸⁸⁴⁷ ⁸⁸⁴⁸ ⁸⁸⁴⁹ ⁸⁸⁵⁰ ⁸⁸⁵¹ ⁸⁸⁵² ⁸⁸⁵³ ⁸⁸⁵⁴ ⁸⁸⁵⁵ ⁸⁸⁵⁶ ⁸⁸⁵⁷ ⁸⁸⁵⁸ ⁸⁸⁵⁹ ⁸⁸⁶⁰ ⁸⁸⁶¹ ⁸⁸⁶² ⁸⁸⁶³ ⁸⁸⁶⁴ ⁸⁸⁶⁵ ⁸⁸⁶⁶ ⁸⁸⁶⁷ ⁸⁸⁶⁸ ⁸⁸⁶⁹ ⁸⁸⁷⁰ ⁸⁸⁷¹ ⁸⁸⁷² ⁸⁸⁷³ ⁸⁸⁷⁴ ⁸⁸⁷⁵ ⁸⁸⁷⁶ ⁸⁸⁷⁷ ⁸⁸⁷⁸ ⁸⁸⁷⁹ ⁸⁸⁸⁰ ⁸⁸⁸¹ ⁸⁸⁸² ⁸⁸⁸³ ⁸⁸⁸⁴ ⁸⁸⁸⁵ ⁸⁸⁸⁶ ⁸⁸⁸⁷ ⁸⁸⁸⁸ ⁸⁸⁸⁹ ⁸⁸⁸¹⁰ ⁸⁸⁸¹¹ ⁸⁸⁸¹² ⁸⁸⁸¹³ ⁸⁸⁸¹⁴ ⁸⁸⁸¹⁵ ⁸⁸⁸¹⁶ ⁸⁸⁸¹⁷ ⁸⁸⁸¹⁸ ⁸⁸⁸¹⁹ ⁸⁸⁸²⁰ ⁸⁸⁸²¹ ⁸⁸⁸²² ⁸⁸⁸²³ ⁸⁸⁸²⁴ ⁸⁸⁸²⁵ ⁸⁸⁸²⁶ ⁸⁸⁸²⁷ ⁸⁸⁸²⁸ ⁸⁸⁸²⁹ ⁸⁸⁸³⁰ ⁸⁸⁸³¹ ⁸⁸⁸³² ⁸⁸⁸³³ ⁸⁸⁸³⁴ ⁸⁸⁸³⁵ ⁸⁸⁸³⁶ ⁸⁸⁸³⁷ ⁸⁸⁸³⁸ ⁸⁸⁸³⁹ ⁸⁸⁸⁴⁰ ⁸⁸⁸⁴¹ ⁸⁸⁸⁴² ⁸⁸⁸⁴³ ⁸⁸⁸⁴⁴ ⁸⁸⁸⁴⁵ ⁸⁸⁸⁴⁶ ⁸⁸⁸⁴⁷ ⁸⁸⁸⁴⁸ ⁸⁸⁸⁴⁹ ⁸⁸⁸⁵⁰ ⁸⁸⁸⁵¹ ⁸⁸⁸⁵² ⁸⁸⁸⁵³ ⁸⁸⁸⁵⁴ ⁸⁸⁸⁵⁵ ⁸⁸⁸⁵⁶ ⁸⁸⁸⁵⁷ ⁸⁸⁸⁵⁸ ⁸⁸⁸⁵⁹ ⁸⁸⁸⁶⁰ ⁸⁸⁸⁶¹ ⁸⁸⁸⁶² ⁸⁸⁸⁶³ ⁸⁸⁸⁶⁴ ⁸⁸⁸⁶⁵ ⁸⁸⁸⁶⁶ ⁸⁸⁸⁶⁷ ⁸⁸⁸⁶⁸ ⁸⁸⁸⁶⁹ ⁸⁸⁸⁷⁰ ⁸⁸⁸⁷¹ ⁸⁸⁸⁷² ⁸⁸⁸⁷³ ⁸⁸⁸⁷⁴ ⁸⁸⁸⁷⁵ ⁸⁸⁸⁷⁶ ⁸⁸⁸⁷⁷ ⁸⁸⁸⁷⁸ ⁸⁸⁸⁷⁹ ⁸⁸⁸⁸⁰ ⁸⁸⁸⁸¹ ⁸⁸⁸⁸² ⁸⁸⁸⁸³ ⁸⁸⁸⁸⁴ ⁸⁸⁸⁸⁵ ⁸⁸⁸⁸⁶ ⁸⁸⁸⁸⁷ ⁸⁸⁸⁸⁸ ⁸⁸⁸⁸⁹ ⁸⁸⁸⁸¹⁰ ⁸⁸⁸⁸¹¹ ⁸⁸⁸⁸¹² ⁸⁸⁸⁸¹³ ⁸⁸⁸⁸¹⁴ ⁸⁸⁸⁸¹⁵ ⁸⁸⁸⁸¹⁶ ⁸⁸⁸⁸¹⁷ ⁸⁸⁸⁸¹⁸ ⁸⁸⁸⁸¹⁹ ⁸⁸⁸⁸²⁰ ⁸⁸⁸⁸²¹ ⁸⁸⁸⁸²² ⁸⁸⁸⁸²³ ⁸⁸⁸⁸²⁴ ⁸⁸⁸⁸²⁵ ⁸⁸⁸⁸²⁶ ⁸⁸⁸⁸²⁷ ⁸⁸⁸⁸²⁸ ⁸⁸⁸⁸²⁹ ⁸⁸⁸⁸³⁰ ⁸⁸⁸⁸³¹ ⁸⁸⁸⁸³² ⁸⁸⁸⁸³³ ⁸⁸⁸⁸³⁴ ⁸⁸⁸⁸³⁵ ⁸⁸⁸⁸³⁶ ⁸⁸⁸⁸³⁷ ⁸⁸⁸⁸³⁸ ⁸⁸⁸⁸³⁹ ⁸⁸⁸⁸⁴⁰ ⁸⁸⁸⁸⁴¹ ⁸⁸⁸⁸⁴² ⁸⁸⁸⁸⁴³ ⁸⁸⁸⁸⁴⁴ ⁸⁸⁸⁸⁴⁵ ⁸⁸⁸⁸⁴⁶ ⁸⁸⁸⁸⁴⁷ ⁸⁸⁸⁸⁴⁸ ⁸⁸⁸⁸⁴⁹ ⁸⁸⁸⁸⁵⁰ ⁸⁸⁸⁸⁵¹ ⁸⁸⁸⁸⁵² ⁸⁸⁸⁸⁵³ ⁸⁸⁸⁸⁵⁴ ⁸⁸⁸⁸⁵⁵ ⁸⁸⁸⁸⁵⁶ ⁸⁸⁸⁸⁵⁷ ⁸⁸⁸⁸⁵⁸ ⁸⁸⁸⁸⁵⁹ ⁸⁸⁸⁸⁶⁰ ⁸⁸⁸⁸⁶¹ ⁸⁸⁸⁸⁶² ⁸⁸⁸⁸⁶³ ⁸⁸⁸⁸⁶⁴ ⁸⁸⁸⁸⁶⁵ ⁸⁸⁸⁸⁶⁶ ⁸⁸⁸⁸⁶⁷ ⁸⁸⁸⁸⁶⁸ ⁸⁸⁸⁸⁶⁹ ⁸⁸⁸⁸⁷⁰ ⁸⁸⁸⁸⁷¹ ⁸⁸⁸⁸⁷² ⁸⁸⁸⁸⁷³ ⁸⁸⁸⁸⁷⁴ ⁸⁸⁸⁸⁷⁵ ⁸⁸⁸⁸⁷⁶ ⁸⁸⁸⁸⁷⁷ ⁸⁸⁸⁸⁷⁸ ⁸⁸⁸⁸⁷⁹ ⁸⁸⁸⁸⁸⁰ ⁸⁸⁸⁸⁸¹ ⁸⁸⁸⁸⁸² ⁸⁸⁸⁸⁸³ ⁸⁸⁸⁸⁸⁴ ⁸⁸⁸⁸⁸⁵ ⁸⁸⁸⁸⁸⁶ ⁸⁸⁸⁸⁸⁷ ⁸⁸⁸⁸⁸⁸ ⁸⁸⁸⁸⁸⁹ ⁸⁸⁸⁸⁸¹⁰ ⁸⁸⁸⁸⁸¹¹ ⁸⁸⁸⁸⁸¹² ⁸⁸⁸⁸⁸¹³ ⁸⁸⁸⁸⁸¹⁴ ⁸⁸⁸⁸⁸¹⁵ ⁸⁸⁸⁸⁸¹⁶ ⁸⁸⁸⁸⁸¹⁷ ⁸⁸⁸⁸⁸¹⁸ ⁸⁸⁸⁸⁸¹⁹ ⁸⁸⁸⁸⁸²⁰ ⁸⁸⁸⁸⁸²¹ ⁸⁸⁸⁸⁸²² ⁸⁸⁸⁸⁸²³ ⁸⁸⁸⁸⁸²⁴ ⁸⁸⁸⁸⁸²⁵ ⁸⁸⁸⁸⁸²⁶ ⁸⁸⁸⁸⁸²⁷ ⁸⁸⁸⁸⁸²⁸ ⁸⁸⁸⁸⁸²⁹ ⁸⁸⁸⁸⁸³⁰ ⁸⁸⁸⁸⁸³¹ ⁸⁸⁸⁸⁸³² ⁸⁸⁸⁸⁸³³ ⁸⁸⁸⁸⁸³⁴ ⁸⁸⁸⁸⁸³⁵ ⁸⁸⁸⁸⁸³⁶ ⁸⁸⁸⁸⁸³⁷ ⁸⁸⁸⁸⁸³⁸ ⁸⁸⁸⁸⁸³⁹ ⁸⁸⁸⁸⁸⁴⁰ ⁸⁸⁸⁸⁸⁴¹ ⁸⁸⁸⁸⁸⁴² ⁸⁸⁸⁸⁸⁴³ ⁸⁸⁸⁸⁸⁴⁴ ⁸⁸⁸⁸⁸⁴⁵ ⁸⁸⁸⁸⁸⁴⁶ ⁸⁸⁸⁸⁸⁴⁷ ⁸⁸⁸⁸⁸⁴⁸ ⁸⁸⁸⁸⁸⁴⁹ ⁸⁸⁸⁸⁸⁵⁰ ⁸⁸⁸⁸⁸⁵¹ ⁸⁸⁸⁸⁸⁵² ⁸⁸⁸⁸⁸⁵³ ⁸⁸⁸⁸⁸⁵⁴ ⁸⁸⁸⁸⁸⁵⁵ ⁸⁸⁸⁸⁸⁵⁶ ⁸⁸⁸⁸⁸⁵⁷ ⁸⁸⁸⁸⁸⁵⁸ ⁸⁸⁸⁸⁸⁵⁹ ⁸⁸⁸⁸⁸⁶⁰ ⁸⁸⁸⁸⁸⁶¹ ⁸⁸⁸⁸⁸⁶² ⁸⁸⁸⁸⁸⁶³ ⁸⁸⁸⁸⁸⁶⁴ ⁸⁸⁸⁸⁸⁶⁵ ⁸⁸⁸⁸⁸⁶⁶ ⁸⁸⁸⁸⁸⁶⁷ ⁸⁸⁸⁸⁸⁶⁸ ⁸⁸⁸⁸⁸⁶⁹ ⁸⁸⁸⁸⁸⁷⁰ ⁸⁸⁸⁸⁸⁷¹ ⁸⁸⁸⁸⁸⁷² ⁸⁸⁸⁸⁸⁷³ ⁸⁸⁸⁸⁸⁷⁴ ⁸⁸⁸⁸⁸⁷⁵ ⁸⁸⁸⁸⁸⁷⁶ ⁸⁸⁸⁸⁸⁷⁷ ⁸⁸⁸⁸⁸⁷⁸ ⁸⁸⁸⁸⁸⁷⁹ ⁸⁸⁸⁸⁸⁸⁰ ⁸⁸⁸⁸⁸⁸¹ ⁸⁸⁸⁸⁸⁸² ⁸⁸⁸⁸⁸⁸³ ⁸⁸⁸⁸⁸⁸⁴ ⁸⁸⁸⁸⁸⁸⁵ ⁸⁸⁸⁸⁸⁸⁶ ⁸⁸⁸⁸⁸⁸⁷ ⁸⁸⁸⁸⁸⁸⁸ ⁸⁸⁸⁸⁸⁸⁹ ⁸⁸⁸⁸⁸⁸¹⁰ ⁸⁸⁸⁸⁸⁸¹¹ ⁸⁸⁸⁸⁸⁸¹² ⁸⁸⁸⁸⁸⁸¹³ ⁸⁸⁸⁸⁸⁸¹⁴ ⁸⁸⁸⁸⁸⁸¹⁵ ⁸⁸⁸⁸⁸⁸¹⁶ ⁸⁸⁸⁸⁸⁸¹⁷ ⁸⁸⁸⁸⁸⁸¹⁸ ⁸⁸⁸⁸⁸⁸¹⁹ ⁸⁸⁸⁸⁸⁸²⁰ ⁸⁸⁸⁸⁸⁸²¹ ⁸⁸⁸⁸⁸⁸²² ⁸⁸⁸⁸⁸⁸²³ ⁸⁸⁸⁸⁸⁸²⁴ ⁸⁸⁸⁸⁸⁸²⁵ ⁸⁸⁸⁸⁸⁸²⁶ ⁸⁸⁸⁸⁸⁸²⁷ ⁸⁸⁸⁸⁸⁸²⁸ ⁸⁸⁸⁸⁸⁸²⁹ ⁸⁸⁸⁸⁸⁸³⁰ ⁸⁸⁸⁸⁸⁸³¹ ⁸⁸⁸⁸⁸⁸³² ⁸⁸⁸⁸⁸⁸³³ ⁸⁸⁸⁸⁸⁸³⁴ ⁸⁸⁸⁸⁸⁸³⁵ ⁸⁸⁸⁸⁸⁸³⁶ ⁸⁸⁸⁸⁸⁸³⁷ ⁸⁸⁸⁸⁸⁸³⁸ ⁸⁸⁸⁸⁸⁸³⁹ ⁸⁸⁸⁸⁸⁸⁴⁰ ⁸⁸⁸⁸⁸⁸⁴¹ ⁸⁸⁸⁸⁸⁸⁴² ⁸⁸⁸⁸⁸⁸⁴³ ⁸⁸⁸⁸⁸⁸⁴⁴ ⁸⁸⁸⁸⁸⁸⁴⁵ ⁸⁸⁸⁸⁸⁸⁴⁶ ⁸⁸⁸⁸⁸⁸⁴⁷ ⁸⁸⁸⁸⁸⁸⁴⁸ ⁸⁸⁸⁸⁸⁸⁴⁹ ⁸⁸⁸⁸⁸⁸⁵⁰ ⁸⁸⁸⁸⁸⁸⁵¹ ⁸⁸⁸⁸⁸⁸⁵² ⁸⁸⁸⁸⁸⁸⁵³ ⁸⁸⁸⁸⁸⁸⁵⁴ ⁸⁸⁸⁸⁸⁸⁵⁵ ⁸⁸⁸⁸⁸⁸⁵⁶ ⁸⁸⁸⁸⁸⁸⁵⁷ ⁸⁸⁸⁸⁸⁸⁵⁸ ⁸⁸⁸⁸⁸⁸⁵⁹ ⁸⁸⁸⁸⁸⁸⁶⁰ ⁸⁸⁸⁸⁸⁸⁶¹ ⁸⁸⁸⁸⁸⁸⁶² ⁸⁸

대설 노니가 후 삼장

류벽 오십팔

규모 일시 힝호지 아니호며 뜨금의 랑식을 갑일시 먹지 안코 오직 슈고하고
 악씨 밤낮으로 일호야 너희 홀사름의 배도 루를 세치지 아니호였스니 권리가
 업서서 그리 훌거시 아니오 오직 스스로 모본이 되여 너희로 우리를 본방에
 흘려 흠이니라 우리 가전에 너희 가온디 잇슬 때에도 너희 배 명호기를
 누구던지 일호기 슬허 흘거든 먹지도 말게 호라 흘였더니 우리 가드르매
 너희 가온디 규모 일시 힝호는 자가 잇서 도모지 일호지 아니호고 알만 듣는다
 흔니 이런 사름의 배 우리 가명호고 쥬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호기를
 종용히 일호야 드괴 랑식 만먹으라 호노라 형데들 아니희는 선을 힝호다가
 락심치 말나 만일이 편자에 흘우리 말을 슬종치 아니호는 자가 잇거든 곳
 그 사름을 지목호야 스괴지 말고 더로 흘여 곰붓그립게 호라 그러나 원슈로
 녁이 지말고 형데로 치권면 흘지이다 ○ 평강을 주시는 쥬씨서 친하 때마다
 일마다 너희께 평강을 주시기를 원호노라 쥬는 너희 모든 사름과 흘씨
 계실지어다 ○ 나바울은 천필노 문안호노니 이는 편자마다 나의 표적이 기로
 어제 쓰노라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의 배 잇슬지어다

티모데 전

소도의
계보
전편지

우리 구쥬 되신 하느님과 우리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을 쓰라
 그리스도 예수의 손도 된 바울이 멋음으로 내 촘아들 된 티모데의 배
 편지호노니 하느님 아바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쥬로 말미 암야 은혜와
 궁휼파 평강이 네 배 잇슬지이다 ○ 내가 마세도니아로 떠날 때에 너를
 결혼 것 같지 이제도 퀸호노니 에베소에 머물너 멋사름을 명호야 다른
 교훈을 전호지 말며 혀 탄호니야 기와 무궁호족 보의 니야 기를 듯지 말나고
 흘라이 는 번론을 내고 도로 혀 멋음으로 된 하느님의 도를 일우지 못호개
 흘는 거시라 경계의 큰 뜻은 소랑이니 곧 청결호 모임파 차호 랑심파
 거죽이 업는 멋음으로 난 거시어 늘 사름이 잇서 이를 브리고 혀된 말에
 빼져 룰법의 선성이 되려 흘나 드괴가 말호는 것과 안다고 흘는 것도
 아지 못하는 도다 우리는 룰법이 아름다운 줄 알거나와 다만 사름이 법대로
 쓸 거시니 사름이 알거순 룰법이 올흔 사름을 위호야 세움이 아니오이에

되 모데 전 일장

류 빅 류 십 일

무법 혼자와 복종 치 아니 흐는 자와 경건 치 아니 흐는 자와 악함을 짓는 자와
 거룩 흐지 아니 혼자와 더러운 자와 부모를 치는 자와 살인 흐는 자와 음행 흐
 는 자와 남석 흐는 자와 사물을 탈취 흐는 자와 거죽 말 lộ는 자와 거죽 밍세 흐
 는 자와 무릇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슬 위 흐야 세움이니라 이는 내 개
 맛기신 바 복되신 하느님의 영화로 온 복음을 쪽씀이니라 ○ 나를 능히 계
 흐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히 보사 내 개
 직분을 맛기심이나 내가 전에는 훼방 흐던 자요 필박 흐던 자요 름육 흐던 자나
 도로 혼금 흐음을 납은 거슨 내가 멋지 아니 흐 때에 아지 못함으로 힝함이라
 우리 주의 은혜와 멋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멋음파 소량이 더욱
 풍성 흐도다 멋보다 모든 사물들이 밟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 씨셔
 세상에 림 흐심은 죄인을 구원 흐려 흐심이니 그 중에 내가 괴슈니라 그러나
 내가 그 유흐함을 납은 거슨 예수 그리스도 씨셔 몬져 내게 일절 촘으심을
 보이샤 후에 주를 멋여 영성 엇는 자의 계본이 되게 흐심이니라 영원 흐신
 왕 꽃 씨지 아니 흐고 보이자 아니 흐고 홀노 흐나 만 되신 하느님의 존귀와
 명호 노니 너를 그로 쳐 미리 말할 것 고치 그대로 선호 싸 흠을 싸 호며
 멋음파 차흔 랑심을 가지라 사물이 잊서 이 랑심을 보렷스니 그 멋음을
 의론 흐진 대 파선 흐름과 웃 흐니라 그 가온 흐 후에 내 오와 알렉산더가 잊스니
 내가 사단의 계준 거슨 데희들을 징계 흐야 훼방 흐 저안 켜 흠이니라
 그럼으로써 내가 첫째 권 흐는 거슨 모든 사물을 위 흐야 군구 흐며 기도 흐며
 도고 흐며 감사 흐라 남문파 무릇 위에 잊는 자를 위 흐야 괴도 흐 거시니
 이는 우리로 흐여 곰 경건 흐파 단정 흐으로 써 고요 흐고 평안히 살게 흔이니라
 대개 이는 우리 구주 하느님 압해 아름 담고 밟으실 만한 거시니 모든
 사물이 구원 흐음을 엿여 진리를 아는 티 드러오는 거슬하는 남이 원호신 나라
 대개 흐 하느님이 계시고 또 하느님파 사물 속에 혼종 보가 계시매 이는
 사물이니 꽃 그리스도 예수 시라 더가 모든 사물을 위 흐야 속 흐 거스로
 조리를 주셨는 즉 땡가니르면 이를 종거 흐 거시니 이 일 노 내가 반포 흐
 는 자와 솟도록 세움을 납여 멋음파 진리로 이방 사물의 스승이 되였스니

이 말이 촘 말이 오 거죽 말이 아니로라 ○ 이럼으로 각처에서 남조들이
 분노 흠과 다통이 업시 거룩한 손을 들어 괴도 흐기를 원하노라 ^九도 흐 이와
 끗치 부녀들이 아담한 옷을 담 ^十하니며 럼치와 정절이 잇고 삶인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갑진 옷으로 단장하니 말고 오직 종용 ^{十一}향으로 단장하라 이는
 하느님을 공경한다 하는 부녀의 ^{十二}세 맛당하니라 부녀가 종용하고 온전히
 슈종 흠으로 도를 비흘 거시오 부녀가 그르치고 사나희를 쥬관하는 거슬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 ^{十三}흘지니라 대개 아담이 몬져 지음을 밋고
 해와는 후에 지음을 밋앗스며 ^{十四}아담이 쐐임을 보지 아니하고 이에 너인이
 쐐임을 보아 죄에 빠진지라 그려나부녀가 만일 멋음과 스랑파 거룩 흠과
 정절을 저히면 히선 흠으로 구원 흠을 엊으리라

밋브다 이 말이여 사름이 갈독의 직분을 엿으려 흐면 아름다온 일을
 스모흔다 ^{十五}하니 갈독은 척망할 거시 업스며 흔 안희의 남편이 되며
 존절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손을 스랑하며 그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데화 ^{十六}하니 아니하며 구타 ^{十七}하니 아니하며 오직 온유하고 다로저 아니하며 돈을

복종 ^{十八}제 ^{十九}흘자 ^{二十}나 대개 사름이 조괴 ^{二十一}집을 잘다스려 ^{二十二}조녀들 노 ^{二十三}하여 곰 모둔 ^{二十四}단정 흠으로
 교회를 스플피리오 ^{二十五}새로 입교 ^{二十六}훈자도 말지니 제가 교만 흠으로 써 ^{二十七}조그 ^{二十八}하야
 마귀의 죄로 ^{二十九}당호 ^{三十}되 짜질가 두려워 흘거시오 ^{三十一}도 훈 외인의 ^{三十二}계셔도 아름다온
 중거를 엉은자라야 ^{三十三}흘거시니 훠방을 밋아 마귀의 쐐에 짜질가 넘려 흐라
 이와 끗치 ^{三十五}집스들도 맛당히 단정 ^{三十六}교 일구이 ^{三十七}언을 흐지 아니하고 술을 만히
 먹자 아니하고 더러운 리를 쳐 ^{三十八}지 아니하고 묵은 량심으로 멋음의 오묘한
 거슬 가진자라야 ^{三十九}흘거시니 이에 이 사률들을 몬져 스플피 보고 그 후에
 칙망이 업스면 ^{四十}집스의 직분을 흘거시오 ^{四十一}부녀들도 이와 끗치 단정 ^{四十二}하고
 참소 ^{四十三}하니 말며 존절하며 모든 일에 충성 ^{四十四}훈자가 될거시니라 ^{四十五}집스 ^{四十六}된자들은
 혼 안희의 날편이 되여 ^{四十七}조녀와 조괴 ^{四十八}집을 잘다스릴 거시니 대개 집스
 직분을 잘 흘자들은 아름다온 디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멋음에
 큰 담력을 만히 엉느니라 ○ 내가 속히 네케 가기를 브라나 ^{四十九}만일 더더히 면
 너로 흐여 곰하는님의 집에서 엉더게 흉흐여야 맛당 흘거슬 알게 흐라고

되모데 전 오장

류법류심스

이 글을 써서 네게 보내노니 이 집은 곳 살아 계신 하느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동파 라이니라 ^(十六) 크도다 경건함의 오묘함이여 그 러치안타 ^(十七) 흔는 이 업도다 육신으로 나타나시고 신으로 올라 헌심을 님으시고 련스들의 데 보이시고 만국에서 반포함을 엉으시고 련하에셔 멋음을 보시고 영광 있는 터로

을 나가셨느니라

성신이 복개 말씀 허시기를 이후에 멋음을 빼 반하는 사람에 있어서 미혹 허게 흔는 신파 샤귀의 그르침을 쪽쓰리니 그 ^(十八) 량심이 단 쇠에 화인 마준 것 ^(十九) 꼬호야 거죽 말을 허며 외식 흔는 자라 혼인함과 식물을 금하고나 식물은 하는 남이 지으신 바니 멋고 진리를 아는 자가 감사함으로 밟을 거시라 대개 하느님이 ^(二十) 지으신 거순다 아름다오매 사람이 감사함으로 밟으면 ^(二十一) 블릴 거시 업스니 ^(二十二) 하느님의 말씀과 괴도함으로 써 거룩히여지느니라 ○ ^(二十三) 네가 이 거스로 형데를 써 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아름다운 집스가 되여 멋음의 말씀파 네가 쫓는 교훈 중에서 양육을 밟으리라 ^(二十四) 망령된 말과 늙은 녀인의 허탄한 ^(二十五) 니야기를 브리고 경건함을 련습할 거시니 몸을 련습하는 거순

^(一) 유익 ^(二) 함금이 ^(三) 져고 오직 경건함은 모든 일에 유익 ^(四) 궁금 ^(五) 금성과 리성에 허락 ^(六) 헌심이 ^(七) 있는니 ^(八) 멋쁘다 ^(九)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밟을 만 ^(十) 헛도다 ^(十一) 이를 위호야 우리 가 ^(十二) 슈고하고 힘쓰는 거순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느님께 둠이니 곳 모든 사물의 구주시오 특별히 멋는 사물의 구주시라 ^(十四) 네가 이 여러 거슬명 ^(十五) 헌심이 ^(十六) 그르치라 네가 나이 어림으로 써 사물의 데 업수히 녀임을 밟지 말고 오직 맞당히 말과 헝실과 소랑과 멋음파 ^(十七) 짹긋함으로 써 멋는 자의 데 본이 되여 내가 ^(十八) 너를 땐지지 성경 넓는 것파 ^(十九) 헌하는 것파 ^(二十) 그르치는 거슬 힘쓰라 네 속에 있는 은혜는 곳 장로가 모혀 손 연질 ^(二十一) 땐에 예언으로 말미 암아 주신 거시니 조심업시 말며 이 ^(二十二) 모든 일을 조심히 온전히 힘써 너의 진보함을 모든 사물의 데 나라내라 ^(二十四) 네가 네 헝실과 그르침을 삼가 ^(二十五) 흥상 그대로 힘쓰라 대개 이 꼬치 헝 ^(二十六) 헛면 네가 너도 구원하고 네게 듯는 자도 구원 ^(二十七) 허리라

^(二十八) 늙은 이를 쑤짓지 말고 오직 아비 ^(二十九) 꼬치 ^(三十) 헌중 ^(三十一) 먹은 이를 동성 ^(三十二) 꼬치 ^(三十三) 녀이고 ^(三十四) 늙은 녀인을 어미 ^(三十五) 꼬치 헌히 ^(三十六) 먹은 녀인을 모든 짹긋함으로 써 누의 꼬치

티모데 전 오장

류법류심류

네이라 파부에 촘파부를 공경호되 ^四 오직 파부가 드녀나 손조가 잇거든
 몬져 그 집에서 효를 힝호야 부모의께 감기를 빙호케 호라 대개 이 거시
 하는 님 압해 밧으실 만호 거시니라 촘 ^五 파부 되여 외로온자는 하느님 씨
 소망을 두어 쥬야로 흥상 군구호야 괴도호거니와 연락을 빙화호는이는
 거시 업비 흘지니 사름이 만일 꼴과 일자를 도라보지아니호고 더욱 드괴
 집안 사름을 도라보지아니호면 멋음을 빙 ^六 밤호자요 멋지아니호는자 보다
 더 악호니라 ^九 파부로 척에 올닐거슨 나이 륙십이 델 되지아니호고 흘
 남편의 암허가 되여 아름다운 헹설의 증거가 잇스티 만일 드녀를 양육호며
 면더 사름을 접덕호며 성도의 말을 셋기며 어려움 밧는 사름을 구제호며
 모든 선호 일을 쪽촌자라야 흘 거시오 ^十 젊은 파부를 올니지 말 거슨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빙 반흘 때에 식집 가고 저훔이니 처음 멋음을
 져 브림으로 죄를 명호였느니라 ^{十一} 또 너희가 캐으름을 닉혀 집집이 든니고
 또 혼 캐으를 뿐 아니라 망령된 말도 흘며 일도 만든며 맞당치 못한 말도
 흘방흘 ^{十二} 괴회를 주지 말기를 원호노라 ^{十三} 대개 임의 사단의께 도라간자도
 잇도다 ^{十四} 만일 멋는 너조의 집에 파부가 잇거든 제가 도아주고 교회가
 당호지 말케 흘 거순 교회가 촘파부를 도아주께 흘이니라 ○ 잘 다스리는
 장로를 빙나 존경흘자로 알고 도를 전호고 그르쳐주기에 슈고하는 장로를
 더욱 그리흘 거시라 대개 성경에 날넷스터 곡식을 뿐아 써는 소의 임에
 망을 씌우지 말나 흘고 또 날넷스터 일군이 그 삽을 밧는 거시 맛당호다
 흘셨느니라 ^{十七} 장로를 거스리는 촘스는 두세 종인이 업스면 밧지말 거시오
 죄를 범흔자는 모든 사름 압해 쓰지져 다른 사름으로 흘여 곰두렵케 호라
 하느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흑호신련수 압해셔 내가 너를 명호야 이 여러
 거슬 적히케 호노니 미리 작명호지 말며 아모 일도 편벽되히 호지 말고
 아모 사름의께나 거연히 안슈호지 말고 다른 사름의 죄에 간섭지 말고
 스스로 직혀 쟈고 이제 브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네비위와 만호 병을
 위호야 포도주를 조곰식 쓰라 엇던 사름의 죄는 드러나 심판호케 되여 가고

의 모데 전 류장

二五

류 립 류 십 팔

八六六

었던 사람의 죄는 그 뒤를 드라오느니 이와 그치 선히이 드려난 것도 잊고
 그려 치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업느니라
 명에 아래 잇는 종들은 조괴 주인을 지극히 공경호흡자로 알아 하느님의
 일 흠과 교훈이 육을 보지 말게 허고 또 멧는 주인이 잇는자는 그 주인을
 형데 됨으로 업수 허녀이 지 말고 더욱 복종 흥게 허라 이는 섬김을 받는자들이
 멷고 사랑 희심을 밟는자가 됨이니 이 여러 거슬 그르쳐 권 허라 ○ 만일
 누가 다른 교훈을 허며 바른 말 곳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 훈
 교훈을 죽지 아니하는자가 잇스면 더는 교만 허야 허나도 아는 거시 업고
 변론파 말의 다툼을 빙화 허는자니 이로써 질투와 분정파 훼방파 악한
 성각파 무음이 문허지 고 진리를 일허 브린자의 다툼이 나느니 더희 뜻에는
 경건 흠으로 리를 허 흠종도 아나 그러나 지족 허는 무음이 잇스면 경건 흠이
 콘리가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올 때에 가지고 온 거시 업스매 세상을
 떠날 때에도 뜨흔 아모 것도 가지고 가지 못 허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님을
 거시 잇는즉 족 흠종 노 알 거시니라 부 흠려 허는 사람은 시험파 뻐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떠러져 느니 곳 사람으로 침몰파 멀망에

짜지게 허는 거시 라 돈을 탐함이 일만 악의 쪽리가 되느니 손모 허는 사람이

미혹 허야 멧음에 떠나 만흔 괴로움으로써 조괴를 썰냈도다 ○ 오직 너

하느님의 사람아 이 것들을 피 허고 의와 경건 흠과 멧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흠을 죽초며 멧음의 선호 싸 흠을 힘써 싸화 영성을 쥐 허라 이로써

네가 부르심을 님었고 만흔 종인 암혜서 아름다운 종거를 증거 허엿도다

만물을 살게 허신 하느님 암과 본디 오 빌나 도를 향 허야 아름다운 종거로

증거 허신 그리스도 예수 암혜서 내가 너를 명호 노니 우리 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흠이 업고 척망할 거시 업시 계명을 직히라

죽지 아니 흠이 그에게 만잇고 갖가히 가지 못 허 빛해 거 허시고 사람이

보지 못 허였고 또 볼 수 업는자 시니 그의 계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날지 어다

아멘 ○ 네가 이 세상에 부흔 자를 명호야 무음을 높히지 말고 명함이 업는

티모데 전 류장

류별 철심집

제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거슬 두터히 주샤 누리게
하시는 하느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일을 향하고 아름다운 형실도 부호고
화주기를 빙화하며 무리와 흉내 호게 호라 이^이려^이면^이 장^장리를 위^위하야
조괴가 빙화를 짜하 촤된 성명을 캐^취하리라 ○ 티모데아 네게 부탁^{부탁}
거슬^직히고 거^뜻으로 날^로는 지식의 망^망념^념되고 허^허한 말과 변론을 피^호라
이^이거^거슬^슬 죽는 사^사람^람이 있^서 멋^멋음을 보^보렸^느니^나라^라 은^은해^해가^가 너희^네게^게 있^있슬^슬지^지어^다

三

하느님의 뜻^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예수}의 속도^도가 되여 그리스도^{예수}안에
잇는 성명의 혀락을 죽는 바울이^{사랑}하는 아들 티모데^의에게 편지^호노니
하느님 아바지와 그리스도^{예수}우리 쥬로 말미암아 은^은혜^혜와^과 공^공홀^홀
평^평강^강이^이 네^네게^게 있^있슬^슬지^지어^다 ○ 내가^고구^구호^호며 너^를 성각^{성각}하기를^마지^자 아니^하니^하음을^을
인^인호^호야^야 내^내 조^조상을^상 본^발아^아 청결^{청결}한^한 랑^랑심^심으로^로 섬^기가는^하야^야 너^의 보^기를^를 밤^낮원^원심^심은^은 내^기깃^깃름^름이^고 두^두호^호개^개
너^의 눈^을 훌^훌난^난거^거슬^슬성각^{성각}하^야 너^보기^를 밤^낮원^원심^심은^은 내^기깃^깃름^름이^고 두^두호^호개^개
궁^궁려^려함^함이^니 이^는 네^속에^에 거^뜻이^이 업^는 멋^멋음을^을 성각^{성각}함^함이라^이 멋^멋음^을 묻^져
네^외조^조모^모로^로이^스와^와 네^어머^머니^유니^유내^내세^세속^속에^에 잇^더니^니 뉴^뉴호^호네^속에^에 잇^는줄^을
김^김히^히아^아노^노라^라 그^그럼^{으로} 네^가너^로 희^희여^여공^공성각^{성각}하^야 호^호노^노니^나의^의 안^안슈^슈함^함으로^로
하^느님^이 네^속에^에 주^신은^은혜^혜를^를 다시^불 닐^듯호^호개^개 대^대개^개 하^느님^이
우^우리^리의^의계^계 주^신 거^거손^손 두^두려^려워^워호^호는^는 모^모음^음이^이 아니^오다^만 능^능호^호고^고 스^스랑^랑호^호고^고
근^근신^신호^호는^는 모^모음^음이^이 그^그럼^{으로} 써^써 네^가우^우리^리쥬^쥬의^의증^증거^거와^와 쥬^쥬를^를 인^인호^호야^야 갖^친

나를 붓그려워 말고 오직 하느님의 권능을 힘입어 복음을 위호야 고난을
 웃치 밟으라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호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항흔대로 호심이 아니오 오직 조괴 죽파 은혜대로
 호심이라 이은혜는 영원흔째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게
 주셨고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심이니 예수가 스망을 폐하시고 성명과 썩져 아니함을 복음으로 써
 드러내신지라 이복음을 위호야 내가 세움을 네에 반포하는자와 수도와
 교조가 되엿노라 그림으로 내가 이곳흔 괴로움을 밟으되 붓그려워호지
 아니호니 대개 나의 맛은쟈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호 거슬 그
 날서지 더가 능히 직히 실줄을 깁히 아노라 너는 믿음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손랑으로 써내게 드른바 바른 말을 본맛아 직히고 우리 안에
 거쳐호서는 성신을 힘입어 네게 부탁호 아름다온 거슬직히라 ○ 아시아에
 있는 사림이다 나를 비방함을 네가 아는니 그 중에 부겔노와 허모케네가
 있느니라 원컨대 주여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공흘 호심을 베프시옵쇼서

대개 더가 나를 여러번위로호고 나의 손슬에 미인 거슬 붓그려워 아니호야
 로마에 잇슬 땐에 나를 은근히 차자 맛낫스니 원컨대 쥬썩셔 더로 호여곰
 그 날에 주의 공흘 호심을 업개 호야 주옵쇼서 또 더가 예베소에서 얼마콤
 나를 섬긴 거슬 네가 붉히 아느니라

내 아들아 그림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힘입어 강건호고
 네가 만흔 종인 압해셔 내게 드른바를 충성되고 다른사람을 능히 웃친
 줄쟈의께 부탁호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빙흔 군수와 웃치 나와 흠색
 고난을 견딜지니 무릇 군수로 든다는자는 솟 솟 일노 조괴를 미자 아니호느니
 이는 조괴를 군수로 챙은쟈를 깃브제 흥려함이오 힘을 비교하는자가 만일
 법대로 다도지아니호면 면류관을 엊지못호리라 슈교훈 농부가 몬져
 곡식을 맛는거시 맛당호니라 내 말호는 거슬 성각호라 대개 쥬썩셔
 만스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가온더셔 다시
 살으심파 다윗의 조손된 거슬 조괴역호라 이는 내가 전하는 복음이니
 이로써 내가 고난맛기를 좌인파 웃치 미이든 터서 지나르렀으나 하느님의

티모데 후이장

류벽칠십수

말씀은 미아지 아니혼지라 그림으로 텁호신쟈를 위호야 내가 모든 거슬
 촘아 더희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호 영화를 업케
 호려호노니 및브다 이 말이여 우리가 쥬와 혼가자로 죽엇스면 도훈
 혼가자로 살거시오 혼가자로 촘으면 도훈 혼가자로 남군 노릇을 거시오
 우리 가쥬를 브리멸쥬도 우리를 브리실거시오 우리는 멋름이 업슬지라도
 쥬는 일향 멋브시니 조괴를 거스리지 못호시리라 ○ 이일을 괴역호제호야
 쥬 암해서 명호기를 말을 인호야 다토지말나 혼라 이는 무익흘뿐 아니라
 도로 혀듯는 사름을 망호제 흄아니라 네가 힘써 하느님째 깃버호시는쟈로
 보이고 불그러워흘 거시 업는 일군이 되여 진리의 말씀을 올케 분변호며
 망녕되고 허흔 말을 브리라 대개 이런 사름은 경건치못흘에 점점
 나아가는니 더희 말은 비컨대 독훈 창질이 만발흘파 고고 그 중에
 후메내오와 빌네도 가잇는니라 전리로 말호면 더희가 그릇된지라 부활이
 암의 지나갓다 흄으로 엇던 사름의 멋승음을 문해트리는도다 그러나
 하느님의 경교훈터는 셋스니 그 우에 인침이 잇서 날넷스티 쥬색서 조괴

벽성을 아신다 놓며 쪼 달넷스티 쥬의 일홈을 부르는쟈마다 불의함을
 떠날지어다 혼엿느니라 쪼 집에는 금 그릇파은 그릇이 잇슬뿐 아니오
 나무 그릇파절 그릇도 잇서 귀히쓰는 것도 잇고 천히쓰는 것도 잇는니
 사름이 만일 조괴를 석긋호제호야 이를 떠나면 곳귀히쓰는 그릇이 되여
 거룩하고 쥬의 쓰심에 합당호며 모든 착흔 일 호기에 예비 흄이 되리라
 쇠 혼네가 쇠년의 정욕을 피호고 쥬의 일홈을 물은 모임으로 부르는쟈와
 흄색의와 및음파 스랑파 화목함을 쪼츠라 어리석고 무식흔 변론을 브리라
 대개 이로 말미암아 다톰이 나는줄 알지니 오직 맛당히 쥬의 종은
 다토지 아니호며 사름을 터놓 야온유홍며 그릇처기를 잘호며 학터방음을
 촘으며 거역하는자를 온유함으로 정계호지니 후 하느님이 더희제회기호는
 모임을 주샤 진리를 알게 호시면 더희가 써여 마귀의 그물을 버셔나리니
 대개 그 뜻을 조차 그의 개사로 잡힌쟈가 됨이라
 내가 이 거슬알나 모조막腮에 위리훈날이 나르리니 대개 사름이 조괴를
 스랑호며 돈을 스랑호며 주공호며 교만호며 해방호며 부모를 거역호며

티모데 후 삼장

류 빅 철십자

은혜를 저부리며 거룩하니 아니하고 불룩하며 원동홍음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호며 손육을 쪽츠며 사오나오며 착호 거슬 뒤워호며 빅반호야 팔며 조금호며 드고호며 연락을 스랑호기를 하느님 스랑호는 것 보다 더호며 경건호 모양은 잇스나 경건호 능은 브렛느니 이 조흔자의께서 네가 도라서라 대개 그 중에 엉던 사람이 몰领会 남의 집에 드러가 어리석은 계집을 선으느니 그 계집은 죄를 중히 지고 여리 가지 욕심에 쐐인바 되여 홍상 빠호나 못출내 진리를 아는 뒤 니를수업느니라 이전에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터덕흔 것과 처녀 사를들도 진리를 터덕호니 그 믿음이 문허 젓고 믿음을 의론호전대 브린바 된지라 그러나 너희가 더 나가지 못함은 그 어리석음이 무리의케 드러남이 더 두 사람과 조흡이나리 나의 교훈과 힝실파의향파 및음파 오래 총금파 스랑파 인내와 팝박파 고난파 또한 안티옥파 이고니온파 루스드라에서 당호 일파 엉더케 받은 팝박을 네가 임의 보고 알거니와 주예셔 그 모든 가온더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호게 살고제호는자는 팝박을 밟으리라 다만 악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인호야 구원함을 엔는 지혜가 잇께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느님의 묵시호신바니 교훈파 척망파 바르게 험파 하느님 압파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호실 그리스도 예수 압해서 그 나라나 실 것파 그 나라를 증거로 삼아 너를 징계호노나도를 전파하고 뼈를 엉던지 못었던지 온전히 험쓰고 오래 총금파 그로침으로 경최호며 경계호며 권호라 뼈가 나르리니 사름이 바른 교훈을 밟지 아니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빼하하야 조과의 손육을 쪽출 스승을 만히 두고 또 그 귀를 도리켜 진리를 듯지 아니하고 허단호니야기를 쪽츠리라 오직 너는 모든 일에 결제가 잇서 교난을 견디고 전도인의 일을 하고 네 직분을 다호라

티모데 후 스장

류 빅 철십 팔

대개 이제 제 죄를 봇는 것 같지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세상을 떠날 피약이
 갖가운지라 ⁷내가 선호 싸흘을 싸하고 나의 달녀 갈길을 다 가고 멋음을
 직히 엿스니 ⁸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야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야 두셨느니
 곳 쥬셔서 ⁹의로 오신 저판장이 되샤 그 날에 내게 주시고 내게 만주실 뿐
 아니라 쥬의 ¹⁰나타나심을 솟호는 몽자 의계도 주사리라 ○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¹¹대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야 나를 봄리고 데살 노니 가로
 가고 그레스 ¹²에는 말나드아로 가고 뇌도는 달마드아로 가고 오직 누가 만
 나와 ¹³곳처잇느니 네가 올때에 마가를 다리고 오라 ¹⁴여가 나의 일하는 뒤
 유익하니라 ¹⁵두 기고는 에베소로 보내 엿노라 ¹⁶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것 웃을 올때에 가지고 오고 또 청을 가져 오터 특별히 가족 종의에 쓴 거슬
 가져 오라 ¹⁷구리 장식 알네산더가 내게 해를 만히 보엿스매 쥬셔서 그
 힝흔대로 갑종사리니 ¹⁸너도 데를 삼가라 ¹⁹여가 우리 말을 심히 덕하엿느니라
 내가 내일을 처음 발명할 때에 나와 험씨 혼사름이 업고 다나를 보렸느니
 이 죄를 대회계로 돌니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²⁰쥬셔 내 것 해서서 나를

강건 채 ²¹하심은 나로 도를 온전히 전파하세 ²²하사 이방 ²³사람으로
 하려 ²⁴하심이니 내가 ²⁵나의 입에서 건져 냅을 엊엇느니라 ²⁶쥬셔 ²⁷디
 건져 모든 악한 일에 버서 나게 ²⁸하시고 또 구원하야 ²⁹련국에 ³⁰드로 나를
 호시리니 ³¹더의 ³²영광이 세세에 잊을지이다 아멘 ○ ³³브리스가와 ³⁴드러가게
 멋 ³⁵오네시 ³⁶본로의 집을 문안하라 ³⁷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었고 ³⁸드로 비
 병들므로 밀네도에 두엇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³⁹불노가 너를
 문안하고 또 혼부네와 리노화 글나우드아와 몽형데가다 문안하느니라 ○
 쥬셔 네 믿음에 계시기를 브라노니 은혜가 너희에 잊을지이다